DEC 9 1981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88 1981년12월5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Saturday, December 5, 1981

한인회관 이전문제 공청회

회관이전 과반수 찬성

30여명의 각계대표들 2시간의 열띤 토론

◇회관관리위가 후보건물로 점찍은 곳(크리스티·서브웨이 남쪽 길건너에 있다).

20 Mobile Dr.의 토론토한인회관에서는 2일 30여 교민들이모여 회관이전문제를 놓고 열띤 찬반논쟁을 벌였다. 이날 저녁7시 한인회관 관리위원회(회장 조한철)가 주최한 회관 이전문제 공청회에서는 한인들이 밀집한 블루어 거리로 옮겨야 교통편의등 모든 기능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다는 이전 지지론과 거금 40만달러규모의 한인들의 공동재산을 옮기는데 교민들의 의사집약도 없이 그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느냐는 신중론이 대두됐다. 이날 조한철 회관관리위원장은 회관이전문제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고, 팔려고 내논 블루어 거리 아리랑식당 건너편 장의사(719~721 Bloor W.)로 쓰였던 건물에 대한 구조등을 설명보고 했다.

조위원장은 "이 건물은 $375,000에 나온 집으로 싯가에 비해 비교적 싸며, 현 회관의 싯가와 비슷해 금전적인 난제는 없을 것 같다"면서 교통이 편리하고, 한인상가와 인접해있고, 현건물보다 공간이 넓어 렌트수입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을 소개했고, 단점으로는 건물이 현회관보다 오래된빌딩이라, 환기등이 좋지 않고, 하이웨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인사회 각단체장등이 등단 열띤 찬, 반 논쟁을 벌였다.

첫번째 발언에 나선 양혜신씨는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지만 현 회관을 이제는 거의 익혔는데 왜 옮기려는지 모르겠다. 또 옮겨도 하필이면 장의사 자리로 옮기느냐" 등의 반대발언을 했다.

이어 정인기노년회장, 홍기만, 김준순, 김삼도, 김근섭, 변의섭, 하주용, 이도화, 이대환씨등은 이구동성으로 "회관은 한인들의 밀집지역에 있어야 하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블루어 거리로 옮기는 것이 당연하다. 장의사라는 불길한 예감은 아무런 장애도 될 수 없다. 현재 회관에 사장된 천여권 한국도서도 교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다. 적지에 나온 이 장소를 놓치면 또 몇해를 끌어야 된다"등 요지의 이전 지지 발언을 했다.

신중론및 이전반대론자로는 박영철 부총영사가 "모국정부가 사준 회관을 확대이전도, 발전적 이전도 아닌 이전은 실천에 옮길 필요가 없다. 또 굳이 번영회 거리로 옮길 필요가 있겠는가? 조금이라도 교민의 반대가 있으면 옮기지 말아야 한다. 특히장의사자리로 옮기는 것은 반대다"고 강경론을 폈고, 신영식, 이형인, 원영신, 유영린씨등은 서면설문등 널리 교민의 의견을 묻는 한편 후보건물 여럿을 물색, 택일하는 방향등 신중한 입장을 폈다.

이날의 찬, 반 발언경향으로 보아 이전찬성이 약 2:1의 추세로 반대론 보다 많았다.

이전문제 전담자들(조한철 회관관리위원장, 박인순한인회장, 함병섭한인회 이사장, 이상훈 총영사)은 오는 12일에 한인 총회를 마련, 공청회 결과를 보고하고, 교민들의 의견을 널리 물어 이 문제를처결할 예정이다.

회관이전 후보건물은 3층및 지하실을 가진 건물로 (1)현회관의 약 1.5배로 크며, (2)크리스티 서브 웨이, 크리스티공원등이 가까와 이용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3) 한인상가에 가까와 모임에 편리하고, (4)싯가보다 쌀 뿐 아니라, (5)큰 홀을 개조하면 300명 수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인회관 이전문제 공청회(원내는 조한철씨)교민들의 열띤 찬반토론이 있었다.

미7함대 동해로 이동

소, 해군력 증강에 대한 견제책

(서울 2일=연합)미해군함대의 본부가 현재의 인도양에서 북태평양과 한국 동해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2일 한국의 소식통에의해 밝혀졌다.

이같은 정보는 최근 미제7함대 사령관으로 새로 임명된 훌롬 제독이 일본의 주요군사항구 사세호시를 취임연설차 방문했을때 확인되었다고 소식통은 주장했다.

그당시 훌롬은 2~3개월후 사세호와 동해로 미 전함들이 이동할 것이라고언급했었다.

즉7함대와 기함 "브릿지"호가 1일 사세호항에입항한 것과 항공모함 "미드웨이"의 15일 입항 예정은 훌롬의 말을 강력히 뒷받침해"준다.

76년 월남전 종전후 병참기지로 쇠퇴한 사세호기지로 미해군력이 증강되는 것은 소련이 블라디보스톡에 해군력을 증강시키는데 대한 대응책으로 보여진다.

퀘벡전시가 조기게양

거부권 행사위해 대법원에 청원

(퀘벡)퀘벡의 공공건물에는 3일 일제히 조기가 내걸렸다.

한편 르네·르벡 퀘벡주수상은 이날 트루도연방수상에게 퀘벡주가 캐나다대법원에 요청한 주정부의거부권행사 합법성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더이상의 개헌작업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트루도수상은 르벡수상에 보낸 서한에서 "퀘벡주가 개헌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고 못박았었다.

노년회장단 선거

새해벽두정기총회

토론토 소재 한국노년회(회장 정인기)는 82년1월2일(土) 상오 11시, 토론토한인회관(20 Mobile Dr)에서 정기총회를 연다.

이에 앞서 회장단 입후보 등록을 오는 12월 22일(火) 하오4시에 마감하며, 등록금은 후보당당 500달러이다.

최언필씨를 위원장으로 선거관리위원은 김근섭, 김준순, 이희추, 안주호, 최규찬, 한덕창 제씨이다.

C·P·Air 요금인상

서울행단체 $1,490로

씨·피·에어(CP Air)항공은 12월1일부터 요금을인상, 서울행 단체운임의 경우 종전의 왕복 $1,380에서 $1,490로 올랐다.

대한항공(KAL)은 아직 요금을 인상치않았으므 종전의 경우로 보아KAL도 년말경 요금을 인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앞)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社說 예술의 비중

"문협"등 활동을 중심으로

캐나다한국문인협회의 제5회「신춘문예」 현상모집이 오는 15일로 마감한다고 전한다.

토론토 한인사회에서 한인YMCA, 사진협회, 장학재단, 토론토대학한국학과 후원재단등과 더불어 이땅한인계에 알찬 이바지를 해오고 있는 단체로 문인협회는 그 비중과 공헌도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떠들지 않고, 꾸준히 내실(內實)을 피하면서 대외적으로 차원 높은 영향을 끼쳐 나가는 문화단체"를 꼽자면 빼놓을 수 없을만큼 문협은 그 존재성을 넓히면서 중단 없는 전진을 거듭하고 있음을 보겠다.

해마다 캐나다 거주 한인계의 숨은 문사들을 발굴하여 이땅에 새 한국문학을 심고, 나아가 다른 차원의 문학— 즉「이민문학」이란 새로운 장르(분야)를 수립하기에 애쓰고 있는 문협은 올해에도 시·소설·수필·평론·희곡·아동문학의 6개부문, 즉 문학의 전종목에 걸쳐 전국적으로 작품을 공모하고 있다.(한국일보 10월12일자)

우리는 한국땅 아닌 해외에서 해마다「신춘문예」를 공모해, 문학및 작가양성의 산파역할을 하고 있으며, 합동작품집을 계속 내고 있는 단체가 따로 있다는 소식에 접한 일이 없다.

캐나다한국문협의「신춘문예」에는 해마다 3, 40편의 응모작을 헤아리며, 과거 4회에 걸친 이 신춘문예를 통과한 문사들은 시에 7명, 소설 4명, 수필 3명, 아동문학 1명, 평론 4명으로 모두 19명의 신인이 현재 활발한 문필 활동을 하고 있다.

시간에 쫓기고, 파로에 지쳐 정서적으로도 바싹 메마른 이민생활에 지적(知的)·정서적·한국사상등 도움을 주어온 문협은 재정난을 무릅쓰고 회원들이 출혈을 감수해 가면서「신춘문예」를 해마다 빠침없이 치렀고, <새울> (77년), <이민문학>(79년), <이민도시> (80년)의 합작집 3권을 내놓았으며, 제4합작집도 제작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민현지에서 엮어진 개인작품집도 여러 문협멤버가 내고 있으니, 그 예로 시·수상집 <방향감각> (이석현·박옥선 부부합작), 시집 <숙녀는 건배를 들고> (손성호), 수상집<이민낙서>(여동원), 논설집 <한국기독교인이나갈 길> (이승만), 수상집 <에드몬톤의 불꽃> (유인형—근간)등을 꼽겠다.

또한 문협은 1년에 4, 5차씩 초청강사를 모신 가운데 "교민을 위한 교양문화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대대적 문학의 밤도 개천한바 있다.

한편 토론토한인회와 합동으로 3차에 걸쳐 한글백일장을 벌였음도 빼 놓을 수 없는 소중한 행사인 것이다.

그밖에 문협회원들은 토론토를 비롯하여, 에드몬톤·뱅쿠버등지에서 문필활동을 활성화시켜, 각지의 교포신문에 작품활동을 활발히 펴고 있다.

일찌기 삭막하고 메마른 정서의 불모지(不毛地) 였던 이민현지를 예술성과 정서면의 단비로 촉촉이 적셔주어, 인간성 회복과 생활인다운 생활화에 정서순화로 주역을 맡아온 단체중 꾸준한 효과및 영향면에서 문협을 첫손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 한성진씨가 이끌어온 한인청소년합창단, 박재훈씨 지휘의 한인합창단, 김승순씨 지휘의 한인교향악단, 한인사진협회등도 예술적 봉사의 일익을 담당하여 교민사회를 비롯하여 대외민사회의 순화에도 긍정적인 면의 존재성을 굳혀가고 있음이 사실이다.

교민사회의 관심사로 대부분은 우선 경제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근 20년의 교민역사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생활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는 현시점에 이르러서는 학술적인면·예술면에도 관심도와 애착을 높여 그 방면의 발전에 교민들은 적극, 그리고 꾸준한 뒷받침을 마음새겨야 할 것이다.

그 길이 정녕 다수 속의 소수로서 빛다이 살아남는 길이며, 위대한 문화 민족의 후예로서 질적우월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에 불후(不朽)의 명언이 놓도 질게 떠오른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W. TORONTO.ONT.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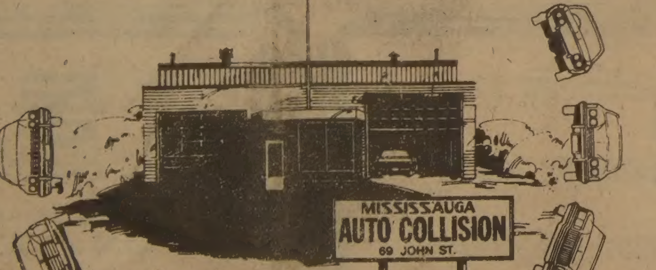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햄버거 샵
주매상 만3천달러. 몰개지 10만달러.
가격 : 38만5천
도넛 샵
•일요일 닫고 하루12시간 영업 운영간단
년수입 : 4만5천. 아스킹 11만 달러
•주매상 : 4천5백. 주매상 : 5천5백
주매상 : 6천5백. 주매상 : 7천달러 되는 도넛츠
스토아 여럿있음.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 4천2백달러. 주매상 : 5천달러(일요일 닫음)
주매상 : 5천5백달러. 주매상 : 6천달러.
주매상 7천달러
버라이어티 스토아및 가옥
•주매상 4천달러. 코너건물. 2 베드룸
아스킹 12만8천달러
•주매상 6천달러. 코너건물 3 베드룸
아스킹 22만달러
쇼핑 몰
스모크. 키프트 샵. 새로 OPEN 됨. 아스킹 8만달러
기프트 크레프트. 허비 샵. 년매상 17만달러.
아스킹 8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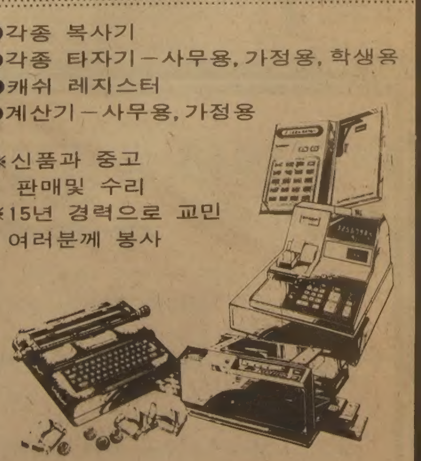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C 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S-SH

"목숨 걸고 농장 지킬터"

고이자로 파산당한 농부들 자위대결성

"농장을 보호하기위해서 목숨도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어 파산당한 데 항의하는 농장주들로 이루어진 농장자위대원들의 말이다.

최근 캐나다의 경제불황은 많은 농장을 파산으로 몰아넣고 있다.

농장자위대원들은 파산선고당한 그들의 농장을인수하려는 빚쟁이들과 집달리들을 저지하기위해 총과 파이프로 무장, 농장을 지키고 있다.

온타리오주 오웬사운드 교외에 버려진 창고안에라이플총으로 무장하고 신분을 감추기 위해 검은 가면을 쓴 5명의 자위대원 들은 지금껫 정부의 도움을 기다려왔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다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라고 말했다.

이들은 투쟁이 유일한해결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많은 농장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원천인 농장을 잃게 될 경각에 있다. 우리는 평화스럽게 떠나기 보다는 싸우다 죽겠다"고 자위 대원들은 말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농장을 잃지 않으려고 은행에 높은 이자를 물어 왔는데 이젠 더 버틸수가 없으며, 연방정부예산안이 나오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결과는 농장주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됐다고 격분했다.

이들은 브루스와 그레이카운티(Bruce and Grey County)의 가장 극렬한 자위대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외에도 합법적 자위대원이라고 주장하는 브루스-그레이스 생존협회가 있다.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產을 위협 합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총기로 무장한 농부들. 이들은 오웬사운드 근교 창고에서 농장을 차압하려는 집달리에 대항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미국 일시방문, 왕복항공권 없으면

공항서 장시간 억류

◇…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들의 초청으로 일시…◇
◇…방문하는 부모등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이왕…◇
◇…복항공표를 소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공항에…◇
◇…서 장시간 억류되는가 하면 여권을 압수당한…◇
◇…후 이민국에 출두하여 입국심사를 받이 일시…◇
◇…방문객들을 당황케 하고있다. …◇

시카고에 살고있는 딸의 일시방문 초청을 받고 지난달7일오헤어공항에 도착한 최모할머니(67)는 입국수속을 하던중 출입국관리직원으로 부터 한국으로 돌아갈 항공권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애당초 딸의 방문초청서류와 함께 미국행편도표밖에 못받은 최할머니가 왕복표가 없는것을 확인한 이관리는 고혈압증세로 휠체어를 타고 있었던 최할머니를 약 3시간동안 지다리게한후 여권을 압수하고 3일후 이민국에 출두하라는 지시를 받고 일단 입국을 허용했다.

초청자인 딸과 함께 이민국에 출두한 최할머니는 입국심사관에게 새로 구입한 서울행항공권을 제시하고 불법체류할 의향이 없다는것을 거듭 강조, 비로소 82년 1월까지의 체류허가를 받았다.

이날 심사관은 「이민국의 입장으로는 누구든지 눌러 앉을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한 아들의 일시 방문초청으로 미국에 도착한 이모씨도 지난 20일 시카고 직행노선을 이용하지 않고 시애틀을 경유, 입국했는데 왕복항공표가 없어 시애틀 공항에서 24시간동안 억류됐었다.

이로인해 이씨의 아들이 시카고에서 시애틀로 날아가 출국보증을 선후 이씨는 입국이 허용됐다.

이러한 출입시의 왕복항공권제시요구 현상에 대해 여행사관계자들은 「왕복항공권의 소지여부가 미국입국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명문화되어있는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미국입국은 주한 미대사관과 입국공항의 출입국관리소를 거쳐야 하는데 그과정에서 왕복항공권의 소지여부를 문제삼을수있다.」고 지적하고 「일단 방문초청때는 왕복항공권을 소지하는것이 상책」이라고 덧붙였다. 〈시카고지사〉

부모초청 요주의…
이민국 출두명령도

中共, LA에 醫大신설 추진

漢醫學과 洋醫學절충 제3의 仁術로 개발

중공정부는 중국의학과 서양의학을 통합한 새로운 의과대학을 LA에 신설, 운영하는 야심적 계획에 협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 의과대학 명칭은 아메리카 중국건강과학대학(The American University of Chinese Health Sciences).

그러나 의과대학인가를 얻기가 힘들고 중공과 미국사이의 문화적 차이때문에 신설계획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헐리웃에서 침술진료소를 경영하는 데이빗·주는 신설의과대학이 5년간 의과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의사학위를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5년간의 의과과정중 4년은 LA에서, 최종1년은 중공에서 각각 공부를 하도록 하게 되며 의사학위도 중공에 있는 한의과대학이 수여하게된다. 데이빗 주는 신설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교육마치면 中共대학명의의 醫師자격

파데레브스키 추모제

폴랜드 대표적 정치가·음악가

(스위스 모르쥬)최근 렉·발렌싸 지도하의 솔리대리티노조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폴랜드 정세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운데 한때 폴랜드 수상을 지낸 유명한 작곡가겸 피아노연주가인 이그나시·파데레브스키의 생애와 그의 음악이 전세계 지식인과 음악애호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스위스 모르쥬에 본부를 둔 파다레브스키재단은 스위스 국민의 폴랜드사태에 관한 관심에 힘입어 최근 파다레브스키 서거 40주년 추모제를 열고 미공개된서한, 자료들을 전시, "조국의 현실을 슬퍼한 한 애국자요, 위대한 음악가"인파다레브스키를 기렸다.

그는 1860년 러시아 점령지 쿠리로카에서 태어났다. 유년시절 러시아 코작군에 대항한 반란운동에서 아버지를 잃은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뛰어나 12살에 와르샤와뮤직 아카데미에서 수학, 이후 계속 연주가, 작곡가로 명성을 날렸다.

그는 특히 1936년 그의 생애를 소재로 한 영국영화 "월광소나타"에 직접출연한 만능예술인이었다.

그의 음악 경력은 바르샤바음악원 수학 이후, 베를린, 빈에서의 수학을 거쳐 85~86년 슈트라스브르크 음악원 교수, 1909~13년 바르샤바음악원원장을 지냈으며 피아니스트로서 빈, 파리, 런던, 뉴욕등 유럽각지 순회 연주로 로맨틱하고 화려한 연주가로 명성을 날렸다. 그는 1930년이후 많은 피아노곡 오페라 작품을 발표했다.

작품으로 오페라 Manru, 피아노 협주곡, G장조 메뉴엣등이 특히 유명하다.

그가 정치가로서 면모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제1차 대전후. 그는 윌슨 미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 베르사이유조약에 입각, 폴랜드가 자주독립국으로 인정을 받도록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고 곧 이어 1919년 새 폴랜드 공화국의 수상을 잠시 역임했다.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헐뜯는 반대파들의 비난이있자 파다레브스키는 곧 사임, 스위스로 가서 다시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음악에 전념했다.

파다레브스키 서거 40주년 추모제를 주관한 파다레브스키재단은 모르쥬 시전 시장 사비에·살리나씨가 주도하며 현재 300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 스위스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이자 파다레브스키회원인 휴그·파에지씨는 "파다레브스키 추모제가 기획된 것은 렉·발렌싸가 등장하기 훨씬전의 일이다. 이는 생전의파다레브스키가 스위스국민의 조국애를 높이 인정 해준 만큼 우리 스위스인이 고통당하고 있는 폴랜드인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작은 일중의 하나"라고 평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폴랜드가 다시 전쟁에 휘말려드는 것을 항의하는 "문명 세계에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블라디슬라브·시코르스키장관이 주도하는 파리망명정부하의 폴랜드 전국의회의장을 지냈다.

1940년 나찌정부가 프랑스를 점령하자 파다레브스키는 미국으로 건너갔고, 41년 뉴욕에서 서거, 워싱턴의 일링턴국립묘지에 묻혔다.

노인의 특성

100명 의견 조사

"나이 먹어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 ?"

"아무것도 없다."

이같은 사실은 몬트리얼의 2명의 노인학 전문가가 수많은 노인들에게 질문, 대부분의 노인들로부터 얻은 대답이다.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노인들 당사자들뿐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마찬 가지다.

65~90세의 남성 47명, 여성 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의 특성을 열거하라는 질문에 48명중 19명이 비관용, '까다로움, 인내심부족, 이기적, 아비, 투덜댐, 성가심, 심술궂음, 완고함등을 들었다.

노인들은 상기한 부정적인 노인의 특성대로 행동하면 결국 자존심을 잃고, 자기 스스로를 천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두전문가는 말했다.

(문) 가장 좋은것은 ?

(답) 늙어서 좋은 것은 없다.

"나는 내가 늙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좋은일은 아직 주변에 있어."

"나는 많은 경험을 했고, 지금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문) 늙는 것에 대해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

(답) 병드는 것,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외로움, 기억력 상실. (48명중 20명은 아무 두려움이 없다고 응답했다.)

50명중 28명이 죽음에대해 생각해 보았다고 말했고, 그 이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중 21명은 죽음에 대해 생각조차도 안했다고 말했다.

교포살인범을 경찰견이 잡아

—독일종세퍼드…사건발생 한시간만에 숨은곳서

▲교포살인범 체포에 수훈을 세운 경찰견 「클레이」 주인인 펄센경찰관과 함께 포즈를. 「클레이」는 롱비치경찰서 소속 6마리의 경찰견중 리더로 사종 수사활동에 큰 위력을 하고있다 〈이강현기자 찍음〉

김광선씨 피살

◇… 롱비치에서 「일스 슈즈 리페어 샵」(2883 Santa Fe Ave Long Beach) …◇
◇…을 경영하던 교포 김광선(46)씨가 지난 27일 하오 1시30분께 손님을 가장, …◇
◇…침입한 권총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이날 김씨는 가게내에서 일을하고…◇
◇…있던중 2명의 흑인이 가게에 들어와 물건을 고르는척 하던중 느닷없이 총…◇
◇…을 들이대고 돈을 요구, 이에 불응하자 그중 한명이 1발의 총을 발사 김씨…◇
◇…는 가슴에 1발을 맞았다. 사건발생 1시간후 경찰견이 범인2명을 찾아내…◇
◇…는데 성공했다. …◇

당시 이웃의 한목격자에의하면 1시30분께 싸우는 소리와 함께 총소리를 들었으며 치명상을 입은 김씨는 상점뒷문을 통해 비틀거리며 걸어나왔으나 상점뒷뜰에 쓰러져 숨졌다고 한다.

사건발생 15분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롱비치 경찰은 범인들이 멀리 도주하지 못하고 인근에 숨어있을 것이라고 단정, 주변일대를 차단하고 수색에 나섰다.

2마리의 경찰견을 앞세운 경찰은 사건현장에서부터 범인들의 발자국을 추적, 하오3시50분께 사건현장에서 5블럭 떨어진 3335 Baltic Ave. 뒷정원 창고에서 2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

경찰견 「클레이」는 약40분만에 사건지역 북쪽 3335 발틱 애비뉴에 위치한 주택뒷편을 향해 짖어대자 훈련담당인 펄센경찰관이 클레이와 함께 포복해 들어가 담장나무로 엉클어진 정원구석편 온실창고에 숨어있는 범인 2명을 발견한 것.

이때 범인중 1명이 손에 피스톨을 들고 있었으나 「클레이」가 달려 들어 입으로 권총을 나꾸어 챘다고 경찰이 밝혔다.

올해 7세난 독일종 세퍼드 「클레이」가 교포 김광선씨를 쏘고 도주한 2명의 살인강도를 체포했다.

이날 현장에 도착한 「클레이」는 오직 범인들의 발자국 냄새를 탐지하고 추적해 사건발생후 불과 1시간만에 범인들이 숨어있는 현장을 정확하게 발견했다.

「클레이」의 주인이며 직접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롱비치경찰서 소렌·텔링-펄센(Soeren Telling—Poulsen) 경찰관은 『클레이는 이날 범인이 담장을 넘어 숨어들어간 것까지 그대로 냄새를 맡고 따라갔다』면서 『범인체포를 자신했었다』고 말했다.

88파운드 무게, 길이 40인치의 「클레이」는 원래 덴마크 경찰국 경찰견이었으나 1979년 롱비치 경찰국활동을 위해 펄센 경찰관이 직접 덴마크에 가서 구입해 온것.

현재 롱비치경찰국에는 6마리의 경찰견이 있으며 이중 리더격인 「클레이」는 싯가로 3천달러정도이나 「결코 팔수 없는수사견」이라고 펄센 경찰관은 덧붙였다.

「클레이」는 이살인강도를 잡기 전날에도 가게를 털고 나오는 절도범 4명을 체포하는데 수훈을 세웠다.

매주 10시간씩 훈련을 받고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클레이」는 훈련종목으로는 사람냄새와 몸에 지닌 물건 알아맞추기, 경찰임무, 추적방법, 증거물 수집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한달에 식비로서 약1백달러정도를 지급받는 「클레이」는 한번 3파운드 정도 맛좋은 햄버거를 펄센경찰관이 직접 만들어 주고 있다.

「클레이」의 특기는 냄새맡기와 물건 식별인데 똑같은 모양의 가죽지갑에서 A와B라고 쓰인 글자를 정확히 알아보고 담배필터를 냄새맡고 켄트(Kent)인지 말보로(Malboro)를 가려낼 정도.

〈변홍진·이강현기자〉

브라이안·더글라스(18)와 마크·페어팩스(18)라 밝혀진 용의자들은 경찰에서 범행일체를 자백했으며 경찰은 체포당시 용의자들로부터 범행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는 권총을 압수했다.

한편 숨진 김씨는 6817 Ward Circle 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부인과 3자녀를 두고 있다.

▲김씨가 손님을 가장한 권총강도의 총격을 받은 구두수리점. 사건후 문이 굳게 닫혀있다.

전날 절도범 4명 잡는데도 수훈 담넘어 도망친 장면 시범도 보여

◇

하루8시간 근무…한달식비 $100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초대합니다

존경하는 향우여러분 다망하신 이민생활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향우회에서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년과 같이 정다운 향우들과 한자리에 모여 하루를 즐기기로 하였읍니다. 푸짐한 상품과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 있아오니 부디 참석 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 12월26일(토) 하오6시
장 소 : THE TRIUMPH SHARATON HOTEL (Senetor Room 1층) (Keel at 401)
입장료 : 커플 $50, 싱글 $30.
※디너, 댄스파티, 복권추첨, 도어-프라이스
※5인조 밴드및 유명 가수 출연

호남향우회 회장 박 주 삼

동우연말파티

동우 여러분 !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물어 가는 이해의 마지막 우리들의 동우연말잔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아오니 우리 모두 참석하여 즐거운 회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2월26일(토)오후7시~오전1시
장 소 : 스카이라인 토론토호텔(볼.룸"A"2층)
주 소 : 655 DIXON RD
식 사 : 부페
밴 드 : 권순근악단일원
입장권 : 이사, 임원들이 배포중임
연락처 : 222—5370(총무 김남용)
270—1531(기획조사 정기영)
759—8349(섭외 김진현)
439—7093(체육 신우원)
746—4220(문화 조국현)

※경품은 한국왕복항공권,(부부) TV, 시계등 다수선물을 마련하였음.

토론토동우회 이사, 임원일동 드림

한인교향악단 제3차 정기연주

가족음악회 12일로 박두

입장권 무료 프로도 다채

한인교향악단(지휘 김승순)의 제3회 정기 연주회인 "가족음악회"가 12월12일(土) 저녁 7시 30분 이스트·욕·컬리 지엣(650 Cosburn Ave×Coxwell Ave.)강당에서 개최된다.

창립연주회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씨와, 제2회 연주회로 피아니스트 백건우씨와 각각 협연한 한인교향악단은 그동안 지원해준 교민들께 사은하는뜻에서 이번 가족음악회의입장을 무료로 했다.

50여명의 교향악단원 들은 연주회를 위해 약 5개월간 연습했다.

가족음악회의 프로는 관현악단의 연주이외 현악4중주, 플룻독주, 기타협주, 바이올린 독주, 싱잉커플즈의 합창, 청중과의 합창등이며 곡목도 각계각층의 교민들 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있 도록 선정됐다

연주장인 이스트·욕 컬리지엣(East York Collegiate) 강당의 입구는 컥스웰·애비뉴쪽으로 나있으며 파킹은 학교뒷쪽과학교입구 도로에서 가능하다.

교향악단의 연주 엘가곡 "위풍당당한 행진"으로 시작될 연주회는 윤영철, 김양희, 김명덕의 바이올린과 독고정의 첼로로 이루어진 현악4중주 모찰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 연주, 고세완의(윤기범 피아노반주) 멘델스존등 2곡의 플룻독주, 이어 교향악단의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미완성"으로 연주회는일부순서를 끝낸다.

제2부에서는 청중과 함께 부르는 캐롤, 싱잉커플스 단원이 선사하는 합창에 이어 Mr.잉글리쉬(교향악단단원 잉글리쉬 혜원씨 남편)의 객원연주로 기타협주 줄리아니의 유명한 기타협주곡 A장조, 김선영의 바이올린 연주 베토벤의 로망스 제2번, 마지막으로 교향악단의 앤더슨곡 오케스트라·페스티발로 끝난다.

◇성탄음악회를 앞두고 연습에 여념이 없는 한인교향악단

「팔」해방기구 유엔에 깃발 불법게양

유엔빌딩에 불법적으로 게양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깃발을 철거하려던 경비원들이 팔레스타인 외교관들의 반발에 부딪쳐 철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유엔대변인이 1일말했다.

적, 녹, 흑의 3색 줄무늬로 이루어진 팔레스타인기는 게시판에 달려 있었다. 유엔은 회원국기 들만 유엔에 게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영박물관「비공개함」출판

외설문학 장서

백년만에 햇빛보는

수세대에 걸쳐 영국인들에게는 접근불능의 금서로 알려져온 대영박물관도서관의 외설문학작품들이 최근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대영박물관도서관의 이른바 「비공개함」속에서 전혀 분류조차 되지 않은채 1백년이 넘는 동안을 처박혀온 이외설문학장서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것으로 2천권에 달한다.

「지금까지 주요외설문학장서들중 분류조차 되지 않은 것은 대영박물관도서관의 장서뿐이었다」고 지난7년간 이를 분류, 최근 「비공개함」이란 제목으로 책을 펴낸 패트릭·J·커어니(38)는 밝히고 있다.

대영박물관도서관의 외설문학장서는 그동안 일체 공개되지 않은채 비밀에 싸여 있어 지난 수세기동안 영국지식인층에선 어떻게 열쇠를 입수하여 이금지된 비공개함을 열어 짜릿한 외설책을 읽을수 없겠는가로 웅성웅성댔으나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었다.

대영박물관과 도서관의 외설작품들은 대영박물관으로 부터 도서관이 따로 떨어져 독립해간 60년대에 와서 비로소 엄격한 규율이 다소 완화, 현재는 이에 대한 관심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영박물관 도서관측은 이를 처음에 8백만권의 장서목록속에 섞어 놓았기 때문에 이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커어니의 7년간의 노력끝에 이외설문학장서들은 별도의 목록속에 따로 한데 모아진것.

이외설문학장서에 큰호기심을 갖고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미건조한 인상을 주는 제목을 가진 커어니의 책 「비공개함」에 의하면 이도서관에는 근2백50년의 기간에 걸친 영어·불어·독일어·러시아어및 스페인어의 외설문학작품들이 있다. 여기에는 1830년에 출판된 프랑스 매음굴의 노래책에서부터 컴퓨터어로 쓰여진 미'샌디에고의 70년대 외설문학의 모든것이 총망라 되어 있다.

초판 희귀본등 2천여권 대부분 작가미상에 가명

특히 이장서중에는 외설문학의 희귀본과 유명한책들도 많은데 예를들면 존·클레런드작 「쾌락에 관한 한 여인의 회상」의 초판본과 마르키·드·사드작 「쥐스틴」의 귀중한 복사본등이 그것.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들은 작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낸것들이다.

지난7년간 매일밤, 그리고 매주말을 송두리채 바쳐 2천권에 달하는 이책들을 전부 분류, 이번 그의 책에서는 목록과간단한 작품개요를 소개하고 있는 커어니는 옛작품중에는 읽어볼만한 것이 있지만 현대 외설작품들은 『거의가 쓰레기같은 무용지물』이며 『전혀 읽어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나 『다만 하나의 표본으로서 그것을 보관해둘 필요가 있을뿐』이라고 고개를 내젓고 있다.

그는 또 『앵글로색슨족은 청교도적이기 때문에 영어로 쓰여진 외설문학은 신통치 않은데반해 프랑스인들이 이방면에서는 단연 월등한 것같다』는 견해를 펴면서 『프랑스의 경우는 존경할 만한 작가들도 이런 종류의 작품을 쉽게 쓸 수 있고 또 이를 개의치 않으나 영국의 경우 만일 그레이엄·그린이 외설문학작품을 쓸 수 있다고는 생각할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예술의 향기 ⑦

우피치박물관

유회자 (음악박사)

우피치(Uf fizi) 박물관은 12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이 이태리를 대표할만한 조각품과 미술품들이 소장된 곳으로 이 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박물관이라고 한다. 우피치박물관은 1574년에 「메디치」가의 프란체스코 1세가 자기 아버지의 소장인 많은 미술작품과 조각품들, 또 「로벤조(Lovenzo)」의 소장인 조각품들을 한곳에 전시하게 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1737년 메디치 왕국의 마지막 후계자인 안나·마리아·루이가 박물관 소장의 모든 작품들이 절대로 플로렌스를 떠나서는 안된다는 조건으로 박물관 전체를 터스칸주에 기부하였다고 한다.

원경표현이 잘 발달되지 않았던 때의 「죠토」그림에서부터 「보티첼리」, 「레오나르드·다빈치」, 「미켈란젤로」등 이태리예술의 극치를 이룬 수많은 작품들이 이곳에 진열돼 있다.

써치필드교수는 3년전 이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한폭의 그림을 보고 너무도 아름다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서 그 그림을 또한번 더 보기 위해서 플로렌스에 오고 싶었었다고 한다.

「보티첼리의 〈투리마베라〉또는, 〈봄〉이라는 그림이 바로 그것인데 불행히도 현재 레스토레이션을 (낡은 그림이나 건물을 새로운 것처럼) 하기 때문에 전시장에는 진열돼 있지 않았다. 「보티첼리」의 그림중 〈뷔너스의 탄생〉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두 선남선녀가 커다란 조갑지를 타고 바다에 떠있는 나체의 미녀를 입김 불어 해안으로 밀어내는 광경, 해안에서는 한 여인이 만또를 높이 들고 뷔너스를 감싸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광경이다. 미녀가 풍기는 긴 금발의 머리카락이며 아름다운 살결, 유연한 몸매, 우아한 얼굴표정, 모두가 실물을 보는양 생명이 보이는 듯하다.

이것이 16세기에 그려진 것이며, 400여년이 넘도록 세계의 많은 미술애호가들로부터 찬미의 대상이 되어온 예술품이라 생각하니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는 금언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전시장을 둘러보는 동안에 이곳저곳에서 단체로 여행 온 그룹들에게 안내자가 열내어 설명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룹들이 너무 많으니 서로 자기네 안내자를 잊어버릴까봐, 아니 안내자가 자기 단체중 하나라도 잊을쎄라, 어떤이는 팔랑개비, 어떤이는 빨간 수건등을 긴 막대기에 달아 높이 쳐들며 이방 저방으로 옮겨가는 것이 보인다.

국민학교 학생들이 소풍이라도 온양, 안내자 팔랑개비 밑에 죽 모여서서 열심히 설명을 들으며, 피곤한 여행이지만 그림 하나 하나가 풍기는 아름다움과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라도 놓칠쎄라, 열심히 듣는 모습들이 보인다. 안내자의 설명이 영어, 불어, 독일어, 라틴어등 각가지 언어로 들리는 것은 보니 세계각국에서 여름 휴가를 이용하여 단체여행을 온 모양이다. 우리도영어로 설명하는 그룹옆에서 가끔 어깨너머로 설명을 얻어들으면서 다녔다.

그림의 주제는 거의다 그리스도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취급되어 있다.

전시를 다보고 2층에서 아래층으로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층제위 한구석에 놓인 한폭의 그림이 확 눈에 뜨이는 것을 느끼었다. 발을 멈추고 가까이 가보니 19세기의 미술가「고야」가 어느 백작부인의 서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지금껏 죽 돌아보았던 그림들과는 너무도 다른 스타일이라, 더욱 눈에 뜨일 뿐 아니라, 어둑한 배경을 뒤로 하고 서있는 이 부인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품위있게 보였다. 그 고운 살결을 한번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들 만큼 얼굴에 빛이 나 있었다.

어느 안내자가 뒤따라오다가 마지막으로 약간 못이 박힌 설명을 한다. 즉 이 아름다운 그림은 어느 독지가가 이 박물관에 기부하였는데, 르네상스 그림으로 가득찬 우피치박물관엔 19세기의 그림을 놓을 자리가 없어 이렇게 층계위 한구석에 셋방을 빌려주듯 전시하고 있다고 비꼬듯 말한다.

전시장이 더 커야 되겠구나 생각하며 박물관 구경을 끝내고 나왔다. 베키광장에 나와 카페에서 한 30분 피곤한 다리를 쉬고, 찬 맥주로 목을 축인 후 다시 플로렌스에서 제일 큰 성당을 방문하였다. 길이가 세계에서 3번째로, 로마의 성 베드로대성당, 파리의 노틀담성당 다음으로 긴 성당이라고 한다.

11세기에 시작하여 175년 걸려 완성하였고, 건물 밖의 정면과 옆의 장식은 18세기에 완성된 것이라고 한다. 그 앞에는 세례를 주는 밥티스트리가 있는데, 이 건물은 플로렌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단테」가 세례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 밥티스트리의 천정은 둥글게 원형으로 올라갔는데 천정전체를 조개껍질로 장식한 것도 또한 유명하다.

서기 1128년까지는 플로렌스의 유일한 성당으로 쓰여졌으며,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봉헌된 건물이다. 「미켈란젤로가」 "천당의문"이라고 이름지은 동쪽문에는 로렌조 ·기베르티의 걸작 조각품이 있는데, 세명의 조각가의 협조까지 받아가며 장장 27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완성한 조각품이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로 당시 플로렌스 공화국의 수상인 부르니가 제시한 내용들인데 기베르티의 천재적인 재능과 상상력, 또한 그의 심오한 조각기술이 합쳐져 조각예술로서의 극치를 이룬 작품이라고 한다.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예술작품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르네상스의 본고장인 플로랜스인데, 며칠을 두고 봐도 부족한 것을 하루에, 그것도 몇시간만 보고 돌아오려니 아쉬운 마음 그지없다. 언젠가 또한번 찾아와야지 하는 미련을 남기면서 기차에 올랐다.

(계 속)

◇우피치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유명한 보티첼리의 작품〈비너스의 탄생〉. 400년 이상세계의 많은 미술애호가들로 부터 찬미를 받아온 작품.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는 금언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프랑스최고권위 콩쿠르문학상

"안느마리"쓴 보다르에

—어머니에의 사랑그린 자전소설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고있는 문학상인 공쿠르상의 올수상자는 자전적소설「안느 마리」를 쓴 뤼시엥·보다르(67)로 지난11월16일파리에서결정 발표됐다. 수상작「안느 마리」는 1920년대 중국외교관을 지낸 아버지때문에 중국서 살다가 교육을 받기위해 어머니와함께 파리에 돌아온 10대소년 〈뤼시엥·보다르자신〉의 시선으로 자식의 어머니에대한 사랑을 그린작품. 「아들의 눈을 통해서 본 한여인으로서의 어머니 초상」을 주제로해 작품제목과 동명인 모친밑에서 자라난 소년이 성장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쓴 보다르의 다섯번째 소설이다.

1903년 에드몽과 쥘공쿠르형제의 유언에의해 제정된 공쿠르상은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수상작을 결정하는데 부상은 현금50프랑에 불과하다. 그러나 수상작품은 최소 25만부의 판매를 보장받아 하루아침에 작가의 유명도를 바꿔 놓을수 있는 프랑스 최고의 문학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外交官 아들로 中共서 자라 저널리스트로 세계를 누벼

알제리戰 從軍…印支戰취재한 著書도 3권이나

금년도 수상자인 보다르는 오랫동안 외교관생활을 했던 부친으로 부터 외교관이 되도록 교육받았으나 저널리스트로. 자신의 사회생활을 출발한뒤 수십년간 세계곳곳을 누비며 활동해왔다.

인도차이나 전쟁취재를 바탕으로 3권의 책을, 모택동치하의 중공에 관해 2권의 저서를 내기로한 그는 또 알제리 전쟁의 종군기자로 활약했으며 브라질의 원주민 인디언학살에 관한 글을 쓰기도 하는등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해외특파원의 한사람이된 인물이다.

그의 소설은 이번의 수상작 「안느 마리」까지 모두 다섯편. 1973년에는 중국에서의 자신의 성장과정을 그린 소설 「영사귀하」로 엥트랄리에 문학상을 받았고 「영사의 아들」,「장미의 계곡」 「백작부인」등을 출판했었다.

소설 「안느 마리」는 주인공 소년 뤼시엥·보다르가 중국영사로서 현지에 남아있는 아버지 곁을 떠나 어머니인 안느·마리와 함께 파리로 돌아오는 날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버지가 그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고국-프랑스였나, 그 땅에서 교육받기위해 먼 여행길을 끝내고 배에서 내린 소년에게는 그러나 모든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보였다.

어린 뤼시엥에게 첫 석달간은 마치 정신착란을 일으킨 상태였고 그다음 석달간은 무언가를 향한 열정속에서 또 그다음엔 질투속에서 또 절망속에서 살아야했다.

왜냐하면 그는 어머니를 자기가 독차지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안느 마리는 자기 자신의 꿈꾸는듯한 세속적 삶에 열중하여 아들에게서 점점 멀어진다.

그녀의 유일한 목적은 자기 남편의 출세에 도움이 되기위해 저명한 상류사회인사 앙드레와 에드메 부부와 친해지는 일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최고수준의 기숙사에 보낸다. 자신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다.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잔뜩 몰려있는 기숙사안에서 「중국인 냄새가 나는」 보다르는 절망과 굴욕에 빠져 허우적 거리나 엄마는 단 한번도 그를 보러와주지 않는다. 드디어 방학이 되어 집으로 돌아간 뤼시엥은 그리던 엄마를 만났다. 그러나 오랫동안 익숙하던 옛날의 그 엄마와는 아주 다른 분위기였다.

그녀는 1925년의 파리 사교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여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그녀의 변모는 아들로하여금 매혹과 혼란을 동시에 느끼게하는 충격이 되었다.

야심가이면서도 세속적인 엄마…불안정하고 불안한,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고통스러운 엄마에 대한 아들의 사랑이 이국냄새를 풍기는 소년의 기숙사 생활체험과 파리에서 보낸 광란의 20대를 그려낸 섬세한 필치속에 전개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러나 아들의 눈을 통해서본 엄마란 여인의 초상이 사랑의 눈길로서 훌륭히 그려진 작품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경기여고동창회
송년파티

즐거운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고자 송년파티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하오니 부부동반하시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 12월19일(토) 오후7시
장 소 : 529 BLOOR ST. W.
오리엔탈 파레스•2층
연락처 : 미세스 차(698—6907)
미세스 성(447—0995)
미세스 조(491—3737)

경기여고동창회
(토론토경운회지부)

한인컴퓨터회
COSKA
총회소집공고

1981년도 정기총회를 아래와같이 소집합니다. 컴퓨터 분야의학생회원및 일반회원의 참석을 요망합니다.

안건 : 사업 및 재정보고. 회장단선거
일시 : 1981년12월11일(금)
오후6시30분
장소 : BICK FORD PARK SCHOOL
777 BLOOR ST. W.

한인컴퓨터회
회장 한혜식

서울공고
망년회 파티

금년도 서울공고 망년회 파티를 갖고자 하오니 부부동반 하시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일시 : 1981년12월26일(토)오후7시
장소 : 한인회관(20 MOBILE DR.)
회비 : 커플당 $30.—
※복권추천도있고. 경품권도있음.
연락처 : 757—8000. 921—0624

서울공고동창회장
유영린

경동동창회파티

즐거운 성탄과 새해를 맞이 하고저 동창회 파티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동문여러분 부부동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2월19일(토)오후7시
장 소 : 한인회관(20 MOBILLE DR)
연락처 : 백운산(624—3849)
이춘수(274—6127)
※시간이 변경되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동동창회 동문회장
장진무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752-7771

취 임 사

"회원들의 친정어머니 되도록 최대한노력"

회장 차 선 겸

존경하옵는 실업인협회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여 주신 참여의식과 혼잡한 총회장에서의 질서정연함은 바로 우리 실협회원들의 높은수준과 단결력을 입증하여 준 훌륭한 모임이었읍니다.

우리에게는 밝은 앞날이 약속되어 있음에 틀림이없읍니다. 부족한 사림이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무거운 책임감에 중압감을느끼면서도 단결된 우리 협회원들의 협조와 격려를생각할 때 출범하는 마음 한결 가벼웁니다.

존경하는 협회원여러분, 본협회의 업무는 협회원 개개인의 지상목표인 최대이윤의 확보와 공동체로서의 협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할 때 고려되어 야할 많은 복합적인 문제점들이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미 공약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다 많은 회원여러분이 참여할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하고, 분업의 원칙에 입각하여약속드린 저회들의 공약을확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심신이 피곤하신 우리 회원들의 친정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아끼지 않겠읍니다. 이에는 결코 여러분의 단결된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1981년도! 여러분이 바라시던 일, 여러분이 뜻하시던 일,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취임의 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81년 12월

신·구 회장단

— 조용히 업무인수·인계 마침 —

열기에 찼던 정기총회다음날인 11월 27일(金) 하오 3시 협회사무실에서는 신, 구회장단에 의해 업무의인수, 인계 절차가 조용히이루어졌다.

새로 선출된 차선겸회장과 조기연 부회장은 협회살림의 인수를 받는 위치에 있어 약간 상기된 듯보였으며,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업무를 인계해 주는 이형인회장과 김명정 부회장은 홀가분한 기분을 지닌 듯이 보였다.

입회인으로 김태진 이사장과 관계 사무직원들이자리를 함께 해서 협회의 재정, 보관문서. 비품, 재산명세를 하나 하나 확인하고 서명했다.

그 순간을 협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큰 지지를 받고 선출된 새 회장단에게 더욱 성 원해 주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인수인계는 5시에 끝났다.

메트로경찰국 긴밀한 협조

지난 11월26일(木)밤 개최된 협회 정기총회를 위하여 메트로경찰국은 깊은관심을 표명하면서 긴밀한협조를 해주었다.

실협 관계자의 전화통보를 받은 경찰국 부국장 통쿡씨는 즉석에서 협회원들이 총회에 참석하는 시간인 하오6시에서 12시까지 특별순찰을 각경찰서에 지시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회원들의 스토어가 그 시간에 부녀자나 헬퍼들에 의해서 오픈하게 될 것임으로 안전을 위한 순찰강화를 뜻하는 것이었다. 한편 총회장에도 2명의 사복경찰을 파견하여 주었다. 이날 4백여명의 회원들이 빽빽히 들어선 회의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경찰관들은 33디비죤(Division)의 써전 죤 코우퍼(John Cauper)와 데이브, 맥크 그라탄(Dave McGrattan)형사였다. 이 같은 경찰 당국의 협조는 협회와의 깊은 유대관계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알려주는것이라 할 수 있다.

가격전쟁 피해 조사착수

협회 새 집행부는 11월30일 업무를 개시하면서공약사업 실천 제1호로, 날로 격심해가는 가격전쟁의 회원피해도를 파악키 위해 진상과 자료수집에 착수했다. 즉 수퍼마켓, 드럭·샵(drug), 체인스토어(Becker, Mcs등)들 때문에 입고 있는 담배, 우유등의스페샬가격 경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당장 어떤 해결방법 모색을 위한 기초작업 으로, 회원들의 처지를 파악하여 그 사례와 통계를 화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원들 중에서 이웃의 경쟁업체때문에 당하고 있는 내용을 협회로 일려주기를 요망한다.

문제가 있는 회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써서 우송해 주거나, 협회전화 752-7773으로 상오11시부터 하오2시에 알려주기를 바란다.

한편 집행부 각부서의조직이 완료되면 회원들의컴플레인을 전담하는 핫·라인 전화를 설치하여 신속히 그 문제를 처리하게 될것이라 한다.

이 임 사

회장 이 형 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11월26일밤 제7차 실협총회는 여러가지 준비가미비된 가운데서도 차원높은질서확립과 오직 협회발전을 염원하신 회원 여러분의 고귀하신 투표행사로써다시한번 실협의 명성을과시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이런것을 어떻게 감히큰소리로써만 할 수 있으며, 무슨 다른 번칙으로서 그 높은 뜻을 따를수 있겠는지요?

우리는 참으로 또 하나의 뜻깊은 진리를 재삼 확인하며, 그날밤 400여 회원의 열기를 다시한번 아로새겨두는 바입니다. 생각하면 사실상 미력한 본인이 지난 2년간 협회중책을대과없이 치룬것도 오로지그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하나하나 협회업무를 터득하여 실행해 왔던것이라믿어집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될 수 있었으며, 힘들게 뛰면서도 그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남다른 위치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무엇인가 이루어 놓아야 한다는 역사적 의무를 필연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데에서 그 선봉이 되었읍니다. 북미사회에선 유일하게 3만교포가 운집한 토론토지역의 특수사정은 이곳실정에 어두운 사람들이라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컴비니언 스토어 운영권이우리들의 손에 거의 쥐어져있지 않읍니까!

우리는 뜻을 세우고, 그 뜻을 꼭 이루어야 하겠읍니다. 벌써부터 우리는 이런 뜻이 모아져야 했읍니다만 이제야 겨우 발돋움해서 아직 보이지도 않는 작은 소망만이라도 갖게되었으니 우리 모두 함께 우리들의 그 소망을 위하여 대열에 적극 참여하십시다.

6백회원이 그 높은 정신적 차원에서 성원하신다면 그 무엇인들 못하리이까?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과감한 협회시책이 하나 하나 시행되리라고기대합니다만 우리는 성급하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다소 무리해서라도 기초는세워야 하겠읍니다. 묵묵히 초연한 자세로 지켜보며회원으로서의 도리를 또한의무를 완수할 때 협회는 날로 발전할 것입니다.

집행부 임원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루 14시간이상 밀크 코오드를 첵크하면서 협회일을 합니다.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읍니다. 협회가 더 발전해서 회원 여러분의 모든 애로사항을타개할 수 있는 참 호랑이로 탈바꿈할 때까지는 우리들 스스로 힘을 모으고 굳은 유대를 가져야 하겠읍니다 협회를 믿고 참여하여 협회시책에 적극 호응함으로써만 종이호랑이의 탈을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참여하여 얻어진그 많은 권리와 이익을 우리는 보람되게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일일이 찾아 뵙지 못하고 글로써 이임인사 드림에 이해와 용서를 바라오며,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1981년 12월 이형인드림.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문예작품공고 입선2등>

이민, 구멍가게 그리고 조그만「나」

김영희 작

모든걸 잊으려 할즈음, 사복형사한테서 연락이 왔다. 범인을 체포해서 재판이 열리니 증인으로 나와달라는 얘기였다. 그자 에게 나의모습을 다시 보인다는것이, 두려워 거절을했으나 경찰측의 변호사로부터 만약의 경우 내 신변을 보호해줄 것과 법정엔 타인의 방청을 허락치 않는다는 약속을 받은후 증인으로 나타날것을 허락했다.

그 변호사의 애기인즉, 선한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협박으로 돈을 빼앗는 그런 벌레같은 인간은 이 사회에서 절대 제거해야 되는데, 무기를 들고 나쁜짓을한 강도인줄빤히 알면서도 시민을 대변할 증인이 없으면 경찰측에서 지고만다는 애기었다. 그러니 그자를 유죄판결해서 해당되는 형을 내려 면 반드시 나의증언이 필요하다 했다.

그의 애기에 수긍이 갔다. 그런 벌레보다도 못한 인간들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

재판날이 왔다. 조금은 초조하고 불안했으나 사복경찰이 Pick Uq해 주어서 법정까지 갔다.

아침9시에 열리기로한재판이 피고인 변호사의 배심원 선정관계로 하오두시로 연기되었고, 아직도 배심원선정이 안되어 재판이 또 연기되었다. 나를 데리러 올때는 사복경찰이 보통차(Unmarked car)로 왔었으나 데려다 줄때는 근무중인 경찰이었으므로 노란 경찰차에 타지않을수없었다.

경찰차에 타니 꼭 무슨 큰 죄인같은 느낌에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 다시는 경찰차로 날 데리러올 생각은 하지말라고 항의했다. 사과를 하며 앞으론경찰차가 아닌 보통차로 Pick up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아뭏튼 예정되었던 재판은 이런저런 이유로연기되어 다섯번이나 헛걸음을 했다. 이쯤되니 화가머리끝까지 났다. 이 바쁜시간에 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쳐야만 되느냐? 다시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결심을 하고 경찰에서 몇번이나 찾아오고 전화가 왔었지만 난 나대로의 정정당당한 이유로 거절해 버렸다.

이젠 너희 경찰들이 강도를 잡건 놓아주건 내 알바 아니라는 태도였다. 나는 그때쯤 해서는 경찰측이 포기해 버렸으려니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사복형사가 또 찾아와서 이번이 마지막일테니 꼭좀 같이가자고 통사정을 하는 것이 었다, 할수없이 더이상은 나타나지 않겠다는 다짐을받은후 법정에 서게되었다.

배심원 자리엔 여자, 남자 합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호기심어린 눈으로관찰하고 있었고, 방청석에는 경찰측 변호사와의 약속과는 달리 범인의 친척처럼 보이는 흑인들과 누군지 알 수 없는 백인들로 좌석이 많이 차 있었다.

모든 사람앞에 내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참 불쾌스런 일이었지만 꼭 참고 증인이 되기로 했다. 나는 증인대(witness box)에 올라가 성경에 오른손을 얹고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한 후 경찰측 변호사가 묻는 말에 사실 그대로를 대답했다. 그 범인이 이범정안에 있으면 손으로 가리키라는 말에, 피고석에 앉아있는 그자를 가리켰다. 좀 야위어져 있었지만 휜칠한 키에, 코밑 흉터하며 틀림없는 나를 놀라게 해준, '당장 뛰어가 뺨이라도 쳐주고 싶은 그런 저주스럽고 미운 인간이 거기 서서 날 응시하고 있었다.

(계속)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416) 533-2361~4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최고의 음식、저렴한 가격、성심성의껏、염가로 봉사합니다。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각종회의석 준비、
☎: 531-0277
대표 나옥녀 올림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 공지사항 —

회원들의 쿠폰서비스 강화에 대하여

협회가 회원들에게 무료봉사해 오고 있는 쿠폰서비스(분류, 발송, 현금, 청구)작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신속히 사무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대상쿠폰 : 회원들 스토어에서 접수된 전종류
신청서류 : 1) 첫번으로 신청하는 회원.
a) 쿠폰취급상점 등록신청서 1통
b) 취급품목이 포함된 인보이스 사본 2통
※a, b, 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 하실 것
2) 신청용지를 구비하신 회원은 쿠폰과 함께 우송해 주실 것.
신청기일 : 1981년 12월31일까지

마감일이 넘으면 효력이 없으니 유의하셔서 속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752-7773으로 문의 바람

한인실업인협회 담당자 백

중고등학생연합회 성탄절 예배

일시 : 1981년12월12일(토)하오6시
장소 : 한인동부장로교회 (251 CHRISTIE ST.
설교 : 민영기 목사

※예배후에는 2부순서가 준비되 있읍니다. 많은 교회 중고등 학생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중고등학생연합회—

연합성탄축하 음악예배

장소 : 한인장로교회(1183 DAVENPORT RD)
일시 : 1981년12월13(일) 저녁7시30분
설교 : 홍신웅 목사
음악 : 한인연합합창단 (박재훈 박사지휘)

주최 : 오순절장로교회
후원 : 한인교역자연합회

부산대학교 동창회 및 X-마스 파티

즐거운 성탄파티겸 망년회를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부부동반하시어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2월11일(금) 오후9시
장 소 : 회장댁(40 SUNRISE AVE. #315
연락처 : 753-3398, 755-9902

부산대학교동창회
회장단

"師道를 바로 세우자" 自省결의

潤相군사건계기 學校마다 大會열어

◇默念하는 師道 東丘女商 교사들이 교무실에서 「스승의자리를 지키자」는 결의를하기에앞서 潤相군을 애도하는 묵념을올리고있다。이날교사들은 具本錫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내 전교사들에게 보낸 공한을 낭독한후 실추된 교사의 명예를 되찾을것을 다짐했다。

"이충격과 悲痛 다시는없게 汚辱딛고 信賴회복 轉機로"

「潤相군의 비극」은 크나큰 충격파를 몰고왔다。이무슨 수난이란 말인가。1일은 아마도 우리나라교육과 師道의 현주소가 그어느때보다 뜨겁게 이슈로 부각된 날이었다。朱永炯교사가 속해있던 교육계가 가장먼저 선명한 자성론을들고 나왔다。『다시는 이런비극이 있어서는 안된다』—탈선교사를 가려내고 응징하는 일에서부터 선량한 수많은 교직자를 이해하고 보호하는일이 일시적인 현상이 돼서는 안된다는것을 보는 어버이들은 손모아 갈구하고있다。

文敎部 李奎浩문교부장관은 1일 朱永炯교사사건과 관련、『문교부장관으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李장관은 『李潤相군유괴살해사건이 바로 자기학교교사에 의해 저질러진데 대해 깊은충격과 비통을 금할수없으며 문교장관으로서 큰책임을 느끼고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제、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교사들의 정신자세와 자질향상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교사교육에 대한 검토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위 具本錫서울시교육감은 1일 서울시내 각급학교 교사들에게 「오늘도 묵묵히 교단에 서서 갖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교육에전념하는 교육동지들에게」라는 공한을 보냈다。

이 공한에서 具교육감은 『단한사람이 저지른 잘못이라고하나、우리는 다함께 사랑으로 사도를 실천해야하는 공동운명체임을 생각할때 더욱가슴저미는 아픔을 참을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충격과 실의에만 빠져있을수 없으며 냉철한이성으로돌아가 국민의 빗발치는 질책을 달게받으면서 심기일전하여 학생교육에 헌신、오늘의오욕을 씻고 사회의신뢰를 회복하자』고 다짐했다。

초·중·고교장단 서울시내초·중·고교장단(회장 文道濟興農中교장)은 1일 하오『潤相군사건에 경악을금치못하며 수도서울의 일선교육을 담당하고있는 책임을 통감하고 괴롭고 부끄러운 심정을 가눌길이 없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날 교장단은 사과문에서 『국민에게 참으로 면목이 없으며 살을저미는듯한 아픔과 죄송한마음 금할길 없다』면서 『귀여운자녀를 학교에 맡기고있는 시민여러분의 충격과、저희들 교육자에대한 실망이 얼마나 크셨을까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면서 『오늘의 이불행한사태가 교직자의 참회와각성의 계기가되고 참다운 교육자로서의 자아혁신과 사도정진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선학교 각급학교 교사들은 1일 수업에들어가기전 『자괴에만 빠져 있을것이아니라 직분에 더욱성실함으로써 실추된명예를 되찾고 사도를 재확립하자』고 다짐했다。

潤相군 누나 娟受양이 재학중인 서울J여고는 이날교무회의에서 『이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디어 교사의 직분에 더욱 충실하자』고 다짐했다。

또 朱교사가 근무했던 서울C여중 교사들은 『사회와 학생의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면서 『그러나 교육에 국가의 백년대계가 달려있음을 통감、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K고교교사들은 『학생지도에 경각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할것』을 다짐하는한편 『학생의 개별신상파악이나 지도에 더욱 힘쓰고 교직자의 자세에대해서 다시한번 마음을 가다듬자』고 결의했다。

범인중 1명인 高모양이 다니던 D여고는 야간반 수업시작전에 직원 석회를 열고 『이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사도를 확립하자』고 결의했고 홈룸시간을 통해 교실마다 설치된 스피커로 청소년의 비행유형과 인간의 고귀성을 강조하는 방송을 하는 한편 학급별로 묵념을 올렸다。

京西中교직원 謝過文〈전문〉

『삼가 학부모님께 머리숙여 사죄합니다。저희 潤相군이 유괴된지 어언1년。혹시나 하던일이 이렇게 잔인무도하고 천인공노할 결과가 빚어질줄이야 어느누가 짐작이나 했겠읍니까? 저희는 입이 열이라도 변명의여지가 없읍니다。교육자는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 본분이거늘 이 어찌 교직자라고 자처하겠읍니까? 학부모님의 힐책 기다릴뿐 몸둘바를 모르겠읍니다。미꾸라지 한마리가 샘물을 흐린다고했듯이 전교직자의 영예는물론 학부모님들에게까지 누를끼친 충격적인사실에 대해 분노와 비통을 가눌길없으며 우리도 두가지인이되었읍니다。거듭사과드리오니 너그러이 용서해주시기바라며 저희 교직원일동은 이충격적인 사실을거울삼아 제자들을 아끼고 가꾸겠읍니다。비명에 간潤相군의 명복을빌며 학부모님께 다시한번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편 京西중학교 교직원일동은 1일 潤相군 사건과 관련、학부모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는 사과문을 보냈다。또 京西중학교 학부모회는 1일 육성회부회장 權炳壹씨(지학사대표) 주재로 모임을갖고 학생들과 학부모·교직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文公委 소집 李文敎 추궁

국회 文公委는 3일 李奎浩문교장관을 출석시켜 李潤相군 유괴살인사건을 계기로 나타난 師道확립문제에 대해 질의를 벌이고 정부측 대책을 듣기로했다。

"中旬께 韓日外相회담"

日소식통 사꾸라우찌訪韓 懸案등 협의

스즈끼改閣後 첫會見 "頂上회담 早期실현"

【東京1日=宋孝彬특파원】사꾸라우찌(櫻內義雄) 신임외상은 盧信永외무장관이 지난8월 일본을 방문、외상회담을 가진데대한 答訪형식으로 12월중순 한국을 방문、韓日외상회담을 열고 양국의현안인 한국이 요청한 경제협력문제를 협의할것으로 보인다고 정통한 외무소식통이 1일말했다。

이 소식통은 사꾸라우찌외상의 訪韓이 일본의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12월21일이전에 실행될 공산이 커졌다고 말하고、서울에서 盧信永—사꾸라우찌외상간에 원만한 절충이 이뤄지면 내년초 韓日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짙어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즈끼수상은 이날하오 제1차 개각단행후 처음 가진 회견에서 『한일양국은 역사적으로 가장가까운 이웃이며 아시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영원히 우호협력을 해야한다』고 말하고 『한일 양국의 정상회담은 양국의외교경로를통해 협의하여 될수있는 한 빨리실현시키고 싶다』고 정상회담의 조기실현을 희망했다。

스즈끼수상은 또 경제협력문제에 대해 『아직 금년도분의 對韓공공차관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으나 우선 이것부터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며 공공차관을 통한 經協문제는 한국뿐아니라 세계각국에서 요청하고있는 실정이므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처리돼야 한다。그러나 한국이 중요한 이웃이라는 견지에서 이문제가 다뤄져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災害義捐金 기탁자 全대통령、接見치하

全斗煥 대통령은 1일하오 청와대에서 災害의연금 기탁자들을 위해 다과를 베풀고 이들을 치하격려했다。

이자리에는 언론계대표10명과 災害의연금 3억원이상을 기탁한 기업대표3명、2억원이상 기탁기업대표6명、1억원이상기탁기업대표14명등 모두33명이 참석했으며 千命基보사부장관이 배석했다。〈사진〉

KOC 위원장등도

全斗煥 대통령은 1일상오 청와대에서 曺相鎬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등 86년아시안게임 서울유치대표단 4명을 접견하고 유치경과를 보고받았다。

全대통령은 이어 美地域사회개발아동福利재단의 데이비드·가이어총재를 접견、국민훈장 無窮花章을 주었다。

이자리에는 徐廷和내무、金容烋총무처장관과 李매리한국지역사회개발아동복리회 회장이 배석했다。

民韓、이번會期중에 政治활동 解禁 建議案 내기로

民韓黨당무회의는 1일 政治활동規制者 해제를위한 對政府건의안을 이번 會期內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金珍培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柳致松총재의 基調연설과 본회의 對政府질문을통해 수차례 解禁에 대한 黨의의지를 표시했기 때문에 결의안을 내기로했다』고 밝히고 『이 건의안은 안정과 국민화합을위한 여러가지 필요상황으로 미뤄 지금이 規制者를 줄여야할 가장 適期라는 의견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民韓黨은 이미 여러차례 정치활동규제자의 解禁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않아 건의안 제출이 최선의방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 건의안은 금명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中旬께東·西獨會談

【본30日AP=聯合】헬무트·슈미트서독수상과 에리히·호네커동독국가평의회의장이 12월중순에 정상회담을 갖게될지 모른다고 30일 본과 東베를린에서 동시에 보도됐다。

敎育稅法 表決통과

國會本會議 贊反토론…百72對81로

13개法案 만장일치

국회는 1일하오 본회의를 열고 교육세법안을비롯한 10개稅法案과 軍人事法개정안등 4개의일반법안등 14개法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이날 13개법안은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나 교육세법안은 贊反토론을 거쳐 표결에 들어가 在籍 2백55명중 찬성1백72 반대81 기권2票로 가결했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朴完奎의원(民韓)은 『현실문제에 관심이 없는 波及、교육문제가 澤上되니 마치 국민이 교육에 대한 협조나 인식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처럼 정부가 교육세신설을 주장하는것을 볼때 얼마나 近視眼的이며 무계획한것임을 알수있다』며 『民韓黨이 반대하는것은 교육투자의 확대가 아니라 목적세로 新設하여 충당코자하는 것을반대할뿐이며 新稅는 惡稅로서 租稅저항을 유발시킬수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통과된 法案은 다음과같다。

▲租稅감면규제법개정안▲法人稅法〃▲所得稅法〃▲相續稅法〃▲특별소비세법〃▲방위세법〃▲전화세법〃▲稅기본법〃▲關稅기본법〃▲교육세법안▲鐵道法개정안▲해상운송사업법〃▲軍人年金法〃▲軍人事法〃

林采洪의원 脫會 / 敎育稅法表決 同友會 內紛

議政同友會의 林采洪의원은 1일 국회본회의에서의 교육세법안 表決에서 일부同友會소속의원들이 반대방침을 무시하고 散票현상을 보인데 反撥、脫會를 선언함으로써 지난9월 朴定洙의원의 會長職사퇴이후 두번째위기를 맞았다。

林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육세 표결결과를 보고 정치신의와 인간적인 의리를 헌신짝 같이 버리는 議政同友會서 더이상 함께 議政활동을 할수 없기때문에 脫會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同友會가 앞서 교육세 반대방침을 세웠음에도 불구、同友會소속인 高貞勳 白瓚基의원은 찬성했고、李龍澤 曺亨富의원은 기권했다。

社告

에비타

女傑에바·페론 波瀾의 一代記

뮤지컬… 豪華캐스트 24~27일 世宗文化會館

◇극단「現代劇場」이 한국에서 初演하는 뮤지컬「에비타」。신인 李京愛㊥와 柳仁村㊧ 趙英男이 熱演한다。

한국일보·日刊스포츠와 극단「現代극장」이 호화캐스트를 동원하여 제작하고있는 대망의 무대「에비타」공연이 박두하고 있읍니다。

「에비타」는 세계무대를 휩쓸고있는「에비타」의 붐길을 서울에서 點火하게될것입니다。빈민가출신의 無名배우에서 아르헨티나의 퍼스트·레이디가 되고 人氣와 權力과 갈등의 頂點에서 33살에 癌으로 요절했던 에바·페론의 극적인 生을 엮은 이뮤지컬은「조국이여 나를위해 서러워 마오」란 노래를통해 이미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고있읍니다。「예수그리스도·슈퍼스타」를 만들어낸 팀·라이스(작사)와 앤드류·웨버(작곡)의 名콤비가 내놓은「에비타」의 타이틀·롤을 맡았던 세계무대의 新人여배우들은 두가지 하룻밤새 스타로 탄생했으며 한국초연에서도 신선한 新人 李京愛가 신데렐라로 발돋움하고 있읍니다。「에비타」役은 李京愛와 함께 萬能탤런트 金보女가 맡고있으며、「후안·페론」役은 柳仁村과 金鎭泰가 불꽃튀는 연기대결을 하게됩니다。또한 극을 진행하는해설자「체」役을 맡기위해 美國에서귀국한 趙英男이 전력투구하고있읍니다。크리스머스·이브를 더욱 값지게 해줄「에비타」를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권

S 석=7천원
A 석=5천원
B 석=3천원
C 석=2천원
(문예진흥기금포함)

◇예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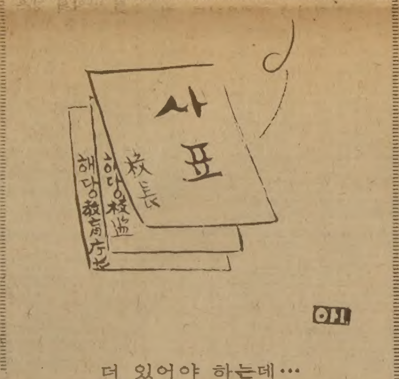
▲한국일보사업부(㉓1472)▲대한음악사(㉖0577)▲코스모스백화점(㉖0311)▲25시음악사(㉖2341)▲교보문고(㉖4664)▲광화문음악사(㉓6151)▲세고비아기타(㉔6161)▲종로서적센터(㉓2233)▲광생약국(㉗7372)▲중앙악기사(㉖6740·5779)▲현대극장사무국(㉗2721)▲이태원(900)▲세종문화회관매표소(㉕5103)▲미도파담배코너(㉓3171)▲백안경(㉕5103)

주최 한국일보社·現代극장

地平線

우리말과 글을 지켜 60年、내일로 한글학회가 회갑을 맞는다。국제언어학자대회、국어학도서전시회、한글서예작가초대전이 열리는가하면 기념축하회도 베풀어진다。하나 이 푸짐한행사속에서 조용히 돌이켜보면 한글학회만큼 荊棘의길을 걸어온 단체는드물다。▼1921년12월3일 周時經선생의 제자들이 徽文義塾에모여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조선어연구회를 만든것이 한글학회의 조다。日政때는 국어운동이 곧 독립운동이었으므로 모진탄압을받아 末期엔 드디어 강제해산까지됐다가 광복후에 재건、오늘에이르렀다。그간42년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33명이 日警에 끌려가「큰사전」원고가 압수된가운데 李允宰선생과 韓澄선생이 獄死했다。獄苦를 치른이로 鄭寅承、李熙昇、金善琪、李殷相씨등 네분이 생존해 있는데 이 한글학회 탄압사건은 곧 민족수난사이기도 했다。▼桓山 李允宰선생은 32년에 휴간중이던한글잡지를속간한 분이다。「우리글—한글은 소리와같고、모양이곱고、배우기쉽고 쓰기편한 훌륭한 글이다… 하루 바삐 묵정밭 같아 거칠은 우리 한글을 잘 다스리어 옳고 바르고、깨끗하게 만들어놓아야된다…」이는「한글」잡지 續刊辭의 한토막이다。소탈한桓山에 대해 李熙昇선생은 그를 孔子의 弟子子路에 비유한 일이 있다。즉『그는 세가지 일을 몰랐다。첫째 能小能大로 伸縮自在란 수단을 몰랐다。둘째 金錢을 몰랐다。그가 알고 있었던 세가지는 첫째 自我、義理、正氣였다』고。▼한글운동을 하던분으로 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많았다。周보따리라는 별명을 들으면서 장안의 여러夜間학교에 나가 한글강의를 하던 한힌샘 周時經선생、꼿꼿하기로 이름난 최현배선생、반찬없이 소금을 찍어먹으면서 淸貧으로 저술과 교육에 일생을 바친 金允經선생같이 이땅엔 애국 애족에 앞장선 한글학자들이 여러분 계셨다。▼한글운동은 회갑이 넘었다고 끝난건 아니다。한자어문제、외래어 남용、맞춤법개정등 해결해야될 난제가 수두룩하게 남아있고 최근엔 남북간의 언어 격리현상마저 생기고있다。한글학회는 회원들만이 아는 단순한 보통민간단체와 다르다。우리의얼이 간직돼있는 애국애족단체이기도하다。특히 요즘들어 新羅·百濟·高句麗의 遺跡、遺物이 많이 발굴되면서 우리역사를 통해 우리것을 되찾으려는 기운이 커지고있는 이때 우리의 자랑인 한글을 더가다듬어야할 것은 물론이다。새시대를 맞은 한글운동의 꾸준한전진을 기대한다。

社會漫評



더 있어야 하는데…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 교육、은퇴、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서울 여행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도착까지
●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동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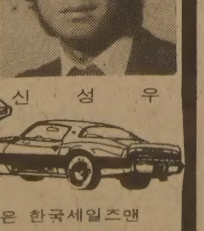
공군발기모임

모이자! 창공의 용사들이여.
재 캐나다 보라매회(가칭)발기 총회를 아래와같이 갖고자 하오니 캐나다에 거주하사는 전역 공군장사병 여러분들은 한분 빠짐없이참석하여 옛정을 나눕시다.
일 시 : 1981년12월29일(화) 오후7시
장 소 : 거구장
회 비 : $10
발기인 : 김대억(857—1683
김두성(494—6519)
조석봉(749—9687)
유덕성(438—0403)
이웅식(821—3876)
이창환(742—2421)
이광한(630—2400)
〈가나다순〉
발기인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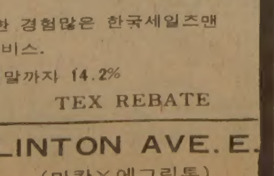
보성동창회 연말파티

보성동문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성동창 에서는 X—마스 파티겸 연말파티를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하오니· 부부동반하시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일 시 : 1981년12월26일. 오후7시
장 소 : 회장님댁(78 ELMBROOK CRES)
회 비 : 커플당 $30.—
연락처 : 안경영씨(621—9510)
보성고등학교. 동창회

MARVIN STARR
취급종류
● PONTIAC : ACADIAN PHOENIX. FIREBIRD. LEMANS. GRAND PRIX PARISIENNE
● BUICK : SKYLARK CENTURY ROYAL RIVIERA
● 각종VAN트럭
● 데모카
● USED 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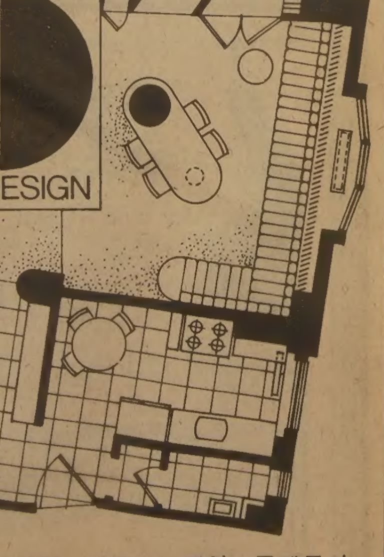


신 성 우



스카보로의 유일한 경험많은 한국세일즈맨 최고의 아프터 써비스.
GMAC이자율11월말까지 14.2%
TEX REBATE
3132 EGLINTON AVE. E. (마캄×에그린톤)
전화 : 264—2311 (PAUL SHIN)

FINE DESIGN



상점·음식점·사무실·교회·주택등의 실내·외부 디자인및 시공을 담당하며 필요하신 가구의 설계및 제작 또는 선택과 구입을 도와드리며 카펱·카텐 벽지·페인트등의 색·품질·선택·구입 주문등도 도와드립니다.
676•1173/622•5328 조 덕남

中共、緊縮경제 5년간持續

首相 趙紫陽 全人代서 밝혀

投資권장·技術도입 계속 / 行政기구 改編도 곧단행

【北京30日外信綜合=聯】 중공은 금년들어 예산적자폭이 크게 줄어들고 기록적인풍작이 예상되는등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예상보다훨씬 좋아졌지만 이른바 경제재조정작업으로 알려진 긴축경제정책이 앞으로 5년간 더 지속될 것이라고 수상趙紫陽이 30일 발표했다。

趙는 이날 3천2백2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가운데 北京 인민대회당에서개막된 중공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제4차회의에서 경제정책보고를통해 이같이 밝히고 또한 대외교역과 투자를 계속권장하며 서방선진기술도입을 촉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전문가이기도한 趙는 중공의 금년도 예산적자폭이 지난해의 85억달러에서 18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들고기록적인 풍작이 예상되는가하면 81년도 국가경제계획이 성취될 전망을 보이는등 경제사정이 크게 좋아졌으나 긴축경제정책이 「적어도 오는87년」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趙가 이밖에 이날 연설에서 발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갈다。

—금년도 농업및 공업생산증가율은 3%가 될것이다。

—금년도 곡물수확량은 기록적인 3억3천2백만톤에 「가까울」것이다。

—금년도 교역량은 지난해의 3백50억달러를 크게상회할것이다。

—소비산업에 중점을 둘것이다。

【北京1日AP綜合=聯】 中共수상趙紫陽은관료체제를극복하여 효율성을 높이기위해「패혼규모의」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할것이라고 말했다。

趙는 30일 열린 제5기全人代 4차전체회의에서 2천여만명의 중공공무원들이 책임전가、끝없는 토론만을 계속함으로써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엄청난·기간내에」직원감축、부서합병、상벌규정강화등 행정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새 스즈끼內閣 30일 개각을 단행한 스즈끼·젠꼬(鈴木善幸㊥) 日本수상이각료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있다。스즈끼수상 왼쪽이 고오모또·도시오(河本敏夫) 경제기획청장관, 오른쪽이 나까소네·야스히로 (中曾根康弘) 행정관리청장관。 【東京30日AP聯=聯】

中共、統一協商 거듭促求

【北京30日AP=聯】 중공은29일 자유중국에 「일부문제에 대한 상호 이견」에도 불구하고 중국재통일을위한 협상을 개시할것을 거듭 촉구했다。

중공당정치국원 彭沖은 이날 北京에서 열린 중공농민당창설자 뎅·얀·다의 사망50주년 기념식연설을 통해 臺灣의 자유중국총통에게 국가이익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워 모든 회의주의를 일소하고 中共의 협상제의를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第2의「앨런 게이트」

白堊館 디버補佐官 弘報會社관련…年弗받아

【워싱턴1日AP=聯】 리처드·앨런 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의 잡지사 사례금사건이 물의를 빚고 있는것과 때를 같이해 이번에는 레이건대통령의 고위보좌관 3인중 한사람인 마이클·디버가 레이건 행정부 출범에 앞서 그가 총주식의 40%를 보유하고있던 한對의회 로비활동 전문홍보회사를 매각처분한뒤 이거래와 관련하여 연봉을 받아온 것으로 1일 밝혀졌다。

한 일본잡지사로 부터의 1천달러 사례금 수수와 관련하여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직을 휴직했던 ... 포드사를 금년1월 매입한 해너포드사가 현사주에게 넘어오기전 이회사의 대주주 사람이었다。

상원의기록에 따르면 외국정부및 국내외기업들을 대리하여 합법적으로 對美의회로비활동을 펴고있는 해너포드사의 고객수가 레이건행정부 출범이래 4배나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앨런도 포드맥·인터내셔널사 매각처분과 관련하여 해너포드사로부터 연봉을 받아온것으로 밝혀졌다。

美법무성서류에 따르면 해너포드사는 대만정부와 과테말라의 한 보수적 기업체를 위한 대미로비활동업체로 등록되어있다。

이 회사는 디버씨의 전동업자였으며 한때 레이건대통령의 연설문작성자였던 피터·해너포드에 의해 현재운영되고있다。

유엔「國際平和의 날」제정

每年9월 셋째火曜日로

【뉴욕1日=金泰雄특파원】 유엔총회본회의는 30일하오 내년부터 매년9월세째 화요일을 「평화의 날」로 제정키로 결의했다。

이날 본회의는 결의안서문에서 「평화의 날과 평화의 해의 재정목적은 세계평화의 이상을 각나라와 인류에게 고취하고 나라간또는 국민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영원한 세계평화를 구현하는데있다」고 밝혔다。

이결의안은 또 내년4월 13일부터 5월7일까지 열리는 경제사회이사회가「평화의 해」를 재정하도록위임했다。

평화의날 제정결의안은 코스타리카를 비롯해 20개국의 비동맹국이 제의했다。20개제안국은 방글라데시、칠레、코스타리카、키프로스、도미니카 공화국、에콰도르、이집트、엘살바도르、가나、과테말라、온두라스、자메이카、레바논、니카라과이、파나마、필리핀、세네갈、소말리아、베네수엘라、자이레등이다。

코스타리카는 지난7월 코스타리카의 산호세버너 세계대학총장회의가 열렸을때 당시의 회장 趙永植씨(慶熙大재단이사장)등 회원들이 제출한 제정결의안을 유엔총회의 총회안건으로 정식 제출했다。

波、消防사관교 폐쇄

야루젤스키 罷業계속되면 戒嚴선포

【바르샤바30日讀賣=聯】 폴란드 정부는 전국으로 확산되고있는 학생들의 동맹휴학사태에 대한 강경대응책의 일환으로 지난68년의 학생폭동이래 처음으로 30일 한사행정의 고등교육선으로의 이관을 요구하며 맹휴에 돌입, 1주째 연좌농성을 벌이고있는 바르샤바의 소방훈련사관학교를 폐쇄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폴란드 내각은 학교구내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3백80여명의 소방훈련사관 생도와 교수들이 농성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라는 거듭된 당국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협상을 통해 농성학생들을 해체시키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날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관영 PAP통신과 관영방송이 보도했다。

【바르샤바30日AP=聯】 보이체흐·야루젤스키 폴란드 수상은 전국의 20만학생·농민·(油田)노동자·소방학교 생들의 파업이 계속되는가운데 의회에대해 강권으로 파업을 금지시킬 비상조치법의 제정을 요구했으며 파업이 계속될경우 계엄령을 선포하겠다고 위협했다。

나의 이력서

〈元一漢〉

元一漢 ⑦

할머니에 대한 回想

할머니 릴리아스·호튼·언더우드女史는 한국과 우리가문에 관한 3권의 저서를 남겼다。이들 책은 당시의 한국풍물과 외국선교사들이겪었던 독특한 사정을 흥미있게 펼쳐주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3권의 책이름은 Underwood of Korea(언더우드實記) Fifteen years among Topknots(상투잡이들과 더불어15년) With Tommy Tompkins in Korea (한국의 이모저모)등이다。

지금으로부터 1백년전의 미국일지라도 여자가 의사가 되기는 그리 쉬운일이 아니었다。그런점에서 할머니는 선각자였을뿐 아니라 저술가로서도 매우 뛰어난 재질을 가져 한국에와서 일하며 느꼈던 일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다。

할머니가 맨처음 썼던 저술은「상투잡이들과 더불어 15년」으로 그의 결혼후인 1903년께 한국에 와서 15년동안 겪은 일을 회상한책이다。

이 책에는 신혼여행중 강도를 만나 죽을뻔 했던일、물건을 빼앗긴일、여관에서 밥을 먹다 겪은일、마부들이 봉변당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있다。

『사태가 이쯤 험악해졌을때 동네사람들이 나섰다。그들이 우리를 구해주기위하여 간섭하기 시작했던 것이다。그들은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이광경을 보고도 모른척 한다면 국왕의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외국사람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는죄로 엄중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동네사람들은 우리의 수행원들과 돈과 물건을 찾아 주었던 것이다』

1888년 봄 할머니가 한국에 도착하여 맡은 일은 세브란스의 전신인 廣惠院의 부인과과장이었다。

廣惠院부인과장…傳記집필

◇할머니를 비롯한 당시의 외국선교사들은 4인교를 많이 이용했다。사진 맨앞이 할아버지 元杜尤、앞가마에 탄분이 할머니 릴리아스·호튼부인。

그런데 병원에서 일하지 한두달 지났을 때 한참간에는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었다。

그것은 외국사람들이 한국어린이들의 눈알을 빼어다가 안경알을 만들고 염통을 빼어다가 양약을 만들어 판다는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다

"西洋人이 한국어린이 눈으로 洋藥만든다" 폭동겪기도

이 낭설은 본래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 오는 것을 싫어한 일본인들이 만들어냈다고도 전해진다。

그러나 당하는 쪽은 일본인들이 아닌 서양선교사들이었고、이중에서도 병원에서 환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는 의사들이었다。

낭설은 그대로 가라앉지 않고 소위「아기소동」으로 번졌다。격분한 군중들이 몽둥이를 들고「양인놈들 잡아라」고함을 치며 떼지어 다녔다。

거리에서 어떤 대가집 하인이 매맞아 죽은일 까지 생겼다。왜냐하면 그집 하인이 서양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이 난리통에 외국선교사들이당한 곤욕은 이루말할 수 없었다。바깥출입은 엄두도 못했고 각국 외국공사들도 출입금지령을 내렸다。이때문에 仁川항에 주둔하고있던 미군해병대가 서울로 급파되어 자국인 보호에 나섰던 것이다。

이때 할머니는 병원근무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고있다。집에서 병원까지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네사람이 멘 가마속에 숨어다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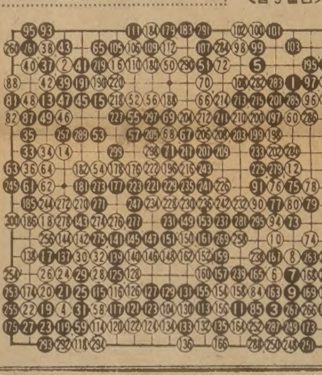
그런데 하루는 가마꾼들이 와주지 않았다。가마꾼들이 서양사람들의 가마를 메고 다닌다는 이유로심한 매를 맞았기 때문이었다。

그뒤 폭동은 차차 가라앉았으나 가마꾼들은 여전히 와주지않아 걸어서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할머니는 회고하고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의사의 조수일과 간호원구실을 하면서 약한 여의사가 바깥출입을 할때 호위병노릇을 했다고한다。

제⑬⑦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8局 總譜300手完 白5집반 勝 (각5시간)



白(7段)河燦錫〈1勝1敗〉

黑(7段)徐奉洙〈1勝1敗〉

徐7단은 지난26일 最高位도전 제3국을 분패함으로써 3대0의 스코어로 타이틀을 잃었다。이리하여 남은타이틀은 王位와 國棋 두개로줄었고 반면 曺7단은 名人、國手、棋王、覇王에다 最高位를 보태서 우선4관왕으로 그 저력을 과시하게 되었다。이와 동시에 진행중인 國手戰도 현재까지 1승2패로서 徐7단이 마판에 몰린채 11월30일 제4국을 두게 되어있다。

이결과는 本棋戰 마감날짜 관계로 본란에 미처 보도할수 없지만 현재까지의 추세로보아 曺7단이 國手位마저 방위하리라는 것이 일반평의 예측이다。國手와 最高位戰 합계10국의도전대국이 5승1패로 너무도 일방적인 전적이기 때문이거니와 여기서 國手戰만큼은 도전자 徐7단의 乾坤一擲을 기대하는 팬들도 적지않다。

河 7段의 佳作譜

그런데 이바둑은 徐7단으로서 따라하다가는 도전권을 놓칠수도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초반의 1승1패면 나머지 4국을 전승해야되는 부담이 있는것이다。

여하간 河7단으로서는 하나의 佳作이 틀림없을 것이다。흑300수로、군자회귀한 열전의 자취를 보면 좌변黑33、35와 67이하의 싸움으로 黑은대세를 손상했다가、우변 패로 좌상귀黑을 잡은데서 黑이 세를 만회했으나 하변전투에서 黑129가 안일해서 승기를 놓치더니 결국 세를 회복하지 못했다。44…37。83…75。86…80。89…75。92…80。187…109。189…184。2 24…211이음。240…135。246…6。259…167。262 …6。265…167。268…6。296…167이음。 소비시간 白=3·20 黑=2·45 【一九】

◇활짝웃는 美·蘇대표

유럽配置핵미사일제한 협상에 참석할 폴·니처 美國측대표㊧와 유리·크비친스키 蘇聯측대표가 30일 회담장소인 제네바의 蘇聯대표부앞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면서 환히 웃고있다。【제네바1日AP綜合=聯】

앨런 TV會見

"누군가 날 내쫓으려 언론통해 潔白 운동"

【워싱턴30日AP綜合=聯】 미대통령 국가안보담당보좌관직을 잠정사임한 리처드·앨런씨는 30일 현레이건행정부내의 『누군가』가 자신을 정부에서 내몰려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앨런씨는 한 일본잡지사로부터의 수뢰사실과 관련해 이사건조사가 종결될때까지 『행정상의 휴무』에 들어간지 하룻만인 이날 TV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국가안보담당보좌관직 수행을『누군가가 좋아하지 않을지 모른다는것은 상상할수 있는일』이라고 말했다。

【워싱턴1日UPI=聯】 한일본여성잡지사로부터 받은 1천달러의 사례금과 관련, 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직에서잠정 휴직한 리처드·앨런씨는 30일 美언론기관들과의 일련의 회견을 통해 자신의 오명을 씻기위한 운동을 개시했다。

앨런씨는 NBC방송 언론과의 대화프로를통해 그가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직에서 행정적 휴무에 들어 갔다고 밝힌지 하룻만인 이날 NBC방송의 투데이·쇼프로와 ABC방송의 굿·모닝·아메리카프로및 워싱턴·포스트지와의 회견을 통해 그같은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시나이 平和유지軍 유럽4國 참여受諾

이스라엘 同意

【워싱턴30日UPI=聯】 이스라엘은 유럽4개국의 시나이 다국적평화유지군 참여결정을 수락하기로 30일 동의했다。

美국무성은 에프라임·에브론 주미 이스라엘대사가 30일 알렉산더·헤이그 국무장관을 방문、「상호 관심사」를 협의했음을 확인했으며 이스라엘소식통들은 헤이그장관이 이자리에서 지난29일의 이스라엘각의가 제시한 공동성명 字句上 약간의 수정을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이、美·이스라엘 공동성명이 발표되면 이스라엘이 英國·프랑스·이탈리아및 네덜란드등의 시나이평화유지군 참여결정을 수락하는것이 가능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海外토픽

어린이 홍콩密入國

★犯罪組織들 巨額받고

홍콩당국은 최근 중공으로부터 12세미만의 어린이들을 홍콩으로 불법입국시키는 범죄조직들을 단속하기위해 중공접경지역에 경찰과 군초계정을 집중투입、비상경계를 펴고있다。

이들 범죄조직은 주로 홍콩에 도착한 밀입국자들의 자녀들을 중공으로부터 밀입국시킨후 3백50~2천6백달러의 돈을받고 아이들을 부모의 품에 안겨준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중공으로부터의 대량 불법입국에 골치를 앓아온 홍콩당국은 이번 기회에 일체의 밀입국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홍콩=聯】

妙技보이다 火傷

★손님이 引火質 액체던져

남아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주말인 28일 뱀을 몸에감고 불을 삼켰다뿜어내며 묘기를 보이던 스트립쇼·걸이 손님에게 실수를 저지른것이 화근이돼 화염에 싸여버렸다。

세일라·트라이스터(28)라는 이쇼·걸은 몸에 뱀을 감고 입에서 큰불길을 뿜어내는 묘기를 보이던중 근처에있던 관객의 머리카락을 약간 태웠는데 당황한 이관객이 인화질액체를 물로 잘못알고 집어던지는 바람에 몸이 온통불길에 휩싸여 버렸다는것。

쇼·걸은 2도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는데 경찰은 이사고를 우발사고로판단、관객을 구속치않기로 했다。【요하네스버그=聯】

蘇亡命 피아니스트 야브론스키 演奏會

77년미국으로망명한 소련의 여류피아니스트 옥사나·야브론스카야(사진)의 초청피아노독주회가 5일하오7시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레퍼터리는 쇼스타코비치의 「주빌류드와 푸가 E단조작품24」 베토벤의 「피아노소나타C단조 작품13 비창」 스크리아빈의 「6개의연습곡」등。

메아리

구세군의 자선남비가 한해가 기울어감을 알리며 거리에 나서기 전에 한국일보 12월1일자 1면에는「연말사랑의 손길펴기운동」사고가 등장하고 있다。

「한국사회봉사회」의 결정에 따라 펼쳐지게되는 연말사랑의 손길운동은 70년대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주변에는 아직 동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불우한 이웃이 적지 않아 그에 대한 배려와 표현이라 하겠다。

사실상 달력의 마지막 장을 남기는 12월이 되면 관공서나 사기업체나 또는 학교와 여염집을 가릴것없이 지난 한해를 돌이키고 다가올 새해의 설계를 위해 공연히 부산해 진다。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상 어느 한일의 매듭을 짓는다는것은 다분히 마음의 부담을 안게되는 것이다。

더구나 한해를 마무리 짓는다는 일은 해마다 겪게되는 어김없는 절차임이 자명한데도 언제나 새삼스럽고 황황하여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어렵게 된다。

아무리 한해를 마지막 보내는 달의 심사가 어수선 하다고 치더라도 또 공사간에 고루 매듭지어야 할 일들이 많다고 해도 따스한 손길이 아쉬운 여러 처지들에 대한 온정을 저버려서는 안될듯하다。

따사로운 손길이 아쉬운처지란 어디를 둘러보아도 의지할곳이 없어 사회복지시설에수용된 노약자나 어린이、그리고 생계가 여의치않은 극빈영세민들을 우선 생각하게 된다。그뿐아니라 국방의 최전선에서 아니면 해안초소에서 밤낮없이 헌신하는 국군용사와 전경대원에 대한 위로와 위문까지로도 마음이 연장된다。

미구에 성탄절이 오고 또 섣달그믐을 전후한 망년회의 흥청거림도、예상이되나 우리는 한해 마지막 달의 정황이 아무리 두서 없고 바쁘고 갈피를 차리기가 어렵다 해도「사랑의 손길」을 펴며 자선냄비에 얼마간 분수에 맞는 추렴을 하고 하는 사회적인 배려를 제가끔 저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닭의 해 신유년을 매듭 짓고 보내는이 달、사람과 온정이 아쉬운 곳에 고르게 관심을 보이는것을 한신조로 삼게 된다면 마지막 달의 스산함은 오히려 훈훈하게 탈바꿈할것이다。

12月

謹賀新年

즐거운 성탄절과
새해를 맞아 교민 여러분의
무한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한국관 나옥녀 올림

DOMINION SMALLWARES

◆◆ 금주의 스페샬 ◆◆

Nov. 30 - Dec. 1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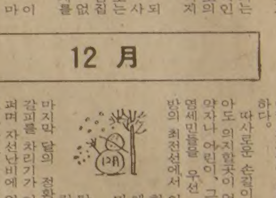
		SPECIAL
Neilson Chunk	1.20x15¢	$10.65
" Reg. Choco	36x40¢	9.59
Rowntree CHOCOLATE "	"	"
Cadbury "	"	"
Hersey "	"	"
Lora seco "	"	"
Lowney "	"	9.95
Lee's snow ball	36x25¢	6.00
Breath savers	12x30¢	2.55
Y & S pipes, cigars, Mr. chew	48x10¢	3.05
Pargum	245x 2¢ ($1보너스 pack)	3.09
Estro pops	36x25¢	7.00
Sostgranola bar	40x35¢	7.00
Tottifay 391g	1 time $6.59	4.29
Peter puck	24x25¢	3.95
Moirs bag candy	24x25¢	3.45

DOMINION SMALLWARES

크리스 마스때 까지(일요일 오전중만 OPEN 합니다.

920 Caledonia Rd (Cash & Carry에 한함)

789-7214(MR. 김)



朱永炯·두女弟子 拘束

監禁致死罪 (7년이상 징역에) 등 적용
殺害밝혀지면 最高사형

李潤相군유괴사건을 수사해온 서울麻浦경찰서는 1일 京西중체육담당 朱永炯교사(28)와 제자이자 공범인 李모양(17·Y여고2년) 및 朱교사의 범행사실을 사건후 알고도 이를 숨겨온 高모양(17·D여고3년)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날 朱교사와 李양에게는 특가법5조의2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2항3호와4호 (약취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상해 감금또는 유기하거나 가혹한행위를 가하여 치사케한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의 규정을 적용했다。

李양 1~5차협박편지·6차는 高양 筆跡

또 高양에게는 특가법 5조의2、5항 「미성년자를약취유인하여 치사케한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을 적용했다。

이날 구속영장을 검토한 서울지검형사3부 柳濟仁검사는 『潤相군의사체를 검시한결과 질식사나 타박상에의한 사망등의 흔적을 식별하기힘들어 정확한사인규명이 어려운상태이므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살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혐의를 적용할수가없다』고지적、『현상태에서는 朱교사의 주장대로 潤相군이 감금상태에서 탈진해 죽었다고보아 감금치사죄조항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柳검사는 또 『高양의 경우도 朱교사의 범행을 사전에 안것이 아니므로 방조혐의를 적용치않고 범인은닉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방조죄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제32조)고만 돼있어 단순한 범인은닉죄보다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柳검사는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적용죄명에 무리가없어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검찰송치후 朱교사가 潤相군을 직접 살해했다는등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경우 약취유인살해죄로 죄명을 바꾸어 기소하게될것』이라고 덧붙였다。

朱 主犯 李양

한편 경찰은 朱교사에대해서는 潤相군의사체와함께 발견된 潤相군의 곤색점퍼·회색毛무늬하의·비닐가방·명주머니끈등 5점을 증거물로첨부했으며 李양에대해서는 娟受양유괴미수범행당시 입었던 Y여고 교복상하의와 감색롱코트 안경을 증거물로첨부했다。

경찰은 이에앞서 그동안 증거물로 확보했던 협박편지의 필적과 지문을 범인들의 것과 대조한결과 1차~5차까지 편지의 필적은 李양의 필적과같고 6차편지는 高양의 필적과 동일한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4차협박편지에 나아있던 지문 (와상문 1개) 은 지금까지의 추정과는달리 李양의 것이 아니고、李양의 여동생 (13)의 지문으로 밝혀졌는데 경찰은 李양의 동생은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며、李양의 책상서랍에 있던 편지지를 동생이 우연히 만져 지문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李양이 협박편지를 쓸때에는 장갑을껴 동생의 지문만 남은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앞으로 음성등도 감정、증거를보완한 계획이며 현장검증은 검찰의 지휘를받아 빠르면 2일중에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옛담임과 어머니 애통해하는 어머니와 담임교사。 潤相군이 유괴당할 당시 담임이었던 吳淑邦교사(左)가 赤十字병원 영안실의 潤相군빈소를 찾아 애통해하는 潤相군 어머니 金海慶여사를 붙들고 위로하고 있다。

코골고 잠자 朱
李·高양 웅크리고밤새워

潤相군유괴살해범 朱교사와 李모·高모양등 두공범은 30일밤을 麻浦경찰서 보호실에서 보냈는데 朱교사는 만사를 체념한듯 기자들 질문에 순순히 대답했으며 자정이가까와지자 담요를 뒤집어쓴채 코를 골며 깊은 잠에빠졌다。 그러나 두 여학생은 보호실구석에 따로 떨어져 웅크리고 앉아밤을보냈다。

이들은 1일상오 경찰이넣어준 식사와음료수 빵등을 모두 먹었으며 朱교사는 그동안 부족한잠을 실컷자고나서였는지 전날보다 더욱여유있는 모습이었으며 보호실에 있던 주간지등을 뒤적이는등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고는 느낄수없을정도로 태연한 모습。 또 두여학생도 1일 상오부터는 서로 정답게 얘기를 주고받으며 간혹 미소를 짓는 모습도 보였고 보호실바닥이 차서인지 코트를 벗어 함께 무릎위에 놓고 나란히 앉아 빵을 나누어먹기도 했다。

검은리본·默念…온통悲痛
京西中學 급우들·教職員、"이렇게 만나다니"

京西중학…… 潤相군이 다니던 京西중학교에서는 1일상오9시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묵념을 올리고 潤相군의 명복을 빌었다。 이날 학교도서실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1교시 수업시작전 교직원들과 각 학급 반장들이 분향했으며 다른학생들은 교실에서 일제히 묵념을 올렸다。 또 휴식시간마다 학생들이 몰려들어 흐느끼며 억울하게 죽어간 급우를 애도했다。

潤相군 담임 高炳坤교사는 『얼굴도 자세히 모르는채 이름만으로 潤相군의 담임을 맡았지만 언젠가는 무사히 돌아와 빈자리를 채워줄것으로 믿었다』며 『潤相이가 돌아올수 없게된 지금은 오랫동안 가까이 두고 가르치던 사랑하는 제자가 죽은 느낌이다』고 목이메었다。 이날 京西중 교직원들은모두 가슴에 검은 리번을 달고 교단에 섰다。

弔花묻힌빈소 焚香잇달아
赤十字병원 靈安室 안치

북한강변에서 발굴된 潤相군 유해는 30일밤 늦게 서울적십자병원 영안실로 옮겨져 안치됐다。 潤相군의 영정을 비롯 「기쁨은 나누면 갑절이되고 고통은 나누면 절반이된다」고 쓴 潤相군의 서예작품과 시화등이 놓여진 빈소에는 李奎浩문교부장관과 朴永錫교육감、京西중학교 교직원、娟受양이 재학중인 J여고학도호국단등에서 보내온 조화가 놓여져 있었다。

朴교육감이 빈소를 찾아와 분향한데이어 서울시내 각교육구청장과 서울시 국민학교교장회의 회장·사립중고교장회의회장을 비롯、서울시내국민학교·중고교 교장 30명등 1백여명의 조문객이 찾아와 명복을 빌었다。

오늘 京西中學校葬
10시 赤十字병원서

한편 潤相군 장례는 2일상오10시 유해가 안치된 서울적십자병원에서 京西중학교장(葬)으로 치르기로 결정됐다。 장례비 일체는 서울시교육위가 부담키로 했는데 장례절차는 2일상오 영결식이 끝난뒤 서울적십자병원을 떠나 潤相군의 모교인 京西중학교와 유석국교를 들러 교우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한뒤 경기 碧蹄화장장에서 화장、서울 銅雀區上道洞 미륵암에 안치된다。

◇潤相이가… 京西중학교 도서실에 마련된 潤相군 분향소에 潤相군과 같은 학년이었던 2학년생을 비롯、선·후배등 전교생이 줄지어 분향、명복을 빌었다。

"人權박탈 당했다" 朱휴대한 遺書에

潤相군의유괴범 朱永炯교사의 파렴치한단면은 사건이후 朱교사가갖고다니다경찰에 압수된유서에서도드러났다。 朱교사가 자필로쓴 유서에는 「존경하는 대통령각하·교장선생님」이란 제목아래『경찰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한부분과、『언젠가 潤相군유괴사건이 해결되면 다시한번 자신에 대한 얘기가 나올것』이라고 능청을떤 부분이 쓰여있다。

李前교육감 辭表 / 潤相군事件 책임

전서울시교육감 李昌鉀서울고등학교교장이 1일 朱永炯교사의 潤相군살해암장사건과 관련해 사표를 제출、수리됐다。

京西中 신임校長 / 崔英植 前장학관

한편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1일 潤相군사건에 책임을지고 사표를 제출한 殷容基京西中교장후임에 崔英植서교위장학관을 임명했다。

昌德여중校長·교감 / 鄭珖淳씨등을 발령

시교위는 또 昌德여중 金順英교장·孫相瑛교감등 2명을 직위해제하고 瑁水여중 鄭珖淳교장을 昌德여중교장으로 전보발령하는한편 시교위중등교육과 宋錫鳳장학사를 昌德여중교감으로 임명발령했다。

스페인硏修서 聲樂부문首席
中大교수 테너金和勇씨귀국

테너 金和勇교수(49·中大예술대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스페인 몸포스텔라를 수료하고 지난 26일 귀국했다。 몸포스텔라는 4개월과정으로 스페인음악만을 가르치는 국제음악연수원。 이번 24회 연수에는 세계 25개국에서 1백20여명이 참가했는데 金교수는 12개분야중 성악분야에서 수석을 차지、지난10월23일 마드리드 왕립음악학교 뮤직홀에서독창회를가졌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郵便행낭속 5백만원 증발
濟州中文서 西歸浦까지 護送員탄 우편車로 送金
당직자 責任물어 변상조치

【濟州=】 우체국에서 수납한 현금9백만원을 다른우체국으로 송금하는도중 우편행낭속에든 현금 5백만원이 감쪽같이 증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1일 상오8시10분께 제주도西歸浦市中文우체국은 일반우편행낭8개와 함께 현금9백만원이든 행낭을 호송원1명이탄 우편차에실어 15분후인 8시25분께 西歸浦우체국에 도착시켰는데 환금계직원高憲俊씨가 인수즉시 봉인、현금행낭을 개봉해 보니 5백만원과 현금액수가 기록된 봉인기표찰이 감쪽같이없어졌더라는것。

이에따라 관할기관인 全南체신청은 지난25일 감사원2명을 현지에급파、사건진상규명에 나섰으나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치못하고 당일 中文우체국숙직원이었던 차석鄭모씨(38)의 책임을물어 증발된 현금5백만원을 변상토록 조치했다。

이같은사실은 鄭씨가 5백만원을 변상하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증발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자신의결백을 주장、뒤늦게 경찰에 신고해옴으로써 밝혀졌다。

그런데 鄭씨는 숙직당일인 23일밤 우체국에서 수납받은 돈을 비롯、西歸浦우체국으로 송금해야할 현금9백만원을 금고에 보관치않고 다음날아침 그대로 행낭에 넣어 송금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1일상오 鄭씨의신고에따라 鄭씨를비롯、현금수송차량의 호송원李영철씨 (25) 운전사 姜정현씨등을 불러 사고경위를 조사하고있다。

횡단歩道서 4명轢死
8명重輕傷 過速버스 急정거못해

1일 상오10시55분께 서울 龍山區南營洞82 남영파출소앞 횡단보도에서 삼각지에서 서울역으로 달리던 유성운수소속 서울5사7729호 시내버스 (운전사鄭口熙·40) 가 횡단보도를 침범、길을건너던 吳세영씨 (55·서울江西區新月洞445의21) 등 4명이 숨지고 李春寶씨 (36·여·서울九老區禿山洞106의17)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시내버스가 과속으로 달리다 갑자기 교통신호가 바뀌어 인도를 침범하는 바람에 일어났다。

사망자는 다음과같다。

▲吳세영씨▲李종길씨(40·전남咸平郡孫佛面大田里45) ▲70~75세 가량의 여자▲35~40세가량의 여자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AVC서 2개分科委長
趙錫來 排協회장 부회장에 被選

대한배구협회 趙錫來회장은 지난 30일 日本도오꾜에서 열린 아시아배구연맹(AVC)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협회 任亨彬국제이사는 AVC의 경기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李康平심판이사와 협회 닥터 宋哲山씨는 심판위원회및 의무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피선됐다。

이로써 한국은 지난77년 당시 대한배구협회 李洛海회장이 AVC부회장에서 물러난후 4년만에 부회장직에 다시 피선됐으며 AVC의 6개분과위원회 가운데서 2개분과위원회 (코치위원회위원장에 朴鎭觀씨유임) 위원장직을 차지하게 됐다。

2백만弗 사건 "우리過失 없다"
아머드社 本社 인터뷰

【로스앤젤레스支社】 2백만달러를 뉴욕 리퍼블릭·내셔널·뱅크로부터 받아 케네디공항의 KAL機까지 운송했던 아머드·익스프레스회사(AEI)는 이번사건과 관련 아무런 실수도 범하지않았다고 30일 본사와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주장했다。

AEI 존·웰워드사장은 이날 『AEI의 보안시설은 완벽하며 지난10년간 현금수송을 둘러싸고 한번도 문제를 일으킨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2백만달러 증발사건후 FBI의 조사도 받았으나 아무런과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오늘 뭘드시겠소?" "모르겠소。하지만 정말 배가고프다구요" "너무 배가 고파서 말이라도 먹은수있어요" "그만해 두십쇼。여기 음식이 말고기보다 나을게 없으니까요"

"전통의 중국음식"
-CATHAY RESTAURANT-
●모든 종류의 해산물 취급
●유명한 중국인류 요리사
●와보시면 압니다.
國泰酒家
10 : 30AM~11 : 00PM(화요일은 문닫음)
475-485 DUNDAS ST. W. 2층
전화 : 368-2671~2
國華酒樓
●술취급 합니다.
10 : 00AM-11 : 00PM(수요일 문닫음)
457-459 DUNDAS ST. W.
전화 : 363-2305~6
(스파다이나×던다스)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 가서임)
*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 주십시오. ☎ : (416) 222-9480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주 내에서 가장 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192 SPADINA AVE. TOR.
☎ : 368-4215. 368-0114

서울식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운전교습

423-3035
(오 행 근)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AUDI
CATCH A RABBIT

CHINA HOUSE
CANTONESE & MANDARIN CUISINE
TWO BANQUET ROOMS
LOCAL DELIVERY AFTER 4.30 PM
AMPLE PARKING
781-9122
925 EGLINTON W.

명료해진 「原三國시대」

慶州 朝陽洞 토광묘·옹관묘發掘 의의

學術

慶州市 朝陽洞 초기 철기시대의 토광묘및 옹관묘발굴은 그동안 신화로 취급, 애매하기만 했던 신라 건국초기의 모습을 살필수 있다는 데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鐵器사용 일반화 된것 밝혀져

″赫居世부터 國家형태〃 뒷받침

◇토광묘에서 나온 「家常富貴鏡」. 日光鏡처럼 前漢시대(BC3세기~1세기)의 것이다.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기원전2세기~기원후3세기)는 原三國시대 또는 金海시대로 불렸으나 그성격은 지금까지 애매모호하기만 했다. 내용도잘 모르고 해서도 구구했다. 原三國시대에 대해서는 일본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이처럼 확실치않아 의문투성이었던 原三國시대가 이번 발굴로 명료해졌다는데 뜻이 있다. 철기유물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은 그당시 철기가 대량생산되어 일반화됐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韓炳三경주박물관장은『철기가 일반화됐던 그사회를 어떻게보아야 하느냐에 이번 발굴의 의의를 찾을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로 사학자들은 신라의 국가형성시기를 金씨의 세습이 시작되는 奈勿王때(4세기중반)로 보았다. 그러나 朝陽洞의 토광묘가 1세기때 축조됐다는 점에서 4세기중반의 국가형성론은 최초의중대한 반론을 만난셈이다. 『이처럼 철기가 일반화됐던 사회가 3백년후에야 국가를 형성했겠느냐』는 점에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세습왕조는 아니더라도 좀더빠른 국가형태가 있었을것이라는점에서 지금까지 신화로 돌려졌던 奈勿王이전시기가 신빙성있게 등장하고있는 것이다.

현장을 다녀온 黃壽永교수(東國大)와 崔淳雨국립박물관장, 金廷鶴교수(慶州國大), 鄭良謨국립박물관학예실장등 모두가 이번 발굴이 신라編年을 살필 중요한자료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유물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뒷면에「見日之光 天下大明」이라 새겨진 日光鏡 3點과 家常富貴鏡 1點등 銅鏡(구리거울) 4點으로 모두 前漢시대(BC3세기~1세기)의 것이다.

日光鏡은 중국의 前漢시대 유적에서 많이 나오고있으며 우리나라 永川魚隱洞 초광분에서도 토광공사를 하다 발견된 일이있다. 한번에 4點이 체계적인 발굴로 출토된 일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지고있다.

金元龍교수(서울大)는『이 거울이 나왔다는 사실은 이 부근의 역사가 BC1세기~AD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수 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BC57년 赫居世를 왕으로 추대했다는 설화속으로 신라의 역사가 거슬러 오른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日光鏡의 출토로 기원전후 1세기란編年의 근거를갖게됐음을 뜻하기도한다.

발굴된 토광묘가 가야의 초기고분처럼 길이 40㎝정도의 大型鐵鋌8枚로 둘러싸여 있고 대형鐵斧3점, 鐵劍2점 銅鏡4점등 수많은 鐵製品과 組合式把手附 長頸壺등 다량의 陶器및 土器品이 부장되어있던 호화판 고분이었다는 점도 관심을 끌고있다.

특히 鐵鋌은 당시 화폐로 통용됐고 鐵劍과 刀子가 漆器로 된 칼집에 들어있는등 1세기 고분으로는 상상할수 없을 만큼 호화스럽다는 점에서 고분의 주인공이 상당한 세력을 모은 그당시 지배층이라는데 추정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추정이 맞는다면 신라건국때 6村長이 赫居世를 왕으로 추대했다는 신라의건국설화가 더욱 실감있게 떠오르게 되고 신라는 이때부터 국가형태를 갖추었다는뒷받침이 된다.

慶州박물관 학술조사단은 이일대 발굴을 연말까지계속할 예정으로있어 기대가모아지고 있지만 이번 발굴에서 前漢시대 銅鏡이 나온배경은 규명해야 할것같다.

중국과의 교류는 알려져있었지만 그 경로는 의문이 많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이번발굴이 설화로흘려졌던 신라初期史를 우리눈앞에 보다 확실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지만 그만큼 학계에 많은 연구과제를 남긴 것이기도하다.

【李炳日기자】

갈수록 「실즈」 旋風

◇野獸像앞에 앉은 브루크·실즈. 그녀는「10대 우상」이란 명성도 얻고 돈방석에 앉았다.

「라이프」誌 세계最高 미인으로 추대

그는 「살아있는 人形」 別名 얻어

인형가게차려 20만개 供給계약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여자는 누구일까. 라이프誌는 12월호 커버스토리로 브루크·실즈를『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추켜세웠다.

브루크·실즈는 아직 17세도 안된 고교생이지만 어머니의 극성보호하에서 미국인이 꿈꾸는 전형적인 두가지 환상을 실현시켰다.

영화배우인 동시에 백만장자인 것이다. 금년에만 美國내 30개잡지의 표지사진으로 등장한 정도로「실즈선풍」을 몰아오고있다.

브루크는「살아있는 인형」으로 불린다. 이런 별명과어울리게 그는 뉴욕 맨해턴에 인형가게를 차렸다. 물론 이 가게의 주인은 브루크의 매니저격 어머니인 테리·실즈。 그는 가게에서 40블록쯤떨어진 아파트에서 인형처럼팬들의 전화와 팬레터에 파묻혀 지낸다. 물론 인형은 실즈를 본떠 만든 것. 내년 3월까지 20만개의 인형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어 돈방석 위에 올라있다.

브루크는 상품모델로도 명성을 얻고있다. 청바지광고, 금언광고는 물론 최근에는 금후 3년동안 여성용 샴푸광고에 출연키로 계약을 맺었다. 브루크는내년에3편의 영화에 출연키로 되어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편당1백만불의 출연료를 요구하고있다.

한술더떠 테리는 실즈의 선풍을 이용해 소녀들의 화장품과 포스터, 의상, 향수, 오린지주스와 카메라등 브루크상표를 붙이는 상품을 제조하는 사업에도 손댈 움직임이다. 더 나아가선 브루크가 21세가 되면「뿌리」작가 알렉스·헤일리에게 부탁하여 브루크의 자서전을 쓰게할 생각을 갖고있다고.

史의 名言

헬렌·켈러 〈1880~1968〉

나는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할수 있다

美國의 女流교육가, 저술가。생후 19개월에 猩紅熱을앓아 盲聾啞를 겪게됐다。8세가 되어 읽기 쓰기 말하기를 익힌후 大學卒業。맹농아의교육과 사회시설개선을위해 힘씀。數개國語에 능통했다。「나의生涯」「信念을가지라」。

나는 마음속에 눈과 귀 입이있어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할수 있다。

× × ×

인간최악의 비극인 장님 벙어리 귀머거리의 三重苦를 이겨내고 가장많은 사람들의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신체장애자를 위해 일생을 바친 헬렌·켈러(Keller Helen)女史。

그녀는 결정적 신체장애로 처음8년간은 거의 동물과같은 생활을 했으나 강한 의지와 피눈물나는 노력으로 不幸을 딛고 일어서서 문필가로,사회사업가로 활약하면서 자기와같은 처지의 수백만 불구자에게 勇氣와 빛을 주기위해 세계수십개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는등 도처에 그녀의 人道主義的 정신을 심었다。 마크·트웨인은 『19세기에 두명의 偉人이 나왔다。한 사람은 武力으로 세계정복을 꾀하다 실패한 나폴레옹이며, 또 한 사람은 헬렌·켈러다』고까지 찬양했다。

女史가 인간으로서의 가장무서운 고통을 극복,빛을되찾고 聖女로 자라나기까지는 그녀를도운 수많은 주위의 따뜻한 손길과 앤·설리번女史의 헌신적인 노력의 덕이 컸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했던것은 女史자신의 빛과 웃음을 잃지않겠다는 삶의 意志와 勇氣, 그리고 자기처럼 불행한 사람들에게 光明을 안겨주도록 산教訓이 돼보겠다는 거룩한 자세였다。

그녀는 1937년과 48년 두차례에 걸쳐 한국을 다녀갔다。

『여러분이 가진 램프의 빛을 더높이 처들어 눈먼 사람들을 비춰주시오。

눈을 잃고 귀를 잃은 사람들에 삶의 기쁨을 안겨주시오』이렇게 청중들에 호소하며 불구의 老軀를 이끌던 켈러。그녀가 높이든 사랑의 등불은 영원토록 사람들위에 빛날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뿐 아니라 영원히 살게된다는것을 믿으며 忍耐와 信仰으로 살아왔다』『차라리 못보고 못듣고 말하지 못하기에 남들보다 근심걱정이 적고 참기가 쉽다』『사람은 하려고하면 못하는것이 없다。모든것을 다 할수있다』

한국일보 詩壇

山鄕歌·Ⅱ

金海星

가랑잎 어지러이 덮이는
立冬지난 「松湫」 산골인데
山心·地心·天心을 닮던
옛 충신들 혼이 잠든 마을이여。

순박하게, 정직하게, 착하게만
십대를 살아 온, 이 마을 사람들
金씨네, 李씨네, 羅씨네
다정한 열한집의 情話소리네

대대로 가난을 벗하여
논밭 이랑의 흙길 따라
땀 젖은 옷자락 흐른 사람들
오늘도 오곡을 가꾸며 산다。

손톱이 닳도록
땅을 파고 흙을 갈아
발톱이 찢기 도록
깊고 높은 山을 타며 살았는데

칡뿌리를 캐먹고
산열매를 따 먹으며
가난하게 살아온 어제를 잊고
오늘을 잘 사는 내 兄弟들인가。

五峯山과 영일산과 삿갓봉에
立冬지난 노을이 곱게 타면
고되게 살았던 어제의 아픔도
후손의 행복한 喜悅의 바탕이여。

아시안게임등 10개 競技

籠球協 내년國際경기일정 확정

농구협회는 30일 오는82년의 국제경기대회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現代남자팀이 내년1월하순 뉴질랜드와 濠洲에 원정하는것을시발로 11월의 아시안 게임까지 10개의 국제경기가 열려 예년에 비해 많은 농구국제교류가 이루어진다.

여자대표팀은 82년4월하순 日本도오쿄(東京)에서 열리는 제9회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뒤 6월초순부터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를 차례로 원정하게 된다.

▲82년도 농구국제경기일정

▲現代팀 뉴질랜드 濠洲원정(1월21~2월1일)

▲濠洲및 인도네시아 여자팀초청경기(2월)

▲쿠웨이트국경일초청대회(2월17~27일)

▲제1회 아시아 도시대항대회(2월26~3월4일·홍콩)

▲제9회 아시아 여자농구선수권대회(4월27~5월5일·日本東京)

▲제6회 존스컵쟁탈 국제남녀농구대회(5월15~6월15일·自由中國 臺北)

▲국제농구연맹(FIBA)창설 50주년기념농구대회(6월18일·스위스)=韓國여자대표팀 참가

▲제9회 아시안게임(11월19~12월4일·印度뉴델리)

82년 월드·컵 대비 FIFA, 심판敎育

【취리히(스위스)30일AP=聯】국제축구연맹(FIFA)은 30일 오는82년 스페인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선수권대회에 가담할 국제심판들을 대회개막전에 마드리드에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IFA심판위원회는 이심판들이 심판유니폼을 입고 경기규칙 심판으로서의 판정상의 문제점등에관해 교육을 받게 될것이라고 말하고 교육기간은 3~4일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82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기용될 심판들은 내년2월 FIFA심판위원회에 의해 선정된다.

記者의 눈

未來戰爭게임 禁止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우주침략군의 비행접시부대가 레이저빔을 발사하며 지구를 습격해온다.

이에맞서 지구방위군은 지상기지에서 레이저빔을 발사, 적기를 요격한다.

적기가 하나씩 레이저빔에 명중될때마다 요란한 폭발음이 터져나온다.

未來戰의 주역을 맡은 레이저빔 우주전쟁은 오락화하여 전세계 어린이들은 물론 성인들에게까지 대유행을 불러일으킨 전자오락기 스페이스·인베이더。바로 이 놀이가 요즘 필리핀에서 된서리를 맞고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주 스페이스·인베이더게임 전면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벌금 6백25달러(약44만원)에서부터 최고 12년징역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스페이스·인베이더가 과연 청소년에게 유익한것이냐 해로운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한국에서도 한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찬성하는 쪽은 스페이스·인베이더가 건전한 두뇌스포츠로 스트레스해소등 정신건강에 유익하다는 주장이고 반대의견은 청소년들의 낭비와 오락성만을 조장해 비교육적이라는 주장였다。

필리핀에서 스페이스·인베이더에 대한 초강경금지조치가 취해진 것도 어린이들이 여기에 홀딱빠져 수업을 빼먹기가 일쑤며 게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르는 일이 많다는 시민단체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

대통령궁 대변인은『이 악마같은 발명품이 청소년들의 도덕심과 기율확립을 저해하고있다』고 금지이유를 밝혔다。

스페이스·인베이더가 그동안 필리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큰 해독을 끼쳤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이만한 일에까지 대통령이 특별명령을 내려야 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끼게된다。

【朴永麟기자·外信部】

流星의 賊 〈249〉

李炳注作　李友範畵

悲傷異國月 ⑮

이튿날 좌수포를 떠나 20리쯤에서 삼포(參浦)를 지났다. 가서(加西)의 해안에 촌락이 지어 서 있는 것이 구경되어 아름다운 아가씨 같았다. 그 물결에 부딪지는 이 삼포는 사당이 있었다. 만일 그곳에 말려들기만 하면 배는 일순에 전복하고 파괴되는 것인데 악포란 이름도 그 때문에 지어진 것이라고 한다.

각선은 돛을 내리고 물을 멀리 피하며 조심 조심 저어갔다. 그날밤은 좌포(左浦)에서 정박하기로 했다.

좌포는 좌산(左山) 아래에 있다. 좌수포에 비하면 전체한 맛은 덜하지만 상쾌한 맛은 훨씬 더 있다. 만산(滿山)이 창송(蒼松)과 동백(冬柏)이며 해변은 명사(明沙)와 서초(瑞草)에 덮여있다.

해가 질 무렵 사신들은 배를 내려 바위 위에 멍석을 깔고 앉았다. 악공(樂工)들에게 주악(奏樂)을 명하고 관동들에게 비단 옷을 입혀 춤을 추게했다. 왜인들이 둘러서서 구경했다.

홍계남은 그 자리를 잠시 떠나 근처를 산책했다. 민가는 십여호 전답은 밭과 수전보, 담배가 심어져 있었고 누렇게 보리가 익어 있었다.

이튿날 새벽에 기동, 5리 지어 출발했다. 30리쯤가니 서박포(西泊浦)가 나왔다. 이날은 서박포의 서복사(西福寺)에서 자기로 했다.

서박포는 부악산(富岳山) 아래에 있다. 산은 높고 수려한데 동서북 3면은 낮은 구릉(丘陵)으로, 서박포를 안은 형태로 되어있다. 물은 맑아 거울과 같다. 그 너비는 좌수포의 거의 3배, 아늑한 호수(湖水)와도 같다. 갈대지붕의 민가가 수십호, 구름 이곳 저곳에 산재해 있는데 주민들은 초라하고 지친 표정이다. 물 긷고있는 여자들은 두 무개에 물을 담아 어깨에 메었다. 잡색의 옷, 얼굴빛은 희었다.

서복사는 산 허리에 있었다. 울창한 숲 속에 호젓이 서 있는 절의 양식은 민가와 마찬가지로 호사스러운데란 전혀 없다. 서쪽에 암자가 있어 거기 불상이 안치되어 있었다.

홍계남은 한나절 동안 이곳저곳을 걸었다. 경치는 실로 절경(絶景)이라고 할만 했다. 가는 곳 마다에 비파와 동백이 울창한 그늘을 이루고 있었다.

하루를 그 곳에서 쉬고 다시 출발하여 저녁에 금포(錦浦)에 도착, 해상에서 잤다. 그 이튿날은 선두항(船頭港)。

선두항을 출발한 것은 5월5일。

노행(路行)하길 반나절, 같이 타고 있던 왜인이 동쪽으로 보이는 울창한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이 대마도의 부중(府中)입니다。도주(島主)가 계시는 곳이죠』

산의 모습이 수려했다。

왜인의 말을 역관이 통역했다。

『저기 보이는 곳이 도주의 별저(別邸)이며 신사(神社)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백벽(白壁)이 인상적이었다。

『저건 해문사(海門寺)라고 한답니다』

하고 역관이 일각을 가리키는데 사원(寺院)과 민가가 울창한 숲 속에 은현(隱現)하는 것이 한폭의 그림을 닮아 있었다。

『경치가 아름답군요』

홍계남 옆에 와 서면서 차천락이 한 말이었다。계남도 동감이었다。

『불사약(不死藥)이 있을 것이라고 서복(徐福)이 믿었다지만 경치 하나는 그저 그만입니다』

■送年女流短篇

내 밭에 등불 〈8〉

梁貴子 作　金光培 畵

또 눈이 내렸다。

아침에 문득 방문을 열었더니 회색빛의 어두운 세상이 단박에 흰빛으로 변해서 의기양양하게 반짝이고 있었다。숨이 막히도록 완벽한 설경이었다。저 멀리 허공에 괴물처럼 버티고 있는 고층건물 대신, 눈쌓인 소나무라도 몇그루 보였다면 더 할나위없이 완전한 모습일텐데。세상은 눈속에 다소곳하게 엎드려 있었다。

하늘은 두터운 솜이불이 되어 포근하게 거기에 있었다。쪽마루 위까지 수북하게 쌓인 눈을 슬쩍 쓰다듬으면서 나는 씩 웃었다。

이 나이가 되었어도 눈을 보고 기뻐할줄 아는 순수가 남아있다니。텁부섬이 아래턱을 문지르면서 대견한 마음에 다시 씩 웃었다。

아마 그녀가 올 것이었다。이 눈을 밟고 그녀가 올 것이었다。밤。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갈채〉에서 어슬렁거리며 돌아와선 한낮이 기울도록 자다보면 방문을 똑똑 두들기는 승희였다。이것 봐。바쥐 인생이에요? 아유 저 한잠。희고 깨끗한 손가락으로 내 방을 톡 찌르던 여자。

『눈때문에 버스가 기어왔어요』

과연 그녀는 눈사람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다。길다란 속눈썹 위에서 눈은 구슬처럼 반짝였다。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앉아서 우리는 오랫동안 바깥을 내다보았다。그녀의 달콤한 숨소리가 내 어깨에서부터 다소곳이 올라왔다。

그때 그녀가 말했다。오늘부터 시간이 없어요。나타자도 배우고 양재도 배우러 학원엘 가요。

나는 흰눈이 주는 들뜬 기분을 쉽게 팽개칠 수 없었다。걱정마。결혼해서 승희 굶길 남자는 아니니까。

승희의 고개가 아래로 숙여졌다。나는 의미없이 기타줄을 딩동거리다가 그녀의 숙인 이마의 아름다운 곡선을 보았다。

『승희』

『……』

『우린, 지금 무엇이야?』

그녀의 이마가 조금 흔들렸다。무심히 내다본 밖에선 눈도 그처럼 흔들리며 쏟아지고 있었다。갑자기 답답한 침묵이 덮쳐왔다。

바로 아까까지만 해도 눈때문에 얼마나 포근해 있었던가。따뜻한 방안에서 기타소리를 내가며 눈을 완상할 수 있는 이 겨울이라니。그러나 저처럼 완고하게 숙인 그녀의 이마는 무슨 뜻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래。학원에 나갈 계획이면 그렇게 해』

이번엔 승희가 나를 말끄러미 올려다 보았다。

『대신 조건이 있어。전화번호라도 알려줘』

다시 그녀의 고개가 아래로 떨구어졌다。

『그냥, 알고만 있을께。약속이야。그냥 외어두기만 할께』

『……』

다시 둘 사이로 안개처럼 침묵이 피어올랐다。새삼 엄습해오는 추위가 낯설었다。더 이상은 침묵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 내가 난폭하게 기타를 잡아당겼다。그리곤 눈을 감았다。갈라지고 흉측한 목소리로 나는 노래를 불렀다。

배애애가이있었네。자악은 배애가 이있었네。아주 자악은 배애애가 이있었네。

그녀가 일어나 나가는 기척이 들렸다。그래도 나는 눈을 감고 노래를 계속 불렀다。

얼마후 내가 눈을 떴을 때, 내 무릎위엔 일곱개의 아라비아 숫자가 정답게도 란거리고 있는 작은 쪽지가 놓여있었다。

대한항공이 더욱 편리해졌읍니다

한국으로 가실때에는 뉴욕에서 매주 3회, L.A.에서 매주 10회 출발하는 대한항공의 점보기 편을 이용 하시면 아주 편리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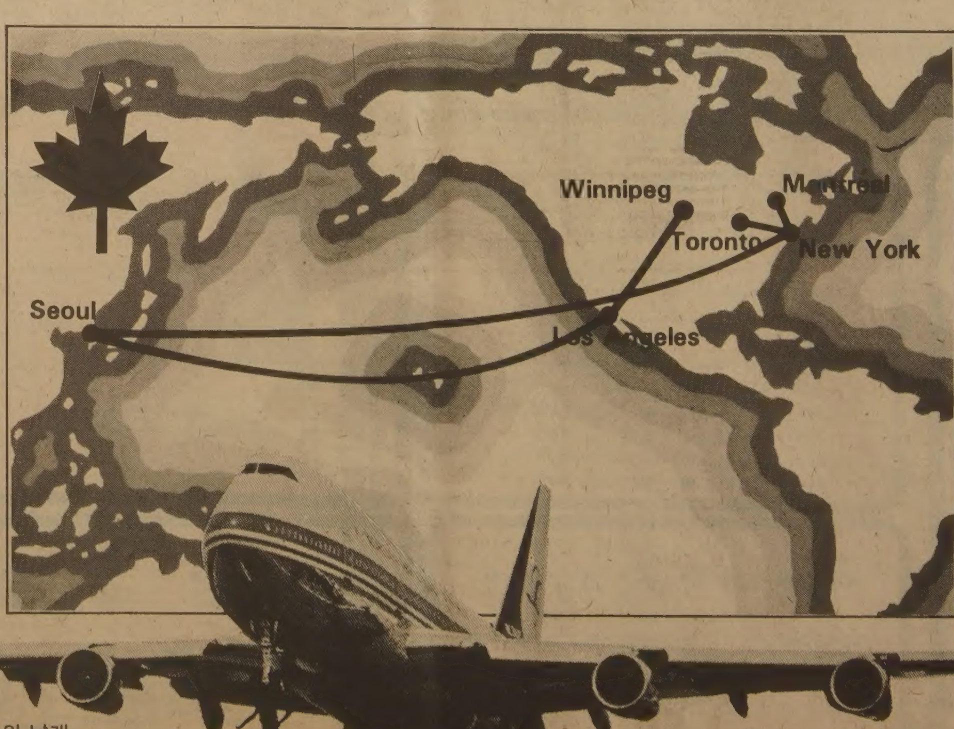
대한항공 007편은 뉴욕의 JFK공항을 화·목·일요일 밤 11시30분에 그리고 015와 005편은 로스앤젤리스에서 매 일(월요일 제외) 밤에 한국으로 출발함으로 카나다 어느 도시에서 떠나셔도 당일로 연결됩니다.

뉴욕까지의 연결편이상 부득이 뉴욕의 LAGUARDIA 공항과 JFK 공항간을 원하시는대로 헬리콥터 편을 이용 무료로 연결시켜 드립니다.

또한 한국에서 돌아오실 때에도 논스톱 특급편을 이용하실 수 있어 더욱 편리 합니다.

뉴욕편을 이용하실 경우엔 뉴욕에서의 호텔 1박을 무료제공, 다음날 아침 카나다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연결해 드리고 있읍니다.

언어의 불편없이 정성껏 모시는 대한항공편은 오시다 뉴욕이나 L.A.의 친지를 만나 보실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카나다→뉴욕→서울		카나다→L.A.→서울	
	토론토	몬트리얼	위니펙	토론토
출발	18:40	19:15	13:30	17:45
	AC778	EA421	AC763	AC793
도착	20:00 LAG	20:22 LAG	17:41	19:50
	뉴욕		로스앤젤리스	
출발	23:30 JFK		22:40	20:50
	KE007 화·목·일		KE015 화·수·금·토	KE005 목·일
도착	07:10+2		07:20+2	07:30+2
	서울		서울	
출발	19:00		20:40	
	KE008 화·목·일		KE012 (KE006) 매일	
도착	21:10		18:55	
	뉴 JFK 욕		로스앤젤리스	
출발	09:10+1 LAG	09:55 LAG	07:45+1	00:32 / 08:16
	AA263	AC743	AC764	AA196 (CHI) AA160 / AC790
도착	10:44	11:15	15:21	09:13 / 15:40
	토론토	몬트리얼	위니펙	토론토
	서울→뉴욕→카나다		서울→L.A.→카나다	

KE:Korean Air Lines　AA:American Airlines　AC:Air Canada
EA : EASTERN AIRLINES

정성껏 봉사하는 겨레의 날개

KAL 大韓航空

대한항공 TORONTO 영업소
390 BAY ST., SUITE 402•TORONTO
(416) 862-8250
(800) 268-9431 (QUEBEC)

지정여행사
한국여행사 531-4607
신세계여행사 536-2155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潤相군 體育教師가 죽였다

토막난 暗葬시체 發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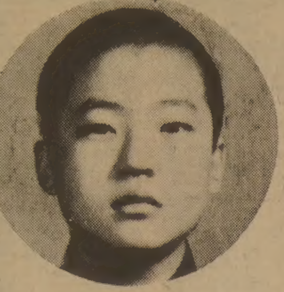
北漢江서

노름빚 갚으려 농락한 두女高生꾀어 共謀

犯行위해 아파트傳貰…誘拐한 다음날 죽여

京西中교사 朱永炯 1년18일만에 自白

누나娟受양 誘拐미수도



○殺害된 潤相군

李潤相군(유괴당시 京西中1년·14세) 유괴살해범은 潤相군이 다니던학교 체육교사 朱永炯교사(28·서울永登浦區新吉洞448의23)였다。潤相군유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麻浦경찰서는 30일 주범朱교사와 朱교사의 제자였던 공범 李모양(17·서울Y여고2학년)과 高모양(17·서울D여고3학년)등 3명을 범인으로 검거、미성년자약취유인、살인、시체유기등 혐의로 구속했다。범인 朱교사는 포커노름등으로 진빚 1천여만원을 갚기위해 제자이며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여고생들을 범행에 가담시켰다면서 범행전모를 자백했다。경찰은 朱교사등의 자백에 따라 이날 潤相군을 살해 암매장했다는 경기 加平郡 外西面 大成1里 북한강변에서 潤相군의 토막시체를 찾았다。이로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潤相군 유괴사건은 사건발생 1년18일만에 해결됐다。한편 경찰은 이들이 潤相군 유괴에 앞서 누나 娟受양(15·당시 서울女中3년)도 유괴하려다 실패했던사실도 밝혀졌다。

유괴

주범 朱교사는 포커도박을 즐겨했다가 진빚 1천여만원을 갚기위해 범행을 결심했다。朱교사는 혼자서 범행에 성공할수없자 제자였던 공범 李양과 高양등을 끌어들여 부유층학생을 유인、금품을 뜯어내기로 계획했다。朱교사는 대상을 물색하던중 80년10월초 자기가 근무하는 京西中교무실에서 부유층자녀로 알고있던 京西中1년3반 李潤相군의 가정환경조사서에의해 潤相군 집주소와 가족상황및 潤相군의 누나 李娟受양이 다니는학교와 학년 반을 확인했다。朱교사는 80년 10월12일 하오7시께 서울 永登浦區新吉洞 宇進아파트6동 308호에서 娟受양을 宇進아파트로 꾀어내기로 공범李양과 서로 짠뒤 그해 10월13일하오4시께 李양으로하여금 娟受양이 다니는 서울女中에찾아가 娟受양을 宇進아파트까지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朱교사는 다시 潤相군을유괴하기로 결심하고 80년11월13일하오 5시20분께 학교교무실에 학급일지를들고 들어온 潤相군에게 그날하오4시반에 麻浦區龍江洞 마포고교앞길에서 교외상담을 하자고 꾀어낸다음 宇進아파트로 유인했다。朱교사는 번호를 알수없는 택시에 潤相군을 태워 아파트안방으로끌고갔는데이때潤相군이 『娟受누나를 유인하려한것도 선생님이냐』고 항의하며 소리치자 朱교사는 潤相군의 두손발을 미리준비해둔 명주실노끈(직경0.5㎝、길이30㎝)으로 결박하여 벽에 꽂힌 못에 묶어놓고 潤相군에게 『이문을 열면 저는 죽어요』라는 말을 하게하여 그목소리를 녹음기에 녹음한다음 아파트방문을 밖에서 걸어잠궈 감금했다。朱교사는 이날 하오8시께 宇進아파트공중전화를 이용、潤相군집에 전화를걸어 潤相군어머니 金海慶씨(43)에게 『당신아들을 水原에 감금했다。우리는 전과자인데 모두 4명이다。日本으로 밀항코자하는데 돈이 필요하다。현금4천만원을 준비하라。경찰에 신고하면 당신아들을 죽이겠다』는 등으로 두차례에 걸쳐 협박、금품을 요구했다。또 이날밤11시께 潤相군 집으로 전화를 걸어 潤相군의 아버지 李貞植씨(43)에게 『나는 너때문에 망한사람중의 하나이다。潤相이는 水原에 감금했다。현금 4천만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하자 아버지 李씨는 『불경기에 4천만원은 준비할수없고 2천만원은 준비할수있다』고 대답하자 『내일12시에 전화하겠으니 그때 시키는대로 하라』고 협박했다。

살해유기

朱교사는 다음날인 14일 상오6시께 潤相군이 감금돼있는 宇進아파트에 들러 묶여있는 潤相군의 두손발을 명주노끈으로 다시 묶고 입을 반창고로 막아 소리치지못하게한뒤 모포로 얼굴을덮어씌워놓고방문을밖에서 잠궈 사망케했다。朱교사는 다음날인 15일 상오7시께 학교출근길에 다시 宇進아파트에 들러 潤相군이 살아있음을 보고 출근했다가 이날 하오2시께 돌아와 보니 숨져 있더라는것。朱교사는 이날하오 4시47분께 공범李양으로하여금 아파트앞 공중전화를 이용、潤相군집으로 전화를 걸어 『潤相이는 잘있다。편지를보내겠는데 편지대로하라』고 협박케 했다。朱교사는 潤相군시체를 처분하지못한채 보름동안 아파트에 놔뒀다가 11월30일하오7시께 李양과함께 潤相군의 사체를 큰가방에넣어 PVC물통에 다시넣은뒤 번호를알수없는 용달차를불러 경기加平郡外西面大成1里한얼산기도원입구국도에서 내려 강변에 암매장했다。

협박편지·전화

朱교사는 11월16일 낮12시께 宇進아파트에서 潤相군 아버지에게 발신인의 이름없이 보낸 편지를 공범 李양으로하여금 자기가 부르는대로 쓰게했는데 그편지에서 『潤相이는 잘있다。경찰에 신고치않는다면 죽이지않겠다。80년11월20일 하오7시까지 鍾路2街 고려당빵집으로 娟受에게 가방을 보내라』는등의 협박내용을 쓰고 공범李양으로하여금 水原역전 우체통에 넣어 潤相군 아버지 李貞植씨에게 우송케하는등 81년 4월6일까지 潤相군 집으로 6차례에 걸친 협박편지와 62차례에 걸친 협박전화로 금품을 요구했다。

어린弟子죽인「얼굴」

○범행을자백하면서 괴로운표정을짓는체육교사朱永炯。제자를 살해한 어처구니없는 범행에대해 저승에가서라도 사죄하겠다고 참회했다。

"誘拐다음날 潤相군집들러 빨리申告하라"능청

犯人과 一問一答

屍體 15일간 아파트에…李양이 용달차로 싣고가

"暗葬장소 北漢江 사전現地답사…죄짓고는 못산다는것을 알게됐다"

―왜 죽였나。

▲죽이려고 한것은아니다。납치 이틀후인 지난해11월15일 상오7시께 보니 潤相이가 축 늘어져 있었고 하오2시께 귀가했을때죽어있었다。

―娟受양 납치기도 경위는。

▲빚을 갚기위해 돈이 많아 보이는 潤相군집을 택했다。娟受양이 다니는 서울여중과 곁에있는 서문여고엔 나의여중 출신들이 많아 얼굴을 알것같아 李양을 보냈다。

―潤相이 납치상황은。

▲지난해 11월13일 하오3시20분께 교외상담을 이유로 만나자고한뒤 어머니에겐 말하지 말라고 이르고 하오4시37분 潤相군을 만나 바로 택시에 태워 아파트에 데리고 갔다。차속에서 『娟受는 잘있느냐』고 묻어 潤相이가 의심하는 눈치였고 우진아파트로 데리고 가자 潤相군이 『경찰·학교에 고발하겠다』고 소리쳐 손발을 묶었다。녹음을 한뒤 재갈을 물려 모포로덮어놓고 알리바이를 만들기위해 하오5시50분 慶熙大대학원에 다녀왔으며 하오7시25분 돌아와 『아저씨 하라는대로 하세요』라는 내용의 첫협박전화를 걸었다。밤11시께 2차협박전화를 하고 新吉洞448의23 집에 가니 아내가 『潤相이 어머니가 다녀갔다』고 말했다。아찔해져 다음날 潤相이집에 찾아가 『빨리 신고하라』고 말하고 왔다。

―사체유기경위는。

▲납치15일만인 지난해 11월28일 수영지도때문에 가본적있는 大成里현장을 李양과 함께 시외버스를 타고가 현장답사한뒤 30일 李양은 潤相군 시체가 담긴 PVC통과함께 아파트앞을 지나가는 용달차에 태워보내고 나는택시를 타고 뒤따라갔다。밤9시10분께 도착、용달차 운전사를 2만원주고 돌려 보낸뒤 가로3m 세로3m 깊이1·5m의 ㄷ자형 2인용에 묻은뒤 덤불과 모래 돌등으로 덮어 위장했다。

―그동안의 경찰조사는。

▲1개월에 1~2번씩 경찰에 불려다녀 늘 불안했다。麻浦근처에 친척이있어 알리바이를 조작하려했으나 실패했다。용의자로 지목돼 늘 불안했기때문에 『자신을 범인으로 몰면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대통령앞으로 보내는 유서」를 항상 지니고 다녔다。그러다 지난27일 하오3시30분 경찰에 연행된것이다。

―여학생과 관계는。

▲高·李양이외에 80, 81년 졸업생등 모두 8명의 여학생과 정을 통했다。지난해 5월에는 洪모양이 학교로 찾아와 교육구청에 高양과의 사이를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서랍에 넣고가 무마조로 2만원을 준적도 있다。

―노름은 주로 어디서 누구와 했나。

▲西大門區延禧洞에 있는 개인사업을 하는 대학동창생집에서 대학동창들과 포커를 했는데 하루저녁 20~30만원씩 잃어 3~4백만원의 빚이 있었다。

―대통령이 자수를 권유하기도 했는데。

▲교직에있어 다른사람에게 누를끼칠까봐 차마자수하지 못했다。

―그동안 자살은 기도했다는데―。

▲농약을 준비하는등 2번 기도했다。

―지금 심경은。

▲입이 열이라도 할말이 없다。죄짓고는 못산다는 것을 알게됐다。저승에가서 潤相이에게 백배사죄하겠다。그리고 高양은 죄가없다。高양은 水原서보낸 6차편지는 써준것뿐 내가 범인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京西中 校長사표

당시校監도、教育區廳長 職位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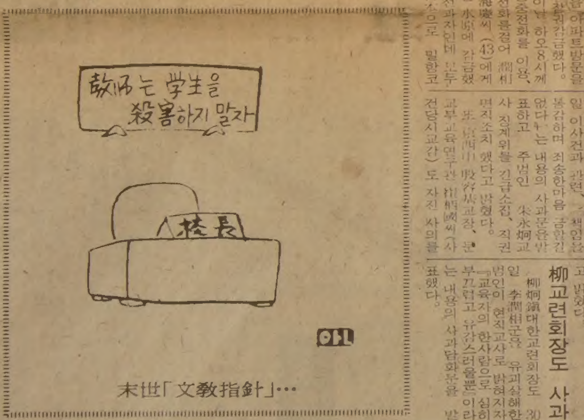
具教育監 謝過文

具本錫서울시교육감은 30일 이사건과 관련、「책임을 통감하며 죄송한마음 금할길 없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주범인 朱永炯교사 징계위를 긴급소집、직권면직조치 했다고 밝혔다。또 京西中 朴松植교장、문교부교육연구관 指柄國씨(사건당시교감)도 자진 사의를 표명、이날자로 사표가 수리됐으며 具典會 서부교육구청장은 이날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柳교련회장도 사과

柳炯鎭대한교련회장도 30일 李潤相군을 유괴살해한 범인이 현직교사로 밝혀지자 「교육자의 한사람으로 심히 부끄럽고 유감스러울뿐」이라는 내용의 사과담화문을 발표했다。

社會漫評



末世「文教指針」…

地平線

19세기후반「우물안 개구리」가 바깥세상을 보고 놀란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閔泳翊이 보빙사로 미국을 돌아보고 왔을때의 보고는 1백년전 우물안 개구리가 겨우 눈을뜨는 과정을 보여주고있다。

『전하、저들의 대궐은 민가보다도 작더이다』―閔泳翊은 워싱턴에있는 백악관이 백성들의 빌딩보다 작다는 것을 아무래도 이해할수 없었던 것이다。▼일본의 포함에 놀려 개국한뒤 세상에 뛰쳐나간 이땅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富國強兵을 꿈꾸는 나라 사람들이었다。[illegible]

安益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그가 애국가의 작곡자이기 때문이다。애국가는 그가 미국에 있었던 시절、1936년에 작곡을 끝냈다고 전해지고있다。이것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 사이에서 불려지고、해방후 공식적으로 햇빛을 보게된 것이었다。59년 독립한 고국에서 그가 문화포장을 받은 것도 바로 그때문이다。▼조국에 돌아와 발을 붙이려고 했던 安益泰는 국제음악제를 조직해서 이땅의 음악계가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도록 하는 첫 기틀을 잡았다。그러나 그를 받아들이기에는 국내의 토양은 그렇게 간단하지 아니했다。애국가의 작곡자이기 전에 당당한 유럽의 음악인이었던 그도 결국 스페인에서 숨을 거둘수밖에 없었던것이다。한국최초의 국제적 음악가가 눈을 감은 것은 65년이었다。▼安益泰씨의 미망인 롤리타여사가 남편의 나라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밝히고있다。그는 집한채 없이 독립유공자의 연금도 못받고 어렵게 살고있다한다。한국적을 갖고있어 취직도 못하고있는 막내딸은 아버지나라에서 연극을 한다는게 소원이라고 한다。그를 추모하는 행사도 좋지만 어려운처지에 있는 유가족을 돕는것도 중요하다。미망인과 막내딸의 소망을 저버리지않도록 관계당국과 문화계의 협동이 요청된다。

年末 사랑의 손길 펴기 運動

한국일보社는 韓國新聞協會 決定에 따라 年末 사랑의 손길펴기 運動을 오늘부터 展開합니다。70年代 우리 經濟의 전반적인 成長에도 불구하고 우리주변에는 아직도 同胞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불우한 이웃들이 적지않습니다。그동안 온갖 試鍊을 극복하면서 80年代 福祉社會建設을 위해 國民的 團合을 과시한 우리들은 이제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는 일에도 적극 협력하여 동포를 돕는 美德을 다시한번 다져야 하겠읍니다。우리 모두 불우한 이웃에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폅시다。

▲募金期間: 12月1日~31日
▲보낼 곳: 한국일보社 편집서무(전화㉒4171)및 각支社

1981年12月1日
韓國新聞協會
한국일보社

社告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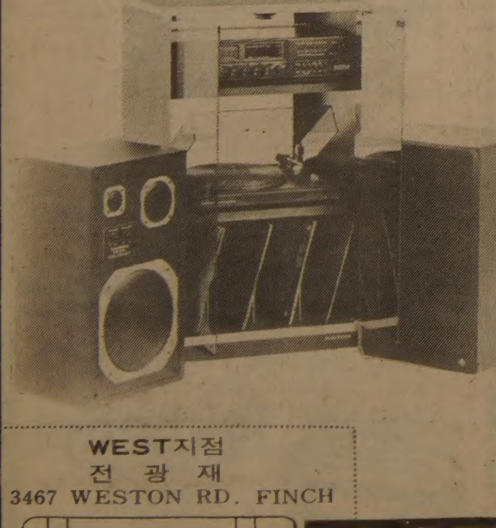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서울 여행사
IATA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최동주

TELEFUNK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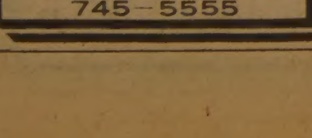
⊙HR5500 RECEIVER
2X60 WATTS RMS
POWER BANDWIDTH
5-50,000H
⊙DIRECT DRIVE
TURNTABLE
⊙HICOM CASSTE
DECK
⊙2X90 WATTS 3WAY
SPEAKERS

SPECIAL SALE
특별할인

FEATURES
BRAUN P-1 TURNTABLE : Quartz Lock Direct Drive Fully Automatic, With Low Mass Tone Arm and Brauh Magnetic Cartridge
BRAUN T-1 TUNER : Digital Quartz Lock With 9 Presets, Pll Mosfet Front end. AM-FM-LW.
BRAUN AMPLIFIER : Low Distortion DC. Amplifier. 55 Watts Per Channel. Led Output Levels.
BRAUN C-1 CASSETTE DECK : 3 Motor, All Solenoid, With Convenient Motorized Cassette Drawer. Metal Tape Capability
BRAUN L-1030/4TC : 3 way Speakers With 110 Watts Handling Capa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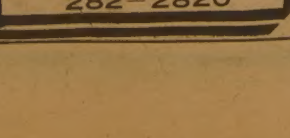
Pure design, Pure Sound··· Pure Braun
BRAUN
※81년도 유럽 전기제품 디자인상 수상

WEST지점
전광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EAST지점,
김정운, 전병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아카데미 T.V.& STEREO CO.

日 새外相 싸꾸라우찌

內閣개편 幹事長엔 니까이도

行·財政개혁계속推進

침체 韓·日경협문제 好轉가능

【東京30日=宋李彬특파원】스즈끼(鈴木) 일본수상은30일 집권自民黨의 黨3役과21명의 내각을 개편했다. 이번 스즈끼내각의 제2차개각에서 초점이되었던 외상에는 자민당간사장인 사꾸라우찌·요시오(櫻內義雄)씨가、통산상에는 黨정조회장인 아베·신따로(安倍晋太郎)씨가기용돼 한일관계와 한미관계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사꾸라우찌외상은 빠르면 연내에 韓日외상회담을 가져 교착상태에 빠진 韓日경협문제를 타결하고 내년초에韓日정상회담을 가질것이라고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사꾸라우찌 신임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韓日、韓美우호증진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특히 한국과의 관계개선은 국민적기반위에서 우호증진을 위해 가일층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꾸라우찌外相

◇日本새내각名單

	이 름	派 閥
外務	사꾸라우찌·요시오(櫻內義雄·69)	中曾根
法務	사까다·미찌다(坂田道太·64)	無
大藏	와따나베·미찌오(渡邊美智雄·57) 留任	無
文部	오가와·헤이지(小川平二·71)	鈴木
厚生	모리시따·모또하루(森下元晴·59)	中曾根
農水	다자와·기찌로(田澤吉郎·63)	鈴木
通産	아베·신따로(安倍晋太郎·57)	福田
運輸	고자까·도꾸사부로(小坂德三郎·65)	田中
郵政	미노와·노보루(箕輪登·57)	田中(參)
勞動	하쓰무라·다쓰이찌로(初村瀧一郎·67)	河本(參)
建設	시세끼·이헤이(始關伊平·73)	福田
自治	세꼬오·마사다까(世耕政隆·58)	福田(參)
官房	미야자와·기이찌(宮澤喜一·60) 留任	鈴木
總務	다나베·구니오(田邊國男·67)	福田
行管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曾根康弘·64) 留任	中曾根
防衛	이또·소이찌로(伊藤宗一郎·57)	河本
經企	고모또·도시오(河本敏夫·70) 留任	河本
科技	나까가와·이찌로(中川一郎·56) 留任	中川
環境	하라·분베에(原文兵衛·68)	福田(參)
國土	마쓰노·유끼야스(松野幸泰·72)	田中
法制	쓰노다·레이지로(角田禮次郎·60)	無(官僚)

◇집권自民黨3役名單

幹事長	니까이도·스스무(二階堂進·70)	田中
總務會長	다나까·다쓰오(田中龍夫·70)	福田
政調會長	다나까·로꾸스께(田中六助·58)	鈴木

中共、中東시장進出
建設人力 공급重點 英誌보도

【매나마(바레인)29日=聯】중공은 거액의 계약시장인 中東에 비록 뒤늦게 뛰어들긴 했으나 이시장에 전도유망한 진출을 시작했다고 런던의 경제주간 미들 이스트誌가 지적했다.

이 잡지는 29일 발간된 최신호에서 중공이 지난 76년이후 건설사업 기술용역및인력공급등의 분야에서 2백82건에 총4억6천만달러의 해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이계약의대부분은 이라크、北예멘및 알제리등 수익이 높은 지역인 中東국가와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잡지는 中共이 또 리비아와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아랍 에미리트연합(UAE)은 처음으로 중공의 석유저장소건설사업 참여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중공의 노동자및 기술자수는 약1만3천명이라고 말했다.

스즈끼首相 黨改編·改閣의 背景

各파벌 全員참가한 按配

河本·中曾根 內閣에 묶어 再選기틀

스즈끼(鈴木)수상이 30일 단행한 黨개편과 개각은 일본 자민당의 파벌정치를 그대로 반영한「안배개각」이었다.

「和의정치」를 내세운 스즈끼수상은 내년께있을 당총재재선의기틀을닦기위해 스즈끼、다나까(田中)、후꾸다(福田)등 3대파벌의 균형위에서 정권의안정을 잡고、스즈끼이후의 수상자리를노리는 고모또(河本)、나까소네(中曾根)등 라이벌을 계속 내각에묶어 둠으로써 재선의 틀을 잡았다。

이번 개각의특징은 2가로 집약된다。

첫째、자민당파벌의 세력균형에의한 전원참가의 내각구성으로 스즈끼정권의 안정을 도모했다。자민당 원내세력분포는 다나까(田中)파 1백6석、스즈끼파 80석、후꾸다(福田)파75석、나까소네(中曾根)파 49석、고모또(河本)파43석등으로 이세력에 상응하는만큼 파벌별로 입각시켰다。黨의 핵심인 간사장에최대파벌인 다나까파의 니까이도(二階堂)씨를 임명、우대했으며 각료의비율은 다나까파·스즈끼파·후꾸다파·나까소네파가모두3석씩、고모도파2명、참의원3명、무파벌3명으로 골고루 안배했다。

둘째특징은 소노다외상을 경질하고 그후임에 黨실력자인 간사장출신의 사꾸라우찌(櫻內)씨를 기용、한일정상화와 방위력증강을 에워싸고 말썽이되고있는 美日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소노다 前외상은『韓美日공동성명은 구속력이 없다。對韓經協을 한푼도 깎을수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는등 외교적 失言을함으로써 美日및 韓日간의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를 경질하고黨내 영향력이 큰 사꾸라우찌씨를 기용했다는 점이다。

사꾸라우찌신임외상은對韓經協 60달러를 에워싸고 교착상태에 빠진 韓日관계를 타결하기위해 빠른시일내에 韓日외상회담을 열것으로 보인다。이어 韓日외상회담에서 對韓經協문제가 해결될경우 내년초의韓日정상회담과 韓日관계정상화의 실현은 무난할것으로 보인다。

스즈끼정권은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한국등 공업국가들이 무역적자문제로 경제적마찰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으로 후꾸다파의 중진인 아베신따로씨를통산상으로기용、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스즈끼내각이 발족한지 1년반만에 개편된 이번개각은 주로 내년선거를 겨냥한 당체제정비와 경제적마찰과 韓日관계정상화에 대한 布石이라는 성격이짙다。각파벌을 고루 참여시키는「안배내각」을 이룩한결과 각료의 평균연령이 작년의 63.5세로부터 64.3세로 한살이 더 많아졌다【東京=宋李彬특파원】

나의 이력서

元一漢⑥

〈題字·元一漢〉

할아버지에 얽힌 逸話

한국어에 능숙·難題수습잘해

나는 1917년10월11일 호러스·H·언더우드와 에델·반·와그너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나의 미국이름 호러스·G·언더우드는 미들네임까지도 할아버지이름과 똑같다。한국에서는 어떻게 할아버지와 똑같은 이름을 지을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을 것이나 미국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아버지 元漢慶은 호러스·언더우드2세、나는 3세、그리고 아버지와 미국이름이 똑같은 나의 장남元漢光은 4세가 되는 것이다.

우리집은 복숭아골이라고 부르는 南大門밖 城아래 세브란스병원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었는데 지은 시기도 세브란스병원과 비슷한 1905년께였다.

내가 장성하면서 할아버지에 관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내나름대로 종합한결과는 매우 따뜻한 인격을 가진분이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점이다.

할아버지를 얘기하자면 He loved them into Heaven 이라는 외에 더 좋은 말이 없을것 같다. 그분은 사랑의 힘으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심는데 전력했다.

그분이 손댄일이 많지만 어디까지나 철저한 신앙인으로서 선교에 열중했고 누구보다도 어린이들을 귀여워했다。주일학교 학생들의 사경회가 있을때는 빼놓지않고 참석、어린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곤 했다。우리 미국장로교의 선교정책은 「자치·자립·자유」였다.

190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노회를 설립하고 5년후 총회가소집됐는데 25년의 짧은 신앙역사를 가지고 노회설립이란 종교계의 드문일로 알고있다.

서울을비롯 경기도서부와 황해도일대에 선교를 펴왔던 할아버지는그때 총회장에 선출됐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한국어를 빨리 터득하여 회화·설교·교수하는데 무난했을뿐 아니라 漢文에도 능해 四書를 곧잘 인용했다。그리고 늘 생각하는일이 성경과 찬송가를 번역하는데 적당한말이 없나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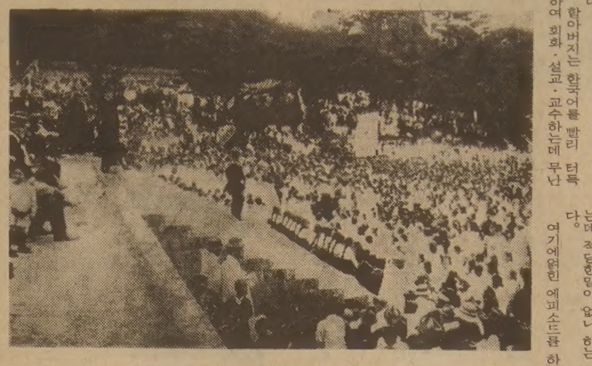
여기에얽힌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본다. 한번은 황해도 九味浦에서 배를타고 白翎島로 가는길에 할아버지는 연상「우리가 죽을때 죽을때 하늘에올라 하늘에올라」하고 흥얼거렸다고 한다.

마침 배멀미가 나서 죽을 고생을하던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찬송가 흥얼거리는 소리를 듣고「아이고、그렇지 않아도 지금 죽을지경인데 죽을때를 어찌 찾고 있읍니까」하고 호소했다는 얘기다.

이찬송가의 원어는 When we die, when we die, We're going to go to Heaven, when we die인데 어떻게하면 좋은 번역용어가 나올까하고 고심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는 한 장면이다。할아버지는 또한 수완을 잘하는것으로도 널리알려져 다른사람들이 안된다고 단정한 일도 기어이 해내는 비범한 일면이 있었다.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가 구역을 정해나누도록 한것이 할아버지의 복안이고 캐나다에서 캐나다장로교회로 하여금 한국에 선교사업을 착수케한것도 할아버지의 공로였다.

그는 교회연합을 위해서는 과히 대화를 텄고 가톨릭 神父들과도 친하게 지냈다。성경번역 과정에서 하느님을 神이라고할까 上帝라고할까 天主라고할까 논란이 있을때 자신은 유교에 뿌리박힌 한국민에게는 天主라는 번역이 옳다는 생각을 가졌으면서도 하느님으로 번역하기를 결정했는데 이때 할아버지의 공헌이 컸다함은 잘알려진 사실이다.


◇1913년 주일학교학생들의 사경회에서 연설하는 元杜尤목사(왼쪽)。이장소는 新門路에있던 慶熙宮으로짐작된다.

찬송가번역에 골몰…神을「하느님」으로 결정

앨런、잠정辭任

千弗사건 法務省조사매듭까지

후임 낸스氏임명

【워싱턴29日UPI=聯】일본의 여성잡지「主婦의 벗」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아 논란을 빚고있는 리처드·앨런 美대통령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은 29일 법무성당국의 조사가 종결될때까지 현직에서 잠정 사임할것이라고 밝혔다。이와함께 레이건美대통령은 앨런보좌관의 후임에 군제독출신의 제임즈·W·낸스씨를 임명했다.

앨런보좌관은 이날 NBC방송의「언론과의 대화」에출연、자신은 레이건 대통령을 더이상 곤경에 처하게하고싶지 않으며 아울러 이문제에 대해 공개해명할수 있는 기회를 갖기위해 보좌관직에서 잠정사임할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성은 현재 앨런보좌관의 사례금수수와 관련、그의 非行여부를 조사중에 있으며 윌리엄·스미드법무장관은 이번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의 임명을 고려하고있다.

한편 28일자 워싱턴·포스트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레이건 대통령의부인 낸시여사와 제임즈·베이커、마이클·디버 두보좌관이 앨런의 사임을 강력히 주장한 반면에 드윈·미즈 고문을비롯한 여타보좌관들은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73kg짜리 大型호박 — 호박 재배업자인 롱·보윈드씨가 자신이 재배한 약73kg 무게의 호박위에 붕대를 동여맨 자신의 발을 얹어보이고있다. 그는 이 대형호박을 트럭에 옮겨싣다가 떨어져 발을 다쳤으나 앞으로도 대형호박을 계속 재배할것이라고 강조.【샐리너즈(美캘리포니아州)29日UPI=聯】

核감축에 異見심각

美·蘇회담、오늘 本會議열어

【제네바29日UPI=聯】미국과 소련은 30일 하오7시(한국시간) 제네바에서 레이건미 행정부의 출범이래 처음으로 동서군축협상을 개막、유럽배치核미사일의 감축방안을 토의하기 시작했다。

폴·니체 미국측수석대표와 유리·크비친스키 소련대표가 이끄는 양국군축협상대표단은 이날 제네바주재 소련대표부건물에서 예비회담을 갖고 절차문제를비롯한 군축협상의 기본규칙들에 관한 토의를 벌였다。

외교관들과 군사전문가로 구성된 양국대표단은 예비회담을 마친뒤 1일 처음으로 본회담을 갖는다。

미국은 이번 대소군축회담을 통해 유럽 배치중거리미사일을 감축하기로 하는 1차협정의 체결을 모색할 계획인 반면 소련은 중거리미사일을 포함、핵폭탄및 핵탄두의 운반이 가능한 핵무기체제일체를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핵무기감축조약체결을 추구하고있어 회담벽두부터 심각한 이견을 노출할것으로 보인다。

양국대표단은 크리스머스 휴가기간이전까지의 2~3주간 계속될 1차회담에서 감축대상 핵무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룰것인데 주안점을 둘것으로 보여진다。

레이건 미행정부는 이번 제네바군축회담이 유럽배치 중거리미사일에 국한되는것을 바라고 있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14개 회원국들도 지지하고 있다。미국의 이같은 입장을 서방측은 제1단계 소련의 SS 20·SS 4·SS 5미사일과 유럽에 배치될 미제 퍼싱 II및 크루즈(순항)미사일에 관한 토의에 그치는것을 바라고있으나 이는 소련측의 반발에 직면하게될것이 분명하다고 미국관리들은 전망했다。

외교소식통들은 이번 제네바군축회담이 82년초에 재개될 미소 전략무기제한회담을 포함한 앞으로의 동서협상의 이정표가 될것이며 소련이 레이건행정부의 대소강경입장을 평가하는 최초의 기회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폴·니체 美國측수석대표는 대소군축회담개막에 앞서 28일 헬무트·슈미트 서독수상을 예방、회담을 갖고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건설적인 자세로』신축있게 협상을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美蘇군축회담에 참석차 제네바에 온 소련측 수석대표 유리·크비친스키는 28일 소련이 모든 유럽배치 중거리核무기의 신축한 감축 혹은 전면폐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다시反核시위
포르투갈등서 高潮

【피렌체·리스본28日AP=聯】미소간의 핵무기경쟁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반핵시위가 28일 이탈리아의 피렌체와 포르투갈수도 리스본에서 각각 전개됨으로써 美蘇간군축회담개막을 앞두고 서유럽인들의 반핵열기가 또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

20만에 가까운 피렌체시민들은 이날 시중심부에서 반핵시위를 벌이면서 핵무기를 감축하고 평화증진을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전개할것을 촉구했다.

제2쿠데타 또試圖
세이셸反政團體

【런던29日AP=聯】실패로끝난 지난25일의 세이셸반정부쿠데타를 배후조정했다고 주장하고있는 세이셸반정단체『항쟁운동』은 29일 알베르·르네 대통령의 사회당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제2의 쿠데타를 시도할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단체와 런던지역대변인은 이날 가진 회견에서『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위해 쿠데타를 재시도할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이기도가 언제 실행에 옮겨질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外國人들 위장결혼에 골치
덴마크、異邦人流入방지 서둘러

최근 수백명의 이방인들이 한꺼번에 덴마크에 몰려들어 위장결혼을 하는 바람에 덴마크당국을 잔뜩 긴장시키고있다。

이방인들이 서독에서 결혼선서를 하기까지는 최소한 9개월을 체류해야하지만 덴마크에서는 단지 3일만 체류하면 결혼할 수있어 덴마크로 몰려들고 있는것。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이같은「불법결혼여행」을 알선하는 암시장이 출현하고있는가하면 서독범죄지하조직은 돈을 받고 비자와 신부까지 제공、「신랑·신부」를 덴마크로 밀수출하고 있다。

덴마크경찰은 서독의 택시범죄조직이 신부외에도 아이들까지 태워 마치 가족으로 보이게끔 위장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덴마크당국은 결혼법을 개정하는등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있다。【코펜하겐=聯】

서울 아시안게임
아랍紙 大書특필

【매나마(바레인)29日=聯】아랍신문들은 29일 86년의 제10회 아시안게임을 서울에서 개최키로 한 아시아경기연맹(AGF)의 만장일치결정을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英字紙아랍·뉴스는 이날「서울 86년 아시안게임개최」라는 제목으로 AGF결정에 관한 AP통신기사를 스포츠란에 전재했다。

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두바이에서 발간되는 英字紙칼리지·타임즈는 뉴델리에서 열린 AGF총회결과의 주요통신기사를 종합보도하면서 이와함께 全斗煥대통령이 AGF관계자들에게 감사전문을 보냈다는 서울發AP통신기사를 전했다。

이밖에 쿠웨이트의 英字紙아랍·타임즈는「서울 아시안게임 개최권획득」이라는 제목을 붙여 보도했다.

揚子江 흙탕물汚染

중공의 揚子江상류에서 침식돼 내려오는 토사로 강물이 썩으면서 흙탕물로 변해가고 있다。중공과학자들은 揚子江이 흙탕물로 변해가는것은 중공의 슬픔이 아닐수 없다고 지적、그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돼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北京=AP】

未解決 유괴사건

◆趙斗衡군 유괴사건=62년 9월 10일 당시 5세인 趙斗衡군이 서울麻浦區孔德洞집앞에서 유괴되어 단서조차 잡히지 않은채 사건은 19년9개월동안 미궁에 빠진 채 영구미제사건으로 기록됐다。범국민운동까지 벌여 학생、집배원등을 통해 1천1백만장의 斗衡군찾기 전단을 전국에 뿌렸으나 허사였다。당시 서울시경국장은『명예를 걸고 당신을 처벌하지 않겠으니 斗衡이를 돌려보내라』고 범인에게 보내는 호소문까지 냈으나 斗衡군의 생사조차 확인못했다。경찰의수사도 사실상 중단된지 오래다.

◆金根憲군 유괴살해사건=67년 10월17일밤 과외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根憲군(당시11세·釜山화랑국교 5년)이 유괴살해돼 釜山해안가에 버려졌다。당시 경찰은 범인이 택시로 시체를 버린 것을 운전사로부터 신고를받고도 검문에 실패、범인을 놓쳐버렸다。根憲군의 외삼촌 崔모씨가 범행당시 대구교도소에수감중이었는데 金翠植을 교도관을 매수 1일출감시키고 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烏山탁송화물女兒變屍사건=74년3월23일 天一화물 烏山영업소창고에서 5세가량의 여아가 누비이불에 싸여 숨진채 발견됐다。여아를 유괴살해한후 10일전 淸凉里역에서 부쳐 친척까지 밝혀내고 시체와 운반한 지게꾼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은 물론 살해된 여아의 신원도 밝혀내지못해 수사를 중단해 버렸다.

搜査의 새기록

사건발생 1년18일만에 해결된 潤相군 유괴사건은 그동안 인원2만3천5백94명이 동원됐으며 6천만원의 수사경비가 소요됐다。수사기록만도 캐비닛3개에 가득찰 정도인 10만여장。

수사본부도 처음 麻浦경찰서에 두었다가 서울시경으로 옮겼으며 본부장도 麻浦경찰서장 南相龍총경、서울시경수사과장 金容學경정、서울시경부국장 金士樫경무관、서울시경국장 趙庸瑀경무관으로 바뀌며 격상됐다。

또 수사진은 潤相군 집과 범행현장일대및 潤相군 아버지 가게등에 1만4천2백57번이나 탐문수사를 폈으며 제미니·크라운·××××1 6××등 용의차량 5천4백12대를 조사했다.

메아리

木塔

우리나라가 3국으로 정립하였을때 신라에서 가장 큰 절은 황룡사였고 백제에서 으뜸가는 절은 미륵사였다.

신라가 국력을 기울여 진흥왕 14년(서기553년)에 그절을 착공、26년에 일단 준공했으나 그 완공은 선덕여왕 11년(서기645년)으로서 전후 92년이나 걸려서 이루어졌다.

경주시내 분황사 남쪽 월성 북쪽 벌판에 터전만 폐허로 남은 황룡사는 신라 호국신앙의 중심가람으로 나라의 3가지 보배가운데 2가지인 장륙존상과 9층탑이 간직되었고 특히 그탑은 아름답고 우람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그러던것이 서기1238년 몽고란때 불타버려 탑 기단부의 석조유구만 남아 사적제9호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다가 근자 문화재관리국에 의한 발굴조사로 그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있다.

다른 한편 백제의 미륵사는 전북익산군금마면 용화산 아래 있는데 국보로 지정된 석탑과 보물로 지정된 당간지주만 남아있다.

7세기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석탑은 원래 7층이던것이 9층으로추정되어왔나 지금은 6층만 남아있는데도 그높이가 14.24미터로 동양최대의 규모이다.

지금의것은 서기1915년에 일인들이 양회로 발라 아무렇게나 복원한것으로 보기에도 민망할 지경이다.

그러던중 미륵사지에 대한 학술적인발굴조사가 수년래 진척되어 현존하는 서탑이외에 동탑이따로있었다 드러났으나 이탑은기단만이있음이확인되었다。그런데 이번엔 동·서양석탑중간에서 이들 탑보다 더 큰규모의 목탑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되었다.

만약 이것이 확실하다면 고대사찰의배치에서 동·서석탑의 중간에 목탑이 배치된 첫사례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또 곧 사찰경내의 발굴조사가 끝나고 마무리단계에 있는 황룡사지 조사발굴의 결과를 바탕으로 안압공전 연구팀이 실측된 7백43년만에 황룡사9층탑에 대한 추정도를 작성했다고한다.

이렇게 황룡사의 탑에 대한 복원추정이 이루어지고 미륵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목탑의 존재가 추정되어 신라와 백제의 목탑이 다같이 세상의 이목을 끄는것도 역사적인 깊은 인연의 소치로만 여겨진다.

潤相군 유괴사건 日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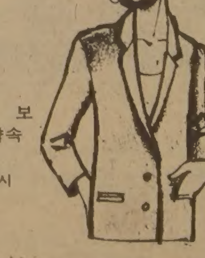
▲80·10·13=潤相군 [illegible]
▲80·11·13=潤相군체육교사 朱永炯씨와 만나러 나간후 실종
▲ 〃 =하오8시 범인들 밀항자금 4천만원요구 첫협박전화
▲80·11·14=하오9시 潤相군아버지 李貞植씨 경찰에신고
▲80·11·16=하오6시40분 범인들이 潤相군의 녹음된 목소리 들려줌(『이분들이 시키는대로하지않으면 나는죽어요』)
▲80·11·18=하오4시30분께 첫 협박편지 도착(20일하오7시 鍾路고려당으로 2천만원 갖고오라)
▲80·11·20=娟受양 돈가방갖고 고려당으로 나갔으나 南山야외음악당으로 나오라는등 4차례전화
▲80·11·28=2회전화(생명보장돈과바꾸자)
▲80·11·29=2차편지접수 (신고우려위협, 생존보장약속)
▲80·12·2=2회전화 (潤相이 잘있다。먹던약 있느냐)
▲80·12·4=3〃 (범인들간의 의견타협안됨을강조)
▲80·12·7=2회전화 (水原으로간다)
▲80·12·8=1회전화 (潤相군 책·장갑·스웨터 준비하라)
▲80·12·9=1회전화(책·스웨터·장갑 麻浦우체국 공중전화박스로 갖다놓아라) 아버지 李씨가 갖고갔으나 허탕
▲80·12·12=1회전화 (18일하오7시까지서울역앞시계탑으로 돈갖고나오라)
▲81·1·7=1〃 (15일낮4시30분 麻浦우체국앞으로 潤相승용차에태워나가겠다)
▲81·1·11=3차편지 (潤相군 조만간에돌려보내겠다)
▲81·2·2=5차편지(潤相군교통사고암시)
▲81·2·26=경찰공개수사 (유괴1백6일만에) 가족현상금 1천만원제시
▲81·2·27=全대통령담화발표
▲81·2·28=각계에서 潤相군찾기운동 내무부장관 현상금 1천만원제시 현상금모두 2천만원으로
▲81·3·2=경찰,수사본부 확대개편 (수사본부장 서울시경 제2부국장 金士樫경무관으로 부본부장 시경형사과장 尹桂?, 마포경찰서장 南相龍총경으로격상)
▲81·10·20=수사본부, 우리나라 수사사상첫 전문가진단。張秉琳교수 (서울대·심리학) 盧東斗박사 (경신신경과전문의) 李炫馥교수 (서울대·언어학) 등 7명
▲81·11·13=潤相군 유괴1년。수사장기화
▲81·11·30=범인 체육교사 朱永炯(28)등 3명검거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이커
숙녀복(size 5 ~ 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706BLOOR ST·W
☎: 534-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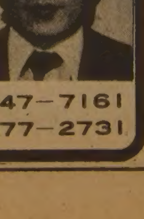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고려식품 옆)
☎: 533-7966 김영철

김명종 한약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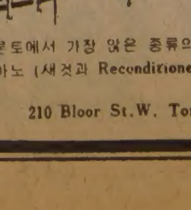
침, 보약(탕약과 엑기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745-2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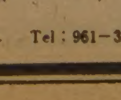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큇·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스파다이나 코너)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악기수리·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선생님이 그럴수가…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殊勳의 두 警官

수사경력 20年、犯人追跡 1주일 잠안잔적도

麻浦署 金政男·李在武 경위

1년이 넘도록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潤相군 사건을 해결한 수훈의 경찰관들은 서울麻浦경찰서 형사계 金政男경위(42)、李在武경위(45) 등 2명。

이들은 그동안의 고생도 잊은채 활짝 웃으면서 『저희들이 잡은 것이 아니라 8만경찰의 집념이 햇볕을 본결과』라고 공을 돌렸다。

이들은 金경위가 강력반장、李경위가 폭력반장으로 사건발생때부터 공동 수사에 나섰다。

형사경력 20년이 넘는 이 두 베테랑 형사들도 潤相이가 유괴된후 뚜렷한 목격자가 없었고 피해자 가족·친사지·업관계동 많은 주변인물을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 특별히 원한을 살만한 일도 없었고 유괴를 당할만한 재력도없어 원한이냐 돈이냐하는 수사방향마저 설정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그러나 다른 중학생이 유괴될 정도면 범인은 가깝게 있는 주변인물일것이란 확신은 가질수 있었다。

『범인이 교사가 아니었다면 더쉽게 해결됐을 것입니다。학교 선생이 설마 제자를 불러내 유괴했다는 사실은 상상할수도 없었고 범인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는데서 수사가 장기화됐읍니다』

이들은 朱교사가 가장 가까운 주변인물이었고 사건당일에 관계가 있었지만 「학생과 제자라는 사이때문에 상식이하의 문제」로 흘려버렸다。

1년이 지나면서 사회의눈초리는 매서웠고 河형사사건이 터지면서부터 경찰의명예는 이사건해결에 달려있다는 무언의압력도 받기 시작했다는것。

潤相군의 어머니、누나를비롯 학교 교장·교감·담임·朱교사등에 대한 사건당일의 일들을 면밀히 꼼꼼히 물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潤相군어머니로부터 새로운 사실을알아냈다。사건 당일 潤相군이 집을 나서면서 朱교사를 만나 어머니에게 朱교사를 만나러 가지만 학교에서 朱교사를만나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潤相군 어머니는 潤相이가 3차례나 朱교사가 만나자고 했으며 그 사실을 절대 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것을 알아낸것이다。金경위와 李경위의 끈질긴 집념과 세심한 질문에 의해 潤相군 어머니가 1년전의 일을 기억해 낸 것이다。

사실을 밝혀낸 이들은 朱교사의 주변을 비밀리 조사했다。전남光州에 내려가 朱교사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朱교사가 지난 겨울과 여름에 내려와 『죽고 싶다』『괴롭다』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러나 수사진은 朱교사가 범인이라고는 생각안했다。뭔가 문제는 있구나하고 생각했을 따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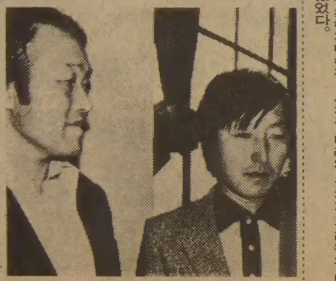
이때부터 金경위는 朱교사의 주변을 조사하고 李경위는 여자관계를 캐는등 분담수사에 나서 총력작전을 폈다。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朱교사가 교장·교감등에게 한말과 경찰에서 한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도 밝혀내고 27일 金경위가 학교에 있는 朱교사에게 전화、이날하오 4시30분 학교근처 다방에서 만났다。

金경위를만난 朱교사는 그동안 金경위가 학교에서 朱교사에 대한것을 조사한 사실을 알았는지 고개를숙이며 범행사실을 털어놨다。

金경위와 李경위는 그순간 가슴이 벅찼으나 한편으로는 허탈감에 빠져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1년이지나도록 4일에 한번씩 속옷을 갈아입으러 집엘 들렀을뿐이고 1주일계속 잠을안자며 용의자를 추적、光州·原州등 전국을 헤매었으며 수사비가없어 빚을 졌지만 이러한 고생은 경찰 모두의 일이지 자신들의 일만이 아니라고 굳이 내세우려하지 않았다。【盧基昌기자】


◇범인검거에 수훈을세운 金政男경위(右)와 李在武경위。

◇北漢江 강변의 참혹 潤相군의 시체가 암장됐던 경기加平郡外西面大成里 북한강변현장。시체는 머리와 몸체가 분리된채 대·소 2개의 비닐가방에 넣어져 벽돌더미와 흙으로 묻혀있었다。

◇이悲痛-실신 母情 비극의 潤相군 집。潤相이가 살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머니 金海慶씨는 통곡끝에 실신、아버지 李貞植씨와 친척들이 돌보고있다。

潤相아— 온국민懇求도 외면

스승이 어떻게 제자를 그렇게 할수가 있다는 말인가。潤相군의 비극을 전해들은 모든 시민들의 입에선 경악과 한탄의 신음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왔다。아무리 자유분망한 개방사회가 돼가고 있다지만 젊은교사는 제자 여고생들까지 유린했고 끝내는 흉악한 유괴살인사건에 끌어들였으며 상습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어린 제자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 버렸다。이제 어버이와같다는 선생님까지 불신해야하는 사회가 돼버렸단 말인가。오늘날 진정한 사도(師道)는 어디갔는가를 되씹게 해주는 악몽같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教壇에 설수있읍니까" 京西中 教師들

各界의 반응

동료로서 有口無言 ▲孫寅洙씨(49·서울진선여중교장)=유구무언이다。사회가 혼탁할때 부도가 차식을、또는 자식이 부모를살해하는 경우는 간혹 있었으나 교사가 제자를 살해했다는것은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다。교사채용은 교원 전문양성기관에서 배출한 사람이라도 윤리관 교직관은 물론 교사로서의사명감과 적성을 고려해야되겠고 또현재의 교사들은 자신의 인격을 배양하고 바람직한 교사상을 세워갈수있어야될줄 믿는다。

믿음이 搜査지연 ▲金水龍씨(40·변호사)=참으로 경악할일이다。아무리 현대가 불신시대라지만 사제간의 신의만은 지켜져야할것이 아닌가。『설마 학교교사가 그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하는 수사진의 한가닥 믿음때문에 오히려 사건해결이 늦어진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한사람의 잘못된 행위로 다른 존경받을 선생들에게까지 누가 끼쳐서는 안된다。

"기막혀 말안나와" ▲張英姬씨(45·주부·서울江南區 신반포 아파트)=너무 기가막혀 말이 제대로 나오진 않는다。가뜩이나 살벌해져가는 사회속에서 이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것조차 두려움을 느끼게 된 학부모들의 가슴에는 먹구름밖에 끼지 않을 것이니 안타깝기만하다。潤相군의 부모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完全犯罪없다 實證 ▲柳淳錫씨(45·서울지검총무부장검사)=한마디로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현재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정확한범행동기나 수단및 증거인멸경위등은 앞으로 상세히 밝혀질것으로 생각되나 유괴주변이 다른사람아닌 潤相군이다니던 학교의 교사라는 사실은 국민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본다。이들에대한 처단은 앞으로법절차에따라 행해질것이나 이기회에 강조하고 싶은 점은 어떤범죄에 있어서도 완전범행이란 결코 불가능하다는것이다。늦게나마 범인을 검거한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教師임용 人格부터 ▲金東一씨(57·清凉里동부청과시장내배추상인)=나는 다섯자녀를 공부시켜야 된다는 일념으로 지난25년간 배추장사를 하며 살았다。그런데 선생이 제자를 끔찍하게 죽이고 여학생을 농락했다니 소름이끼친다。또 교사가 범행후에도 지금가지 계속해서 수업을 맡아왔을것을 상상하면 치가 떨린다。교사를 선입하는 관계당국은 좀더 철저히 자질과 인격을 검토한후 교단에 설수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再發없게 重罰을 ▲金正鈺씨(연극협회이사장)=너무기가막힌다。우리나라 師道의 문란이 이렇게 심각하다니 아이들을 학교에보내기도 겁난다。나도 자녀를 둔 부모로서 潤相이 부모에게 지면을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하물며 아내와 자식까지있으면서 제자인 여학생들을유린하고 돈을 탐내 범행을 저질렀다니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법이 허용하는한도내에서 최대한의 重罰이내려져야겠다。

전체教師 오해말길 ▲許正勳씨(47·서울刑事지법수석부장판사)=믿어지지않는일이다。국민도의가 땅에떨어졌다는 얘기가 근자에 많이 들려왔지만 교사가 자기제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공범에 역시 제자를 끌어들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답답하다。체육교사도 체육전문인이기에 앞서 2세의 전인교육을 맡고 있으며 사도를 걷는 스승이라는점에서 이기회에 체육교사임용에 문제는없는지 살펴봐야할것이다。다만 사회분위거가 외곬으로 치달아 교사한사람의 잘못으로 전체교사들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고 사제간에 묘한 이질감까지 생기는일이 없도록 이충격이빠리 치유되기를 바란다。

精神病者일 가능성 ▲金光日교수(漢陽大醫大정신신경과)=대체로 이런 행동은 반사회적인 성격장애를 갖는 이른바 정신병질자에게서 찾아 볼수 있다。정신병질자란 충동과 욕구조절이 잘 안되는 성격장애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정신병자와 달라 사회생활에도 외향적으로 적응해 갈수있어 일반인들에겐 쉽게 구분이 잘 안된다。정신병질자는 선천적으로 충동과 욕구가 강한 성격을 타고난 사람이 자랄때 해달라는대로 무엇이든지 해준다든가 걸핏하면 때린다든지해서 옳고 그른것을 판단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때 나타날수 있다。일단정신감정을받아보아야할것이다。

潤相군 집은 울음바다

【潤相군집】 서울麻浦區孔德洞184의73 潤相군집에는 이날 아버지 李貞植씨(43)와 어머니 金海慶씨(41)가『潤相이가살아서돌아올줄알았더니』하면서통곡、실신했다。

이날 潤相군집에는 고모李貞任씨(47·鍾路區鳳翼洞41의6)와 潤相군 어머니의친구洪英周씨(41·서울江南區驛三洞 동신아파트 라동106호)와 이웃주민등 30여명이 몰려와 金씨에게 진정제를 먹이며 위로했다。

어머니 金씨는 『그날 나가지말라고 말렸는데 선생님과 만나야한다며 나가더니 변을 당했다』며 울부짖어 주위가 함께 울음바다가 됐다。

아버지 李씨는 이날상오 경찰로부터 범인을 검거한것같은 눈치를채고 누이 李씨에게『이모래도 潤相이어미를 병원에 입원시켜야한것같으니 급히와달라고부탁했었다』고말하고 그러나 막상 소식을듣고보니 정말 기가막힐뿐이다』는 말만되뇌었다。

李씨는 또『학교선생이 제자를 그렇게 할수 있는 일이나。뭔가 잘못된것 같다』고 허탈해하며 『그동안 조사를 받았던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J여고 1학년7반에 다니고 있는 娟姬양(16)은 이날 학교에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학교측에서 알려주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같은반 친구들을 통해 이날하오 1시30분께야 알게됐다。

한편 몰려든 시민가운데는 멀리 江南區道谷洞 영동아파트23동409호에 사는 金東心씨(36)도 있었는데 金씨는『소식을 듣고 潤相이부모를 위로하러 왔다。선생이제자인 여학생들과 공모해서이런 끔찍한일을 저지를수 있느냐』며 분개했다。

또 潤相군의 어머니 金씨의 친구 洪英周씨도『위로차 택시를타고오다 뉴스를 듣고 알았다』며『친구라기보다같이 자식을 기르는 부모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다』며『앞으로 무서워서 어떻게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수 있느냐』며 위선적인교사의 범행을 비난했다。

또 동네주민들도 한결같이 『그놈때문에 우리는 물론潤相이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반문하면서『그런교사는 사형을 시켜야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京西중학】 이날 京西중학교 교직원·학생들은 모두 말을 잃었다。

殷容基교장(60)은 뉴스를 듣자 상오11시께 말없이밖으로나갔고 교무실에는 金高明교무주임(46)등 교사들이 침통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金교무주임은『어떻게 학생들앞에서서 가르칠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했다。

潤相이가 1학년때 담임을 맡았던 吳淑芳교사(32·여)는『潤相이가 살아있을줄 알았는데…』라고 울음을 터뜨리며『동료교사가 그랬다니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潤相이와 1학년때 같은반이었던 2학년9반 朴光一군(14)도 『체육선생님은 평소에도 잘때려 몹시 무서웠다』며 『친구를 죽인 선생님에게 1년동안 배웠다니…』라며 울먹였다。

李在道군(14)도 『선생님이 학생을유괴할수도있느냐、潤相이를 살려내라』고 말했다。

또 2학년9반 학생들이 3교시가 끝나고 담임 高翎坤선생(35)이 사회과목을 가르치러 들어오자『어떻게된일이냐』고 질문하자 묵묵부답、수업을 제대로 하지못했다。

이날 京西중학교에는 시교위에서 장학사1명이 진상조사를 하러 나오기도했다。

한편 교무실 남쪽 한가운데에있는 朱교사의 나무책상은 텅비어 있었고 서랍에는 자·파이프·미화1백불짜리·바둑개론·서울大사대졸업장·교원자격증·담배갑등이어수선하게 놓여있었으며 오른쪽 두번째 서랍에는「삶과죽음사이에서」라는 일기장이 남아있었다。

"얼굴 알아볼수없어"

【加平=朴珍列기자】潤相군시체가 토막난채 발굴됐다。

경찰은 朱교사의 자백에따라 30일 경기加平郡外西面大城1里98앞 북한강변모래밭에서 시체를 발굴했는데 머리와몸체가 따로따로 토막난채 2개의 대형가방에 들어있었다。

경찰은 이날 상오10시부터 2시간동안 4개의 구덩이를 팠으나 허탕、하오3시30분 다시 11번째 구덩이에서 潤相군의 시체를 발견한것。

시체가 발견된곳은 범인朱가 처음 진술한곳에서 50m떨어진 大成1里 한얼산기도원 건너편 모래판인데 시체는 형체를 알아볼수없을 정도였다。

2경관 1계급特進

徐廷和내무부장관은 30일하오 柳興洙치안본부장 朴在植서울시경국장을 대동하고 麻浦경찰서에 들려 潤相군살해범검거에공이큰수사반원들을 치하하고 금일봉을전달했다。徐장관은이자리에서麻浦경찰서장 南相龍총경 수사과장 金容學경정 형사계장李基春경감등 3명에게는 훈장을 상신하고 형사2반장 李在武경위 형사3반장 金政男경위등 12명에게는 1계급씩 특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大生 3명拘束 校內示威 선동혐의

서울冠岳경찰서는 30일 교내에서 시위를 선동한 서울大 文秉玉(23·미학과4년)·총연구회장) 金學辰(23·조선공학과4년·80년도 총학생회부회장) 池英根군(23·체육학과4년) 등 3명을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文군등은지난25일 낮12시50분부터 40분간 관악캠퍼스의 도서관 5층난간과 앞광장에서 불온유인물을 뿌리고 구호를 외치는등 불법시위를 주동한 혐의이다。

20代청년變死體로 술마신 친구手配

【浦項=聯】30일 새벽3시30분께 경북迎日郡九龍浦邑九龍浦里 버스주차장에서 尹인호씨(26·경북迎日郡九龍浦邑九龍浦2里923의25)가 목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시체로 발견됐다。

尹씨는 주차중인 버스뒷부분 땅바닥에 엎어진채 숨져있었는데 목부분이 7㎝가량 찢어져 있고 왼쪽손에도 상처가 나있었다。

경찰은 尹씨가 29일밤 李모씨(25)등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많이 마셨다는 얘기에 따라 李씨등을 수배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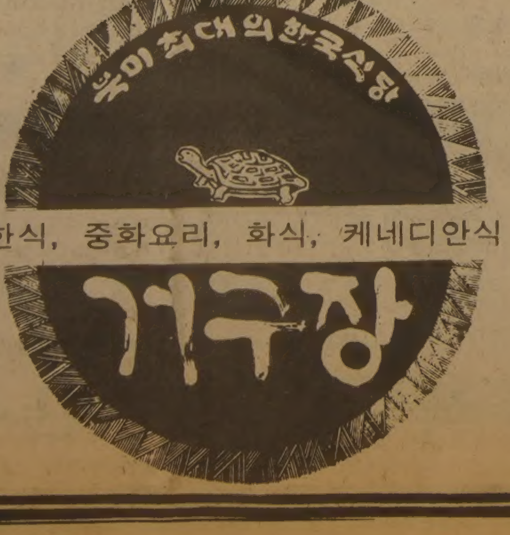
거 구 장 巨龜莊

저희 거구장을 항상 사랑해 주시는 교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가 거구장을 새로 경영하게 되었음에 우선 지면을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오며, 과거의 미숙한 점은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 사오니,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한 영 올림

주소 : 5 BETHRIDGE RD.
전화 : 742-1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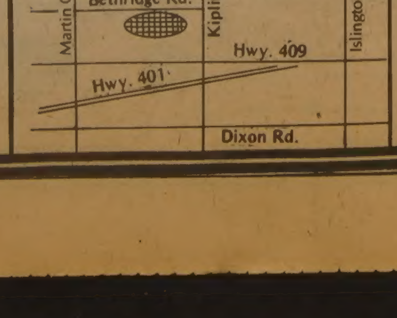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회갑·생일파티·동창회등 각종피로연

● 크리스마스및 망년파티 예약은 염가로 봉사하겠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오전 11시30분~새벽2시까지
토, 일 : 오후 2시 ~ 새벽2시까지
금, 토, 일 오후8 : 30부터 신현희와 그의 악단출연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東獨 그나우크 金메달3 女子종별

세계體操폐막 蘇聯은 金9로 종합 1위

【모스크바29日外信=綜合】81년도 세계체조선수권대회가 29일 모스크바에서 폐막, 대회최종일 東獨의 막시·그나우크는 여자 4개종목별 경기중 2단평행봉、평균대、뜀틀의 3종목을 휩쓸어 3개의 金메달을 따냈다。

유럽선수권을 가진 17세의 베를린 여고생 막시·그나우크는 이날 발목부상을 무릅쓰고 2단평행봉에서 2종 서머솔트(공중돌기)의 연기를 펼쳐 여자경기서는 10점만점을 기록했다。마루운동에서는 蘇聯의 나탈리아·일렌코(15)가 金메달을 따냈다。

전날 끝난 여자개인종합서는 막시·그나우크등 강호들이 부상으로 불참한데 힘입어 蘇聯의 올가·비체로바(15)가 金, 마리아·필라토바가 銀, 엘레나·다비도바가 銅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역시 발목부상으로 남자개인종합선수권을 지키지 못했던 蘇聯의 알렉산더·디티아틴(24)은 개인종목별경기(링과 평행봉)에서 2개의 金메달을 따냈다。

주최국 蘇聯은 金9、銀6 銅5、東獨은 金5 銅2의 성적을 올렸다。전통적인 남자체조 강국 日本이 金1 銀1 銅3으로 부진, 메달집계에서 4위로 처진반면 中共은 金2、銀4、銅2로 3위로 뛰어올랐다。

주간女性

亞洲陸上서 日獨走 끝나

中共 擡頭로 兩立시대로

日=19 中共=16종목서 랭킹1위

한국 男8百m뿐

아시아육상은 中共이 등장함으로써 日本의 독주에 쐐기를 박고 양대산맥을 형성했다。

아시아·트랙·앤드·뉴스誌가 발표한 81년도 각 종목별 남녀 아시아6걸에 따르면 남23、여16개등 39개종목중 日本이19개(남13 여6)종목에서 랭킹1위를 차지했으며, 中共은 16개종목(남7 여9)을 휩쓸어 아시아 육상을 양분했다。

이밖에 韓國과 泰國 쿠웨이트 이스라엘이 각각 1개종목씩을 석권했는데 韓國은 남자8백m서 金福柱가 1분48초47로 랭킹1위에 올랐으며 남자 4백m 계주서는 40초56으로 3위、남자넓이뛰기의 金鍾鎰이 中共의 8m11에 이어 7m98로 2위에 랭크됐다。

여자부서는 한국주니어 대표팀이 1천6백m계주서 3분50초58로 6위、넓이뛰기서 李順天이 6m01로 6위를 각각 차지했으며 北韓은 李종선이 마라톤에서 2시간15분52초로 6위에 올랐을뿐 다른 종목에서는 1명도 랭킹6위내에 들지못했다。

한편 日本의 세꼬는 1만m와 마라톤에서 1위를 차지해 유일한 2관왕이됐다。

랭킹6걸에 따르면 日本은 트랙에서、中共은 필드에서 강세를 보였다。

◇81년도 남녀종목별 아시아랭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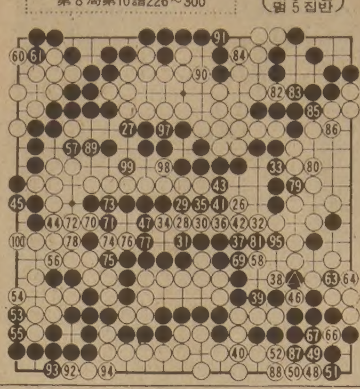
▲남자1백m=①체어수바파브(泰國)10초52 ▲2백m=①도요다(日本)20초99 ②張在根(韓國)21초09 ▲4백m=①이소베(日本)46초72 ▲8백m=①金福柱(韓國)1분48초47 ▲1천5백m=①이시이(日本)3분40초93 ▲5천m=①모리구찌(日本)13분26초55 ▲1만m=①세꼬(日本)27분51초93 ▲마라톤=①세꼬(日本)2시간09분26초 ②李종선(北韓)2시간15분52초 ▲1백10m허들=①후지모리(日本)14초22 ▲4백m허들=①나가오(日本)50초32 ▲3천m장애=①신다꾸(日本)8분23초64 ▲4백m계주=①日本39초86 ③韓國40초56 ▲1천6백m계주=①日本3분07초06 ▲20km경보=①왕준(中共)1시간29분18초 ▲높이뛰기=①쥬장화(中共)2m30 ▲봉고도=①다까하시(日本)5m45 ▲넓이뛰기=①류유황(中共)8m11 ▲3단뛰기=①주젠샨(中共)17m34 ▲투포환=①진카위(쿠웨이트)18m65 ▲투원반=①리웨이난(中共)59m48 ▲투해머=①무로후시(日本)71m36 ▲투창=①센·마오·마오(中共)85m40 ▲10종경기=①워·캄·키앙(中共)7,426점

▲여자1백m=①오사끄(日本)11초91 ▲2백m=①고니시(日本)24초45 ▲4백m=①가오·양·퀑(中共)52초85 ▲8백m=①가오·귀·메이(中共)2분05초07 ▲1천5백m=①메이리(이스라엘)4분22초1 ▲3천m=①마스다(日本)9분14초81 ▲1백m허들=아끼모또(日本)13초78 ▲4백m허들=①장휘펜(中共)59초24 ▲4백m계주=①日本45초70 ▲1천6백m계주=①中共3분41초18 ⑥韓國3분50초58 ▲높이뛰기=①후꾸미쓰(日本)1m93 ▲넓이뛰기=①리후이롱(中共)6m36 ⑥李順天(韓國)6m01 ▲투포환=①센리콴(中共)18m15 ▲투원반=①리샤오회(中共)59m10 ▲투창=①탕·구오리(中共)61m64 ▲7종경기=①예페이슈(中共)5,518점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8局第10譜226~300 (각 5시간 덤 5집반)

白(7段)河燦錫〈1敗〉
黑(7段)徐奉洙〈1勝〉



이근처에 와서는 兩棋士는 물론 보는이들도 거의 정확한 계가를 하고있었다。아무래도 黑이 덤의 부담을 어쩌지 못하는 국면인 것이다。

徐7단은 이미 패전을 자인하고 그런대로 최선의 끝내기수를 찾노라고 여념이없다。河7단인즉 승리를 확신할만큼 마음의 여유를 보이면서 끝내기도 착실히 하고있다。

중앙白26이면 黑27은절대。河7단은 다시 차분히 생각하고 白28로 黑의 품안에 깊숙이 파고든다。예리한 수법이다。

여기서부터 최후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진다。그리고 黑은 결사의 반격기회를 노리게 되는 것이다。

黑29이하가 맹렬한 저항。白이 38로 단수를 한때 黑39 다음 41、43쪽으로

白 5집반 승리

중앙의대마를 탈출해 놓고나서 白38을 끊어잡으려 한다。실로 무서운 노림수。徐7단 아니고서는 생각이 미치지않는 수법인가 싶어보인다。

『허허, 큰일날 수가 있구나』그것을 아슬아슬하게 발견한 河7단은 白44를 선수한다음 白46으로 따내고 黑에게 47을 두도록 강요했다。黑의 노림수를 미리 방비해 둔것이다。

그리고나서 유유히 우하귀를 白48로 달려든다。마지막 남은 큰곳이다。

黑에게 좀체 선수를 넘겨주지않고 승리를 마무리지어 가다가 좌측의 멋진 끝내기를 白70이하로 해치우자 승부차는 결정되었다。

진작부터 염려한대로 黑은 無面비、5집반의 덤만큼 지고말았다。河7단 好調의 한판이라 할만한 것이었다。

59…▲。62…46。65…▲。68…46。96…▲이음。【一凡】

◇세계體操女王 15세의 세계여자체조 개인종합선수권자 비체로바의 평균대연기。

流星의 賦 <248>

李炳注作 李友範畫

感傷異國月 ⑭

4월29일 이날은 예조(禮曹)에서 선택한 출항(出航)의 날이다。하늘은 맑고 해풍은 부드러웠다。문자 그대로 길일이었다。진시(辰時)를 기하여 통신사 일행은 좌수사(左水使)이하 지방 관원들의 환송을 받고 승선、이윽고 해람(解纜)하여 고적(鼓笛)소리도 우람하게 출항했다。일본 사신들의 배까질 한채 대선(大船) 십수척이 각기 난장을 하고 창파를 헤쳐나가는 모양은 실로 장관이었다。부산포 일대는 구경온 사람으로 하얗게 덮였다。

사신들은 각기 따로따로 배를 탔다。배는 이른바 용양전함(龍驤戰艦)、바깥으로 붉은 나장(羅帳)을 이루고、안엔 판옥(板屋) 십이칸(十二間)을 만들었는데 포주(庖廚)를 비롯하여 품장(稟藏)、침소(寢所)가 곤고루 갖추어져 있다。판옥의 상층에 설헌(設軒)하여 기둥엔 부조(浮彫)된 채화(彩畫)가 있고、흑칠색의 장막으로 둘러쳐있어、7·8명이 앉을수 있게 되어 있다。막을 걷어 올리면 해양의 조망이 일모에 들어온다。막 뒤켠에 높이 15장(丈)의 목간(木竿)두개가 있어 이에 돛 달았다。목간의 끝엔 표기(標旗)가 펄럭인다。동서(東西)의 남두엔 검창(劍槍)을 세우고 남하(檻下) 양측에 구멍을 파선 좌우 십이정(十二挺)의 노(櫓)를 달았다。배의 선두엔 기둥을 세워 북을 걸고 그것으로서 군령(軍令)을 알린다。

사신이 탄 본선(本船)외에 종선(從船)이 있어 양식과 예물을 실었다。그 선체는 크기만 다를뿐 큰배와 다를바 없다。안내하는 일본 배는 모두 붉은 난간에 검은 장막을 둘러 정묘하기 짝이 없고、각각 종선을 가졌는데 그 완급(緩急)이 본선(本船)과 한치도 어긋나지 않았다。

흥계남은 부사 김성일의 배에 타고 있었다。김성일은 차천락과 바다를 논하고 시를 읊으며 그 기개가 사뭇 당당했다。계남은 멀어져가는 고국의 산천을 바라보며 무량한 감회에 젖었다。

해상에 해가 저물 무렵 돌연 전방에 산용(山容)이 나타났다。역관(譯官)이 그것을 가리키며 좌수포(佐須浦)라고 했다。배는 산과 산 사이로 들어갔다。각선은 4、5개의 장대 위에 등을 달았다。이윽고 포구에 도착。왜인들의 영접 나온 배는 수십척이었다。모두들 무어라고 지꺼리는데 계남이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어 어마지두 했다。계남은 일행과 함께 지정된 객사(客舍)에 들어 주식(酒食)의 향응을 받았다。그런데 음식이 전연 구미에 맞질 않았다。

좌수포는 일명 사사포(沙沙浦)라고 한다。대마도 서북단(西北端)에 있는데 산봉우리가 사방에서 에워싸 있어 바다가 둥근 호수처럼 되어 있다。주변엔 솔、삼、풍죽、귤、유자、동백나무가 울창하다。절호의 바람 막이가 되어있어 군선(群船)이 모여드는 곳이다。

포구를 사이에 두고 민가 30여호가 거기 갑대를 쌓아올려 그 천장을 높게 했는데 엮어놓은 챙반의 형상이다。

사내는 모두 전발(剪髮)로써 관을 쓰지 않고、옷은 넓은 소매로 된 내리바지 식이고、바지를 입지 않았다。여자는 남자를 두장에 틀고 넓은띠를 매고 있었다。모두들 익숙한 솜씨로 배를 다루었다。

물자가 부족한 모양으로 식사는 형편이 없었다。파、미나리、전채、두부、선어가 있을뿐이다。

◇여자 個人綜合 우승자 새로운 여자체조 세계선수권자 蘇聯의 올가·비체로바(15)。개인종합서 78.4점으로 우승했다。【모스크바 28日AP=聯合】

蘇 全勝으로 패권

월드컵 남자排球

【東京29日外信=綜合】蘇聯은 28일 폐막된 제4회 월드컵남자배구대회 최종일 경기에서 주최국 日本을 3대0으로 눌러 7전전승으로 패권을 차지했다。

◇최종순위 ①蘇聯②쿠바③브라질④폴란드⑤中共⑥日本⑦이탈리아⑧튀니지

한국일보 533-2361

■送年女流短篇 내밤에 등불 <7>

梁貴子作 金光培畫

맥주홀〈갈채〉에 앉아서 텁보녀석은 담배연기 사이로 힐끔힐끔 웃었다。

『깨끗해졌는데…너、여자 있지?』

『시끄러 임마。언제부터 될까?』

홀안은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지 썰렁해보였다。여기에 조명이 덧씌워지고 병마개 따는 소리와 혀꼬부라진 여인의 웃음소리가 겹치면 바야흐로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이겠지。

『요즘、경기가 안좋아서 멤버를 줄이고 있거든。지갑 맡겨놓고 술마셔주는 사람이 통 보기 힘들어서…』

그러는 녀석의 얼굴은 기름기가 번지르르해서 목하 성업중임을 은근히 안시하고 있었다。

『뭐야? 안 시켜줄거면 관뒤。다른데 가서 알아볼테니』

악기의 화음을 고르고 있는 고정 멤버들의 부산한 움직임을 보면서 나는 흥기없이 화답 내보았다。

『자아식。슬프고 궁상맞은 노래 듣겠다는 관빈 주당이 있을까마는、네 결심이 가상해서 시켜준단다』

텁보의 손짓이 있기가 무섭게 맥주와 안주가 날라왔고 그의 근무시간이 정해졌다。

『납들 주는대로 주마。네 여자 굶기지 않을 만큼』

하기야 그 정도도 대단히 운좋은 자리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이제는 승희、그애의 꽃잎같은 입술에 포크와 나이프가 닿게 해줘야지。

나는 녀석이 권하는 술잔을 마다하고 일어섰다。안주로 나온 땅콩은 승희를 생각해서 호주머니에 털어넣었다。호호호。나는 이러한 나 자신을 향해 음흉하게 웃었다。어ー주。제법 처자식 거느린 가장 흉내를 내고있어。

자취방으로 향하는 골목길에 접어들다가 나는 어ー하고 낮게 소리질렀다。골목 외등 밑으로 조금 비켜서 여자가 목도리를 칭칭 감고는 서있었다。작고 추워보이는 얼굴이 거기 있었다。

『승희、추운데 여긴 왜?』

나는 뛰어가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럴 수가。가장의 흉내를 내며 귀가해보니 골목길에선 여자가 마누라처럼 기다려주다니。

『취직했어요?』

『그으럼!』

나는 의기양양했다。

『그럴줄 알고 기다렸어요。나、토큰 하나 주세요。이걸 사느라고 돈을 몽땅 털었어요。』

『이게 뭐야?』

『집에 가서 펴보세요。취직 축하선물이에요』

이러지 마。나는 콧날이 찡해옴을 애써 감추면서 짐짓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은 없었다。그러나 하늘은 찬란했다。간원 버스속으로 뛰어오르며 승희가 말했었지。

『감기 들면 목소리 버려요。조심해야 해요。조심해야 해요。감기들면 안돼요。조심하세요…』

이 춥고 긴 겨울의 터널안에 그만큼 따뜻한 말을 넣어 올림을 만드는 여자。나는 그녀가 준 선물을 펼쳐보았다。

눈속에서 뒹굴어도 춥지않을 폭신폭신한 스웨터였다。옅은 갈색의 그것은、털실 특유의 미세한 반짝거림을 내보이며 썰렁한 방안을 단숨에 빛내주었다。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654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캐나다 외환은행
☎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KING X YORK)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수분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꽃 집 크로스웨이(구 쿨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기 타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537-0432 미스타 리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래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 wedding
• commercial • wall decors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203 TOR.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통역은 월요일만합니다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니폰·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한국일보 광고문의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제일식품■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단풍식품을 인수해서 **제일식품**이란 새 상호를
갖고 여러분께 봉사케 되었읍니다.
그간 해밀톤에 거주했던 관계로, 토론토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많이 없으나 오직 꾸준하게 성실히(1주일
내내 OPEN) 일할것을 교민께 약속드립니다.

김 덕 기 올림

★ 배달합니다.
★ 7 DAYS OPEN(오전10~오후10)
★ 새로 PARKING LOT마련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12 BLOOR ST. W.
☎ : 532-1054
아리랑하우스 옆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초저녁 청소하실분 구함
☎ 962-0019

주말에 가게에서 일할 파타잉 헬퍼구함.
(스카보로지역이면 좋음)
☎ 267-4770

웨이터 1명. 웨이트레스 1명. 주방헬퍼 1명
구함.
628 BLOOQ ST. W.

일요일 헬퍼구함(여자) (12시~저녁8시)
921-0624(다운타운소재)

● 레스토랑에서 일할분(FULL TIME)
● 좋은 대우
☎ 486-1112(추랭소와)

매니저구함. 주매상 : $6,000이상인 성업중인
그로서리 스토아임. 약간의 보증금 요함.
☎ 431-4474. 439-4885(MR. 김)

동업자 구함
아주적은 투자로서 좋은 사업 할 수 있음.
한국서 고졸이상자의 학력 소지자로서 캐네디안과
충분한 대화를 할수있는 인격을 갖춘분 환영함.
☎ : 962-0019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스토아 PLUS2베드롬 아파트 매매
스카보로에 있음. 최저 주매상 : $2,500
보증하고 $4,000으로 올릴수 있음. 좋은리스.
GLORIA GRANT 나 NINA WARREN에게 연락요.
☎ 694-3336. 690-9983
FAMILY TRUST CORPORATION REALTOR.

HUNTS BAKERY
X-MAS 생일. 단체용 CAKE 주문
☎ : 769-4347 (던다스 AND 스카렛)

스토아 매매
주매상 $4200 아스킹 $29000
☎ 423 9899

성업중인 GIFT SHOP 매매
짧은시간(10~6시까지) B) 656-6660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OPEN R) 224-2227

매 매
자개애기 3층장. 나비장. 자개상
☎ 661-4581

① 버라이어티 주매상 $5,000. $45,000
② 버라이어티 주매상 $4,000. $25,000
③ 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주6일
☎ : 481-3443. 745-5485 황 순 일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도나스샵 급매
BEST OFFER. 주매상 $4000보증
WHOLESALE+RETAIL
☎ : 532-9955(오후2시 이후연락바람)

TUCK SHOP
HAMILTON 소재 1600 SQ. FT.
RENT : $350 5½YR 10YEAR OPTION
APARTMENT COMPLEX에 위치한 유일한
TUCK SHOP임.
현월수 순수익 : $4,000보장.
10시~10시사이 (MRS. 전)
☎ : 1-662-4705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6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이경복 회계사무소 766-5639
INCOME TAX & BOOKKEEPING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R. I. 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약 국

SUPER×DRUGS
☎ : 368-2746
조 남 오

돈 밀 약 국
☎ 429-4117
이 요 한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현의상실
각종양장 마춤전문 ☎ : 769-1559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
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가나인 카텐 · 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집 · 방세 · 하숙

다운타운 가게 세 놓습니다.
채소및 꽃가게 하실분을 찾습니다.
☎ : 365-1489

구 혼

1939년생 남자
결혼에 실패한 가족없는 여자원함
☎ : 742-1671 Mr. 유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
2188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로 마 노 미 용 실 감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VISA master charge
오시지 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 : 533-2361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 · 보수 각종냉동기. 에어콘
CANKO ELECTRIC CO 270 3118 오 현 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살 임실 집. 가게 공장
☎ (B) 245 5544(PAGING)2790. (R) 255 7161

TV 출장 수리
☎ 431-0102 미스터 박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식 품 점

제일식품(구 단풍식품)
●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배달합니다.
● 뒤에 파킹 LC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에서 8시까지)
●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오.
주소 :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 배달도 합니다.

한 국 식 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일요일 영업 : 11AM~7PM
배달도 가능 합니다.

품질좋고 값싼 주7일 영업(오전10시~저녁10시)
금요일은 오전10-밤12시까지.
삼복식품 일요일 오후4-저녁9시 ☎ : 743-8270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아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02 김 수 웅

Modern Pianos
한일의 SOLOMON 피아노가 서울서 도착! 모던
피아노로 와서보고 구입하세요. ☎ : 665-5600
97NORFINCH DRIVE, DOWNSVIEW.

여 행 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보 석

Young'S JEWELLERY ●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 B) 284-9325 R) 281-1954 Mrs남

다이아몬드 · 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인벤토리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 259-5822. 255-8301 (R) 252-2963 MR. 오

에어콘 · 히팅 · 냉장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749-3178 김 진 환

에어콘 · 냉동 · 전기 · 히팅 · 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확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 : (R) 651-9324
자동차 수리 일체 : (B) 226-5430
20 ROGERS RD. 변 달 원 (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안내광고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0200. (R) 533-215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자동차 고장??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 789-7351. 789-7352
대표 : 이인용

한 방 원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
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타보로 제너랄 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꽃 집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안내광고 다른 면에 계속

밍크앵콜쇼-!

이번 X-MAS 선물은 미도파에서 준비하세요.

지난1차「밍크쇼」에 대 성황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교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코자 보다 더 다양한 품목을 준비하여 **밍크 앵콜쇼** 를 다시 한번 갖게 되었사오니이기회에 교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표 장 추 신 삼가

밍크, 친칠라, 링스, 무스, 라쿤, 각종 FOX, 비버, 마스칼라, 각종털제품 (목도리, 칼라, 스톨)

양털코트, 물 세무코트, 가죽코트, 케쉬미어 코트, 디자이너코트, 남・녀 겨울용 코트 다량준비

LONDON FOG®

남・녀 바바리코트 다량입하

6일간

✂일 시 : 12월9일(수)~12월14일(월)

이특별쇼기간 후에도 계속 여러종류의 우량 우량품 밍크모피제품들을 준비하여 연중 변함없이 여러분을 모시겠사오니 부디 왕림하여 주십시오.

✂영업시간 : 상오10시~하오11

사업하시는 분을 위하여 영업시간을 밤11시까지 연장합니다(단, 일요일은 낮12시부터 밤9시까지입니다.)

40% OFF

OMEGA WORLD SERVICE WATCHES ORGANIZATION

오메가 DAY

-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를「오메가DAY」로 정하여 다량의 오메가 시계를 준비하여 교민 여러분께 염가로 특별 봉사코저 합니다.
- 오메가 고급시계 외100여종 시계
- 다이아몬드(투자용 다이아몬드,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지등)
- 귀금속 : 에멜랄드, 루비, 싸파이어, 진주, 비취, 오팔등
- 혼례용 보석

여러분의 단골 백화점
미도파로 오세요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